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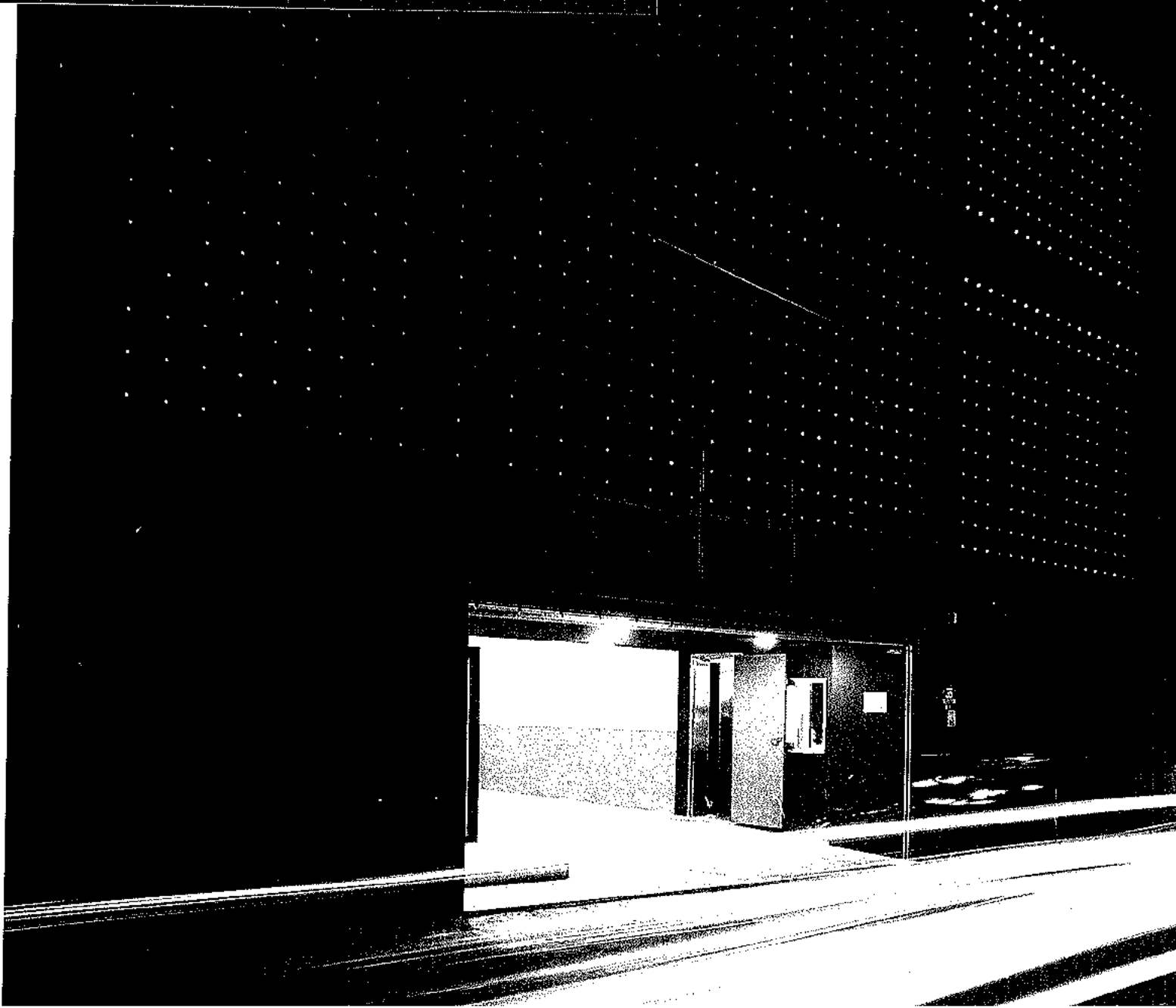
1998 **12** vol. 356

칼럼 _____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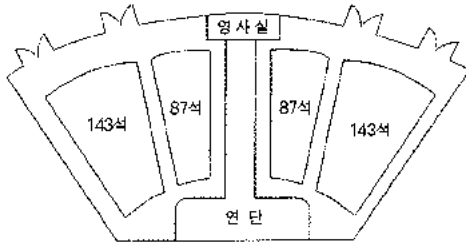
작품리뷰 _____ 시안

작품노트 _____ 남강빌딩

리포트 _____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1)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460석)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상막/후관/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대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 : 00~18 : 00, 동절기(11월~2월)/09 : 00~17 : 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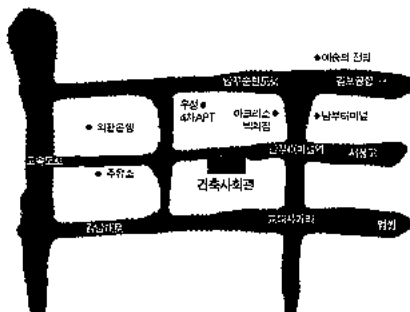
(단위 : 원, VAT별도)

장비명	사용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담·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5711~4

FAX : 586-8823 / 585-4958

365일 언제 만나도 생생한 뉴스가 가득 -

Design Software 회사, 오토데스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www.autodesk.co.kr

10월 1일부터 확 달라진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 전문가를 위한 살아있는 정보와 서비스가 가득합니다. 빠른 업데이트 주기로 정보가 늘 생생한은 물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인터넷에서 바로 바로! 건축/엔지니어링/건설, 토목/측량, 기계/기구 설계, GIS/맵핑에서 웹/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디자인 세상을 위한 모든 정보, 최신 디자인 관련 정보가 한눈에 잡힙니다.



Welcome to Autodesk Korea

<http://www.autodesk.co.kr/>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가 ...

제품 및 솔루션

오토캐드, 건축/엔지니어링/건설, 토목/측량, 기계/기구 설계, 지리정보시스템/맵핑, 웹, 퍼스널 소프트웨어 그룹 및 키네틱스 마켓그룹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오토데스크 제품 및 솔루션이 가득합니다.

신제품 소개

따끈따끈한 신제품 정보를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신제품만을 위한 페이지

회사 소개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성장 과정과 현주소, 최신 보도자료, 국내외 행사 및 세미나 등 오토데스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이 곳에!

고객 기술 지원

제품에 대한 다양한 기술 문서, 빈민한 질문과 답변, 각종 파일 라이브러리, Quick Tip 등 웹을 통한 신속한 기술 지원과 전자매일을 통해 제품 사용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전자메일 서비스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파트너

오토데스크 전문 딜러, 공인 교육 기관, 오토데스크 개발자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관련 정보들이 바로 바로 제공됩니다.

고객 마당

홈페이지 고객 등록, 고객 게시판, 국내 동호회 안내, 교육 및 인증서, 오토데스크 행사 및 세미나 안내, 오토데스크 웹진 등 전문가라면 꼭 북마크를 해 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오토데스크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CAD

한글 AutoCAD R14 : WOW(Windows, Objects, Web)기술을 수용한 전세계 설계 표준 CAD 소프트웨어

한글 AutoCAD LT 97 : AutoCAD R14와 100% 호환되는 2차원 Drafting 전문가용 CAD

건축/엔지니어링/건설(AEC)

Architectural Desktop : AutoCAD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에 건축 설계 기능이 강화, 통합된 새로운 설계 도구

Autodesk CAD Overlay R14 : 객체지향적 Object ARX 기술로 건축, 토목, 기계, GIS의 모든 도면을 손쉽게 Raster 및 Vector entity 혼합 사용할 수 있는 도면 편집 소프트웨어

3D Studio VIZ R2.0 : 3D Studio MAX R2.5의 핵심 기술 위에 구축된 건축/건설/엔지니어링/측량/토목 엔지니어링을 위한 2D/3D 모델링 및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용 소프트웨어

기계/기구 설계 (MCAD)

한글 Mechanical Desktop R3.0 : 향상된 3D 솔리드 모델링, 곡면 모델링, 조립품 모델링 및 자동화된 제도를 제공하는 최신 2D/3D 기계 설계 솔루션

Genius Desktop : Mechanical Desktop 상에 운용되는 3차원 기계 전문 설계 제품

Genius 14 : 다양하고 풍부한 표준 부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AutoCAD R14 기반의 기계 전문 제품

Genius LT : AutoCAD LT 상에 운용되는 기계 전문 제품

GIS/맵핑

한글 Autodesk Map R3.0 : AutoCAD 환경에서 정밀 맵핑과 GIS용 데이터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맵핑 솔루션

Autodesk Mapguide R3.0 : 각종 GIS 데이터를 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백터맵 기반의 맵핑 응용프로그램

Autodesk World R2.0 : 모든 지형 데이터를 검색, 통합, 관리할 수 있는 GIS 솔루션

멀티미디어

3D Studio MAX R2.5 : NT 상에 운용되는 워크스테이션 수준의 3차원 애니메이션 및 모델링 제품

Character Studio R2.0 : 3D Studio MAX R2 상에 운용되는 전문가용 대형 캐릭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정보도 얻고, 경품도 타고...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 오픈 기념 행사 (1998년 12월 7일부터 1999년 1월 10일) 기간 동안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 홈페이지 고객 등록을 하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레이저 프린터, 오토데스크 로고가 있는 경품, 캐드 매거진 1년 구독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www.autodesk.co.kr)를 참조하세요.

Autodesk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78 삼성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6

DESIGN YOUR
WORLD

건축, 토목에서 기계설계, GIS까지 이제, 다 통한다!

중이도면의 수정에서 CAD 도면과의 병합까지
모든 솔루션의 도면편집이 하나로 해결됩니다!

AutoCAD Land Development
Desktop(토목)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건축)

Mechanical Desktop 3.0(기계설계)

AutoCAD Map 3.0(GIS)

AutoCAD R14

Autodesk® CAD Overlay® R14

Autodesk CAD Overlay는 건축, 토목, 기계, GIS 등 도면을 이용하는 어떤 솔루션에서도
래스터 이미지의 수정, 편집 및 관리에서 새로운 CAD 도면과의 병합까지 객체지향적
Object ARX 기술로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제 AutoCAD R14뿐만 아니라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AutoCAD Land Development Desktop, AutoCAD Map 3.0,
Mechanical Desktop 3.0의 환경에서도 기존의 도면을 손쉽게 Raster 및 Vector entity
로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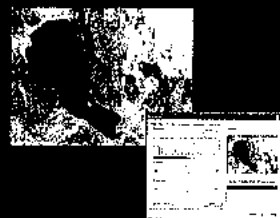
● Autodesk CAD Overlay R14 제품 구성

1. CAD Overlay R14 : AutoCAD 그래픽 환경에서 이진(Binary), 그레이스케일 및 색상(24bit color)
래스터 이미지를 삽입, 브러싱, 편집, 수정 및 관리 수행

2. CAD Overlay LFX : 스캔된 이진 이미지의 래스터 선을 추적, 벡터로 변환하는 반자동 벡터라이징 수행

▶ 주요특징 및 달라진 기능 - AutoCAD R14의 래스터 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확장

- 도면 전환, 도면 갱신 및 참조 이미지 삽입이 자유로움
- 객체지향적인 Object ARX 기술로 보다 빠른 속도
- 상호보완적인 래스터 스캔 및 VTools 이용
- 항공사진, 위성이미지, 인저니어들 도면, 기계, 지형 및 건물 계획도 등
GeoTiff, GeoSpot, World Files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산업표준
이미지화일 포맷 지원



www.autodesk.co.kr/product/aec

세종계 달린 오토데스크 AEC용라이젠을 클릭하시면 CAD Overlay R14를 비롯, 다양한 솔루션 정보의 만나실 수 있습니다.

■ AEC / GIS 전문지원 : (주)강캐드 584-6480, (주)리온테크시스템 569-1874, 한도CW(주) 515-3167, 거림시스템(주) 580-7800, 유대CW(S) 529-9333 ■ 기계 전문지원 : (주)트윈정보시스템 3775-0081, LG소프트 3459-5533, 카도텍 558-5114



고유물 에너지 가짜지
인증(회)인업가원부

주 해강원스타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 (02)548-4041(대) · FAX : (02)543-3647

■본사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 (0417)557-9687 · FAX : (0417)557-9689

■부산 : (051)501-9006

■강남 : (02)3442-0657

■강북 : (02)264-5400

■대구 : (053)551-1770

■송파 : (02)402-8249

■인천 : (032)431-6732

■의정부 : (0351)877-3808

■안성 : (0333)656-7504

■천안 : (0417)575-8196

■대전 : (042)633-5591

■대전 : (042)485-2071

■강동 : (02)474-1661

■라인 : (02)552-3530

■마산 : (0551)232-2633

■제주 : (064)748-4811

■성북 : (02)914-3666

■울산 : (052)248-0900

■안양 : (0343)471-7084

「 」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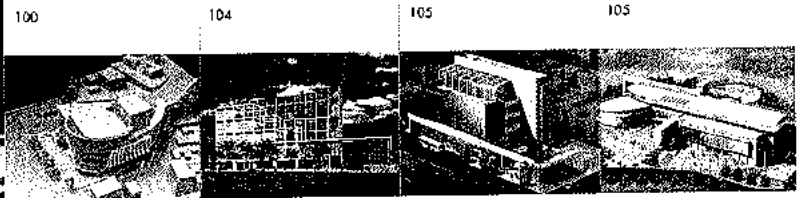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 (1할회 합임가능), 설계기초, 설계소요 (200자 원고지 3~4매), 기초 도면 (배치, 단면, 평면))
계획작품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감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요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정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주 소개할 만한 신제품, 기타 건축계 주변에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가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항 1~2매(보달 제한 없음))

원고접수: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집팀
 (유권번호 137-070)]
 문 의 : [건축사지 편집팀]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6823

차례 1998 12 356호



시안(부대진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천리안 ID: kirahead)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k-Sang, Dong Jung-Geun, Shin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정기용	10
이임단상	세기말 파고를 넘고 우리 다함께 건축사 만세를 부르자	김영수	12
작품리뷰 / 시안		부대진	14
	대답: 무대와 객석 공간의 반전	동정근	24
	비평: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장 - 욕기사 XIAN	민선주	29
회원작품	연동교회 강화수양관	임재용	34
	강남대학교 50주년 기념관	김규태	36
	LG평택연구단지 생산기술연구원, 식당동	이충언+김광섭	38
	태종대 전망대	이충언+김광섭	40
	독수리빌딩	이인호	42
	동호인 주택 라움	서용식	44
	영등포 제일빌딩	최동규	46
	귀여리 303	김희곤	48
	강원도립대학 학생회관	이각표+한광호	50
	당감동 새마을금고	최영석	52
작품노트	남강빌딩	김효만	54
건축기행	여행일지	양상현	60
기고	거울에 비친 나의 초상	김희곤	67
	건축사가 제안하는 도시개선 방향	류재경	69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박순중	74
	IMF시대의 건축인	진희선	76
	미래형 주택 인테리어	박태형	79
리포트	제8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참관기(1)		83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3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07
	전시리뷰(건축가 미술전)		113
	회원현황		11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0
	98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122

Column		
Letter to Mr. President	Chung Gu-Yon	10
Retirement Address		
Overcoming the Waves of Fin-de-siecle	Kim Young-Soo	12
Review / XIAN		
Interview	Bou Dae-Jin	14
Reversal of Position Between the Stage and Seats	Dong Jung-Geun	24
Critique	Min Sun-Ju	29
Ground for the Desire to be Seen Black Knight XIAN		
Works		
Retreat Center, Yeondong Church	Lim Jae-Yong	34
50th Anniversary Memorial of Kangnam Univ.	Kim Kyu-Tae	36
LG Pyungtaek Research Complex	Lee Chung-Eon & Kim Kwang-Sub	38
Observation Tower of Taejongdae	Lee Chung-Eon & Kim Kwang-Sub	40
Eagle Building	Lee In-Ho	42
Raum	Seo Yong-Sik	44
Jeil Building	Choi Dong-Kyu	46
Gyeongju 303	Kim Hee-Kon	48
The Student Hall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ege	Lee Gak-Pyo & Han Kwang-Ho	50
Danggam 4dong New Community Fund	Choi Young-Suk	52
Design Note		
Namkang Building	Kim Hyo-Man	54
Architecture Travel		
My Travel Notes	Yang Sang-Hyun	60
Feature		
My Own Portrait Reflected on the Mirror	Kim Hee-Kon	67
A City Suggested by an Architect	Ryu Jae-Kyung	69
Do not be Content with Today's Situation	Park Soon-Jong	74
Architects in the Age of IMF-Aid	Jin Hee-Sun	76
House of the Future: Changes in Home Theater and Interiors	Arthur T. Park	79
Report		
Report on the ACA-8		83
Architects' Plaza		
KIRA News		91
Archi-net		93
Competition		100
Overseas Journal		107
Exhibition		113
Member		119
Statistic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심의회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02)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02)333-3425 · 강서구건축사회/(02)414-7168 · 관악구건축사회/(02)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02)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2)864-5823 · 노원구건축사회/(02)333-8076 · 송파구건축사회/(02)333-5213 · 동작구건축사회/(02)115-3026 · 마포구건축사회/(02)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02)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02)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02)2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02)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02)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17-3607 · 은평구건축사회/(02)388-488 · 종로구건축사회/(02)737-3030 · 중구건축사회/(02)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02)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02)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02)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02)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8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5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3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7)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6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8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3)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843-388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9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2)6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87
 곡포지역건축사회/(065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9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5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8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6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6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68)5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5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2)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3)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9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5)88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Mr. President

정기용 / 기용건축

by Chung Gu-Yon

안녕하십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 선두에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잠깐 '경제' 문제를 접어두시고 한 건축인의 몇 가지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대구에서 올라오신 한의사이신 친척할아버지께서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야 한다면 선물로 드릴 칠첩반상기를 저에게 돌려 주셨고 저는 그것을 들고 할아버지를 따라 전차로 효자동역에서 내려 경무대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은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 오셨고 저는 팔이 떨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할아버지의 침을 맞았고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필시 저극히 사적인 일로 경무대를 찾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아마도 민원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 았나 봅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사적인 일이 아닌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서 시사성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된 데는 취임하신 후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 인지도 모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동시에, 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인 발상에 연유하는 큰 집짓기(록펠터기념관, 국립 중앙박물관 등) 또는 허물기(조선 총독부)를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명령에 따라 논바닥에서 아파트가 자라게 하고 산성성으로 고층 아파트가 빼죽거리며 빠져 나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 그런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의 난제로 등장한 경제문제를 푸는 데에 여념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연유로 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느 분야나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은 건축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인들의 실업문제와 그 대안

올해 많은 설계사무실들은 재벌기업들이 질질 끌고 있는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것은 어제까지 밤을 세워 가며 일하던 동료들을 해고시킨 것을 의미하며 남은 직원들의 봉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제난국에 가장 먼저 찬서 리를 맞은 것은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건설업과 설계영역 분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직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건축과 출신 대학생들입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 2월이면 또다시 5,000여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 4학년생들은 사학년(死學年)이라고들 조소적인 표현마저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부를 더 하려고도 합니다만 부모님들의 눈치를 볼 더 이상의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들의 실업문제는 비단 건축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과 학생들의 경우는 길이 있는 듯 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직당한 건축전문인력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관련 행정직의 공익봉사 요원으로 채용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준비교육을 시키고 목표 설정을 적절히 하는 것에 따라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당장 그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 다.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제도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알아서 아니라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불감증입니 다. 그들은 건축·도시관련 민원을 보조하면서 내부에서는 제도적 현실의 문제와 모순들을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는 이 사회가 봉착한 도시·건축환경의 실재를 어깨 넘어서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시 이외의 지역 군 단위, 또는 면 단위까지라도 그들이 투입된다면 도시 위주의 건축서비스가 얼마나 전 국토 - 특히 농촌지역의 건축환경을 저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지금은 행정개편에 따라 1,230개의 '면사무소'들이 '면민의 집' 또는 지역의 복지·문화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들이 전국 단위의 면사무소나, 군, 시의 복지·문화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일에 투입된다면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로 쓰임새 있는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실시 이후 과육에 차 있습니다. 건축이나 개발 프로젝트야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드는 일입니다. 소규모 군, 면 단위로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효율적인 참여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땅의 건축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선배들과 같이 자본의 논리로만 고착화되는 건물의 형식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유(私有)나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유(公有)나 공적인 건축의 의미에 대해 현실 속에서 눈뜨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경기 준비로 날밤을 새는 젊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을 것입니다. 한 개의 공공건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한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아가서 심사까지도 한 번 참여한다면 그 절절하고 잔혹한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자재나 금융의 손실은 숫자로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큰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타는 정열은 측정되지 않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고 문화의 나라로 제2의 건국을 꿈꾸는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젊은이들의 정열을 올바르게 가꾸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동안 '구조조정', '고통분담', '규제철폐'라는 말과 '비리와 부패척결'이라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정하고 분담하고 철폐하면 모든 것이 쉽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며칠전 우리는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철폐'의 항목에 들어있는 것으로 바로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또는 생명벨트의 해제

경제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역대 정권이 이룩해낸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린벨트를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세월을 지나며 터득한 지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시간에 대한 투자이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빨리빨리의 감성의 나라에서 느긋하게 지켜온 유일한 것으로 수평으로 확산하는 도시를 다시 한 번 추스리게 하는 생명의 장치입니다. 지구는 35억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 생태계를 이룩해냈고 그중 아주 극미한 부분이 도시주변의 푸르름입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풀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주체는 공청화나 국회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숲은 자연의 집입니다. 자연이나 숲은 절치를 명문화할 관인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도장은 자연을 해친 것만큼의 보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구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고 절대로 예외조항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시간으로 지킨 땅은 시간에 맡겨주십시오. 그린벨트는 풀었다 조였다하는 벨트가 아니라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터부로 정해놓아야 할 신성한 장치입니다. 땅이 모자라다고 하나 효율이 떨어져 있는 땅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재조정하고 리노베이션 할 공간은 도시에 넘쳐납니다. 이제 건설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바라보아야 할 문화의 행위입니다. 이점 잘 감안하셔서 자연을 정치나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발전과 심의·심사제도

철폐하거나 재조종해야 될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건축문화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퇴보시키는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심의, 심사제도들입니다. 이 짧은 글에서 그 문제점들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취지나 목적에 비하여 모든 것이 너무나 형식에 빠져있거나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런 장치들이 때로는 비리나 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것은 주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숨가쁜 건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건축을 문화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즉 입에 담기도 싫은 저 IMF시대 - 저는 이 말을 비상식적인 시대로 고쳐 부르고 싶습니다만 - 바로 이 시대의 의미란 원초적인 것, 상식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을 논하는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원은 예산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지원은 잘못된 고리나 비원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의 고리나 그물망을 끊는데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서없는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철폐반상기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터이니깐요. 다만 이 시대의 올바른 맥을 짚어 고통받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연에게 그의 권한을 되돌려주며, 건축가들이 온갖 제도에 머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업에만 전념할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고도 이 땅의 건축문화와 환경에 크게 이바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기말 파고를 넘고 우리 다함께 건축사 만세를 부르자

Overcoming the Waves of Fin-de-siecle

22대 회장퇴임에 부쳐

김영수 / (주)위칸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oo

역사는 세기말을 끔찍하게 놓아 두지 않는다. 더욱이 천년을 마감하는 새 밀레니엄의 시작의 격랑의 파고는 높고 시련의 강도는 국도에 이른 것 같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인데도 마감과 시작은 역시 인간의 한계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구를 심판이라도 하듯 자연재앙은 불가항력이고, 세상을 요절이라도 낼듯 환경위기는 시계 제로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역전쟁과 경제불황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이러한 사태와 상황은 보다 심각하고 더욱 경고적이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집중호우라는 수마는 전국을 유린했고,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기업부도와 개인파산이 이 추운 겨울을 더욱 끔찍하게 얼어붙게 만들 것은 불문가지기 때문이다. 앞친데 뒷친다고 설계사무소는 개점휴업이고 오히려 폐업이 살길이라는 기형적인 현상까지 속출하는 형국이다. 이 이상 더는 아니라는 바닥론이 정부와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서서히 제기되는 이유도 지금의 실상이 얼마나 혹독한 하강점진자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

인재와 천재가 가져다 준 엄청난 역사의 비극은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지 결코 외면해야 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기에 인내와 타개 더불어 갈길과 살길을 두루 찾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찰나에 우리 모두는 불착했다. 가기 위해서는 일어서야만 하고 살기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은 어느 지성인이나 어느 전문인보다 국민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세기말을 훌륭히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찬 새 천년의 전환점으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뚝서고 또 그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남을 위하지 않고서는 내가 존경받을 수 없으며, 나라를 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천직도 그 빛을 제대로 발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논리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하고, 앞으로 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축전문인의 소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고,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의 책무를 아낌없이 충족시켜야만 한다. 개발시대의 가치관은 IMF속에서 정제되어 OECD의 선진제국과 발맞추는 새로운 시대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건축 또한 면허나 허가라는 낡은 틀속에서 탈피하여 창작과 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시대로 발빠르게 탈바꿈해야만 한다. 격변하고 있는 세기말의 시대사조에 동승하면 살아 남고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지랑스런 우리 건축사 모두의 대명사임에 틀림없다. 영육의 세월에도 굳건히 우리의 천직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협회의 기치아래 모인 우리의 조직적 대응성과 때문이다. 65년 이래 33년 동안 건축사법과 함께 설계

김리를 전문업으로 키워온 영광의 산실인 것이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집요하게 업역을 넓보던 재벌건설업체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추진회의에서의 승전보 등 실로 우리 협회의 비상대책은 자량이 아니라 괄목할 무용담 같은 것이다. 10여개 전문직 타단체들과 공동대처한 부가가치세 전격유보도 금년초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론되고 재연되는 정치현실과 정책오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전문직 단체는 집단이기로 사시되고 시민단체들은 여론주도로 오인되는 유구무언의 희극상이 빚어낸 결과다. 문제제되고 있는 단체의 임의가입과 복수화 그리고 보수요율의 폐지 등도 관계당국과는 반드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남는다면 이는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대화와 설득 그리고 화합과 단결로 풀어야 한다.

협회의 주인은 당연히 회원들이고 무성의 서비스책임은 집행부의 소임이다. 책임의 양분이나 결과의 잘잘못 또한 어려서는 자의 논리일 뿐 합심협력과 일치단결만이 현명한 자의 대응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행동요령 또한弱い 아닌 强, 이 强보다는 오히려 이 剛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는 조화를 찾아야 하고, 백성의 생활과 나라의 문화에 상반될 때는 전문인의 사명감으로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가지는 건축사법의 인민재판식 개정방지와 아 법 속에서의 협회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합의한 건축사의 대표자 문제와 사무소등록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협회위임이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과 하나되어 꼭 달성해야만 할 또 다른 목표가 있다. 회비의존형 협회유지가 아니라 수익사업형 운영조직을 조기에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그 기반을 조성해 왔고 만반의 조직체계도 정비했다. 다음 아년 건축연구소와 건축교육원, 건축정보센터의 설립으로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협회부설기관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대국민 대정부 신뢰의 요체인 연구소의 연구실적과 발간사업은 일거양득의 미래지향적 거보임에 틀림없다. 전문지식과 평생교육으로 대내외의 신임을 배가시킬 교육원의 향후 활약상은 아무리 그 설립취지를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건축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당장의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차세대 차세기의 핵심적 협회사업이 아닐 수 없다. 오늘도 16개 시도건축사회와 연결된 전산망은 풀가동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천리안 CUG 등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업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료실 정비와 데이터베이스 등 지금도 쉬지않고 격무에 여념이 없다.

연구소와 교육원이 건축물의 하부구조라면 정보센터는 상부구조와도 같은 것이다.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건축사의 정성처럼 협회는 회원을 위하고 회원은 협회를 향한 일념으로 이 세 기구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협회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받아 더욱 살찌고, 회원은 그만큼 보다 많은 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바로 협회와 회원이 함께 이겨낸 대장정의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99년은 건축사만이 아닌 건축계 전체가 심혈을 모아야 할 "건축문화의 해" 이다.

건축3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 수행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내일은 물론 건축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나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 25일에는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으며, 산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실무프로그램이 착착 진행중에 있다. 우리 협회도 ARCASIA Forum을 비롯한 많은 연례행사를 알차게 준비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들에게는 삶의 근본이 되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건축의 실용성을 폭넓게 홍보하고, 정부당국자에게는 문화의 기본이 되고 역사의 유산이 되는 건축의 진면목을 확고히 인식시키는 절대적인 호기가 될 것이다. 이를 기본바탕으로 지금까지 건축계의 숙원이던 통합추진기구의 적극적 활동이 가속화될 것도 확신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엄연한 사실은 건축교육에서부터 실제 건축실무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제도 및 이해와 관행에 한없는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UIA, WTO, OECD와 연관되는 국제관행과 상호자격인증 문제는 우리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뜻깊은 건축문화의 해를 맞으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모든 건축인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관계정립을 통해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붉은 녹듯 하나같이 모두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세기보다는 다음 세기를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숙명적 과업들이다. 아무쪼록 건강과 행운이 늘 찾아주고 모든 소원들이 하나같이 이루어져 건축사 만세를 다함께 외쳐볼 그날을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다.

작품		시안		부대진			
대담		무대와 객석공간의 반전		동정근			
비평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장		민선주			
9611	작품	신도리코 아산공장본관	/민현식	9712	작품	분당전람회 단독주택	/박연심
	대담	결과로서의 건축테마	/고성룡		대담	깊은 선과 세련스름 가진 집	/류연희
	비평	벽과 마당의 건축, 그 또다른 시도	/전봉희		비평	박연심건축이 가장자리에서 머무르는 이유	/전진삼
9612	작품	SBS탄현제작센터	/김석철	9801	작품	동그라미 유차원	/이종상
	대담	근원적 급진론과 건축가	/성인수		대담	육체적 시선의 임상건축학	/조권섭
	비평	좋은 건물과 양식적 일치의 문제	/임석재		비평	살아있는 건물의 따뜻함	/한민원
9701	작품	용문청소년수련원	/김영섭	9802	작품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정시춘
	대담	호기심과 온유의 마을	/송인호		대담	도심속 열린교회: 상징성과 역사성의 공존	/유원재
	비평	건축과 공간기하학	/최 욱		비평	편안한 도심의 종교 문화공간	/강상경
9702	작품	대구말리앙스메식당	/여성관	9803	작품	진도향토문화회관	/류연창
	대담	여동숙의 빛, 건축의 새로운 자평	/임창복		대담	매스의 분할과 공간간의 상호관입	/신남수
	비평	원통과 상자, 건축의 기하학	/양상현		비평	전통적 지역속의 친근한 문화마당	/오세규
9703	작품	능안선원종합사회복지관	/황일인	9804	작품	씨네플러스	/김낙중
	대담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의 문맥으로	/정만영		대담	도시속의 표정있는 건물	/박향섭
	비평	철종의 미학:우리에게 내재된 단편성	/민선주		비평	극장같이 않은 극장	/이재훈
9704	작품	영남대 제2사회관	/서보광	9805	작품	일산장학822	/송광섭
	대담	지역성 + 빛과 그림자	/최무혁		대담	이 시대, 주거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	/손기찬
	비평	반세대의 미학:무관택, 무변형, 무기교	/김억중		비평	시각적 필터로서의 주택	/김문덕
9705	작품	원실업 천안공장	/최승원	9806	작품	갈매 피정의 집	/강석원
	대담	작관적 감성과 테크놀러지의 모순적범적 수사	/우경국		대담	거학적적 불물의 원형성과 전통성의 현대적 수용	/김형우
	비평	비상을 꿈꾸는 "이카루스"	/정진국		비평	내성적 건축	/신재덕
9706	작품	성도교회	/최동규	9807	작품	동아방송대학	/변 용
	대담	일상성을 통한 소통의 메시지	/김병운		대담	동시적 접근, 그 토시적 제인	/임석재
	비평	기능미학과 형식미학	/백문기		비평	지역성과 보편성의 교점찾기	/이주연
9707	작품	전주리베라호텔	/김병현	9808	작품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우시웅
	대담	건축의 합리성과 텍토닉성	/정기용		대담	건축적 경험이 내재된 즐거움	/최윤경
	비평	전통적 도시속의 도시집합체	/강봉열		비평	우시웅의 건축과 한국근대주의	/김성홍
9708	작품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	/유원재	9809	작품	동안교회	/최영집
	대담	길과 집의 만남	/민현식		대담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문화의 위한 새로운 장	/장림중
	비평	보는 건축과 보이는 건축	/김현철		비평	건축가의 꿈과 현실	/정안하
9709	작품	하남시청사	/임장철	9810	작품	P교수 주택	/류춘수
	대담	관청건물과 건축의 다양성	/김정신		대담	보편성과 향성의 건축	/심영섭
	비평	건축가의 합리적 개별해	/이공희		비평	욕심없는 건축, 편안한 집	/조용훈
9710	작품	행동어린이집	/김민철	9811	작품	서리별 교회	/손영문
	대담	탈각의 움직임	/이일훈		대담	알전에 뜬배: 역사도시와 노아의 방주	/성인수
	비평	공간의 엔트로피가 높은 집	/강 혁		비평	전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김봉열
9711	작품	일건 C&C 사옥	/최관영	9812	작품	시안	/부대진
	대담	건축적 엄밀함과 명료성	/정인하		대담	무대와 객석공간의 반전	/동정근
	비평	파질	/박길룡		비평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장	/민선주

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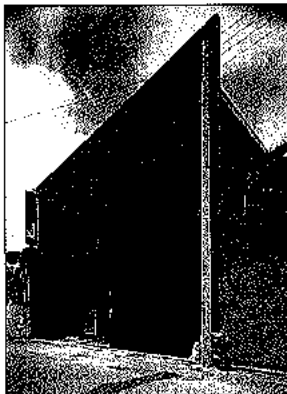
Xian

작품리뷰 review

부대진 / 진아 건축 · 도시
Designed by Bou Dae-Jin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15.60㎡
건축면적	240.54㎡
연면적	514.43㎡
건폐율	57.88%
용적률	104.91%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 1.8 ST'L 타공판/정전분체도장, ㉡ 50 샌드위치 패널
설계담당	홍승훈, 장기태, 부상훈, 박준구
인테리어	박은지
전기설계	한양전설
설비설계	삼영설비
구조설계	하나구조
시공자	토단건설 박세영



건축을 읽는다고 한다. 이는 건축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작가는 배제되어 있는 개념이다.

건축가는 두가지 경우에 글을 쓴다. 첫번째는 자신의 건축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책을 쓰든가 논문을 쓴다. 두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한 작업에 대한 비평을 쓰는 경우다. 건축을 읽는 경우다. 교육적인 취지가 아닌 이상 자기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쓰는 경우는 결국 건축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시를 읽으면 쓰여진 글씨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 시인은 자신의 시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생각은 각자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에 비해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편의에 따라 작품과 분리될 수 있는 간편한 양식일 수도 있다. 개개인이 느끼는 작품에 대한 비평은 작가의 의도나 인생관을 뛰어 넘어 그 작품의 힘을 더 할 수 있는 큰 기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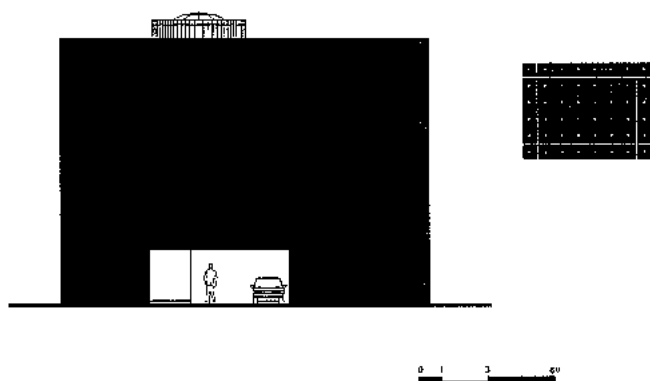
시안을 설계하는 데에 특별한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침묵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다만 작품이 말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면과 사진들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직접 경험하는 것 다음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 도면을 읽을 때 시안이 증개축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면의 변화에 유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주위가 주거지역임을 밝힌다.

시안을 포함한 본인의 작업은 한 번의 영감이나 하나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다른 대안들과 수차례의 작업발전을 거쳐 이뤄진다. 특히 건축학도들이 이점에 유의하여 단순화된 해석을 피했으면 한다. 건축은 몇마디의 논리 이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극히 제한된 건축비용으로 완성된 만큼, 화려한 공간을 비싼 재료로 표현해 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넘었으면 한다. 덧붙이면 경제 논리로 건축을 단순화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경험할 공간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시안이 건축적으로 그 힘을 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문화의 수준을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면도

When we speak of 'reading' architecture, we are focusing on the viewer's interpretation of the built object. It is a point of view that excludes the idea of 'creator.' An architect 'writes' in two instances: one is when he explains his architectural theory, which is performed through a descriptive and logical way; second case is when he writes about another architect's work, a criticism. This is when he 'reads' architecture. The former case, where one has to write and explain about one's own work, is, save for educational purposes, basically admitting the failure of your effort as a piece of architecture, since it was unsuccessful as its own form of language. When we read a poem, it is not the typography of the letters we look into, but the thoughts on life that lie between the lines. A poet is never asked to explain his poems. Nevertheless, they touch the hearts of millions. Thoughts may vary according to each person's experiences. The intentions of the creator may relatively be a casual style that can always be separated from the work of art. The personal comprehensions of the viewers transcend the artist's thoughts and point of views, and adds to the artistic potency of the work. As no set of theories was applied in the design of Xian, the range of what can be said through words is very limited. Reticence here does not imply a wily motive to create a sense of the mythic, trying to present more than what it actually is. It is based on the simple belief that a work of architecture is authentically apprehended through, except for the direct experience of actual visit, the drawings and photographs, not words. In reading the drawings,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Xian is a renovation project that i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and focus on the shifts on sections. My works, including this one, were not products of sudden inspirations or singular ideas. They are created through going over various alternatives and long process of development. Students of architecture should acknowledge this reality and refrain from reductive analyses. Architecture is more than a few logics. A rich space is not constructed from expensive materials. Economic factors should not be dominant in the evaluation of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value of Xian is only heighten with the experience of its users and the various opinions it may generate. They will enrich the cultural atmosphere and provide visions for our future, which, in turn, will build a firm basis for better works.

Location 93-10, Chungdam-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Classification Residential District

Site Area 415.60㎡

Building Area 240.54 ㎡

Total Floor Area 514.43㎡

Building Coverage Ratio 57.88%

Gross Floor Ratio 104.91%

Stories 2 Stories, 1 Basement Floor

Project Architects Hong Sung-hoon, Chang Gy-tae, Bu Sang-hoon, Park Jun-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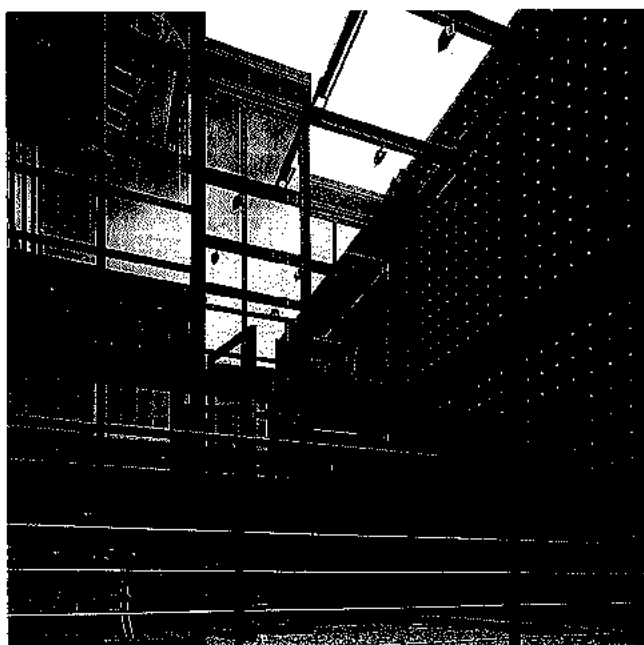
Interior Design Park Eun-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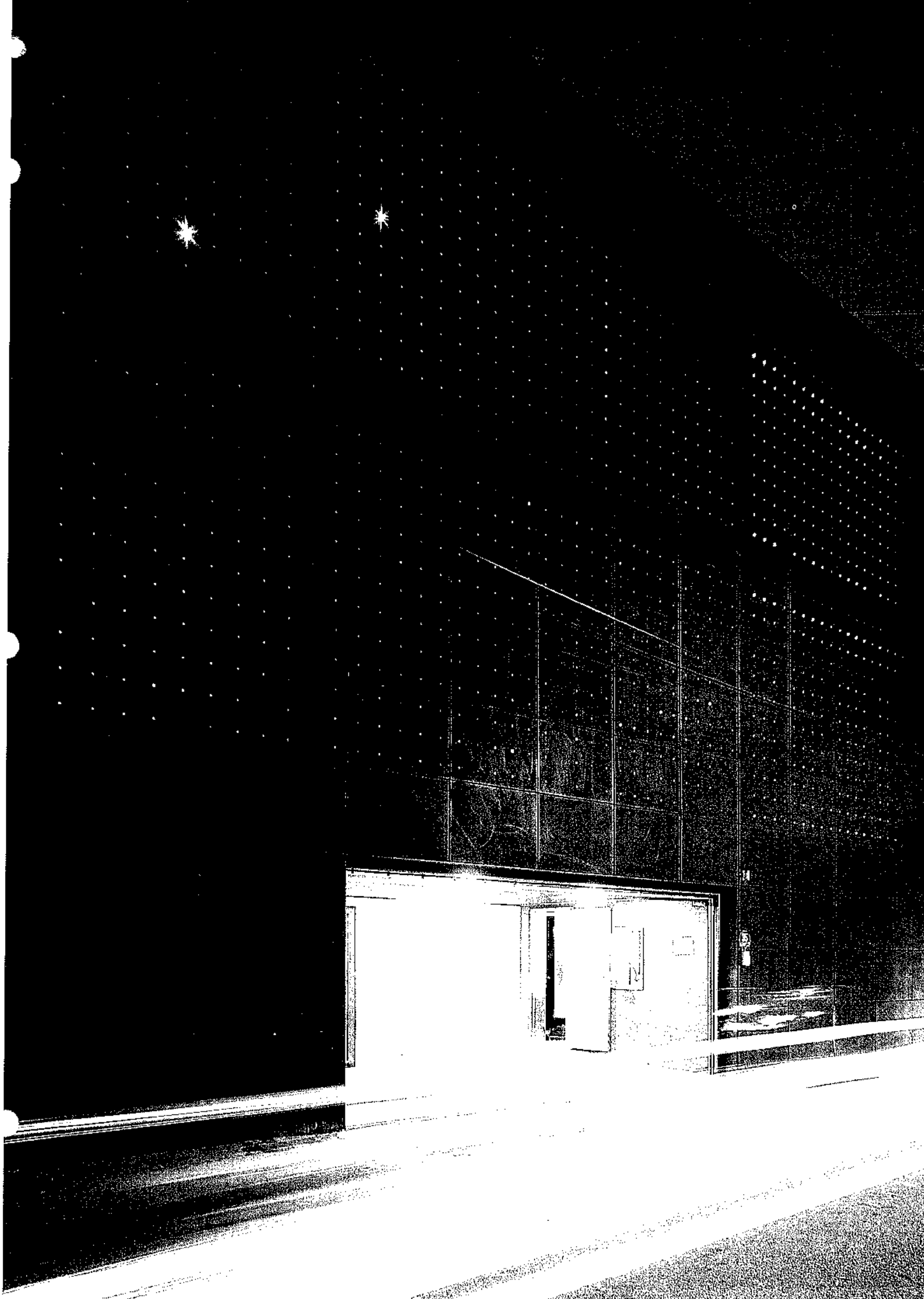
Electrical Installation Hanyang Electro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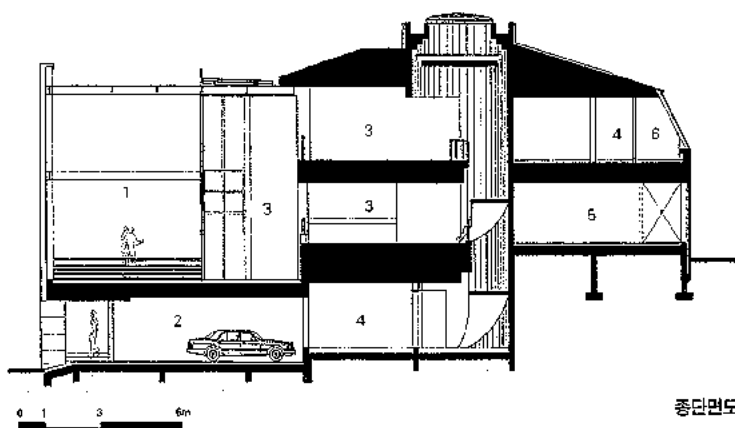
Mechanical Installation Samyung Installations

Structural Design Hana Engineerings

Construction Park Sae-young, Todan Enginee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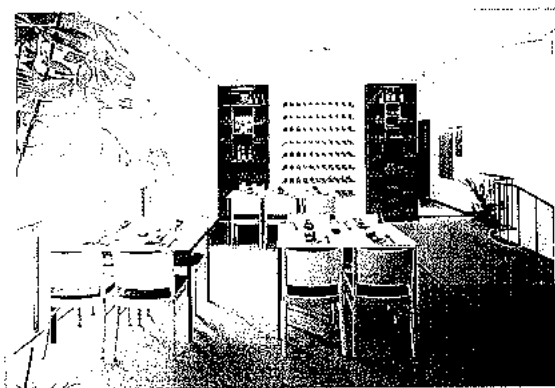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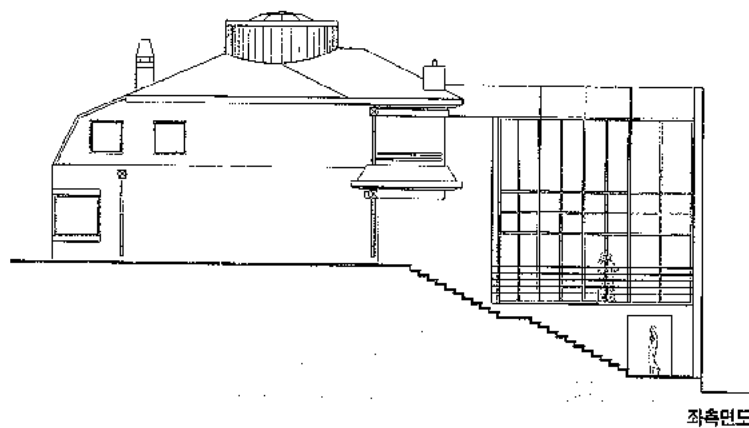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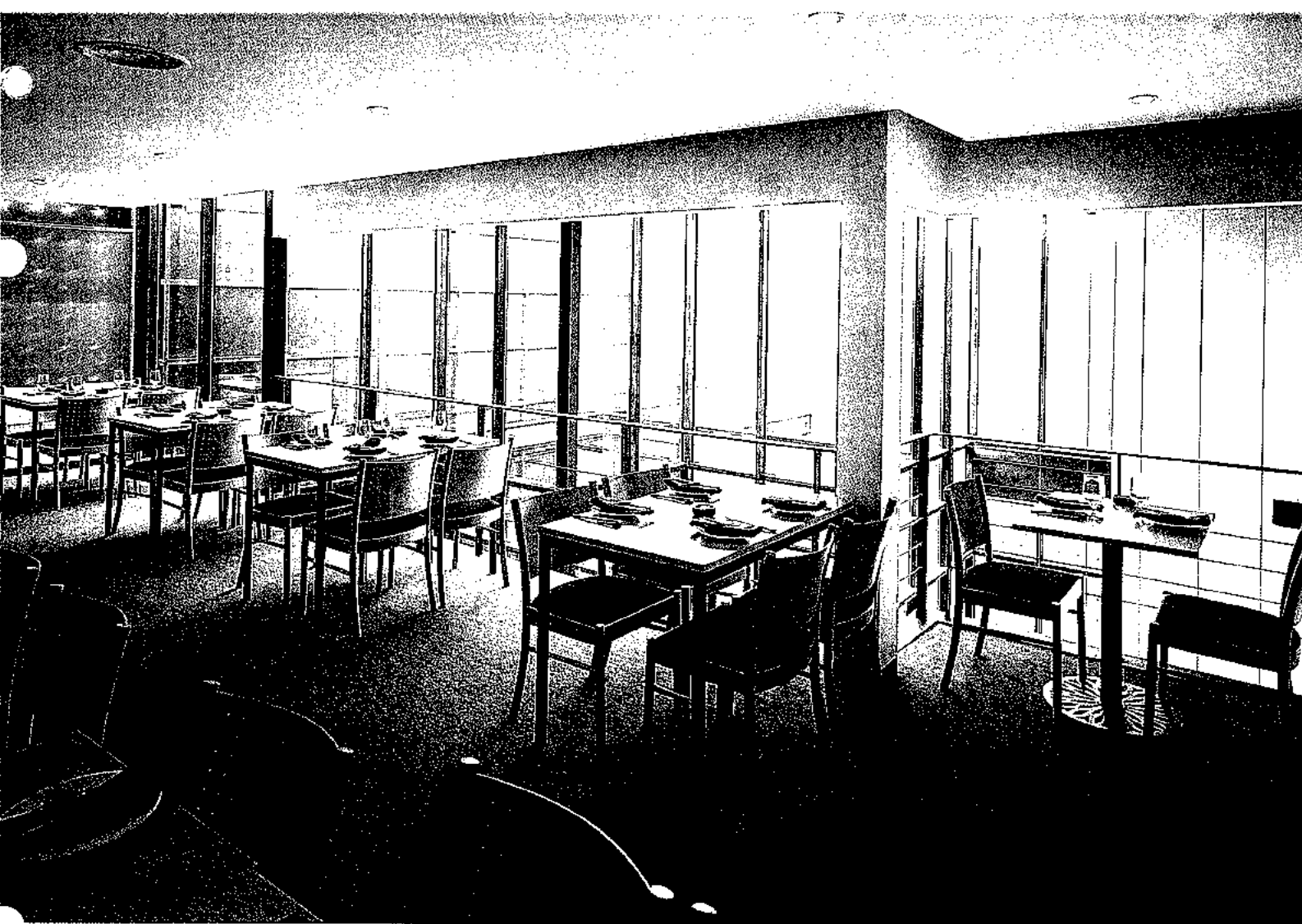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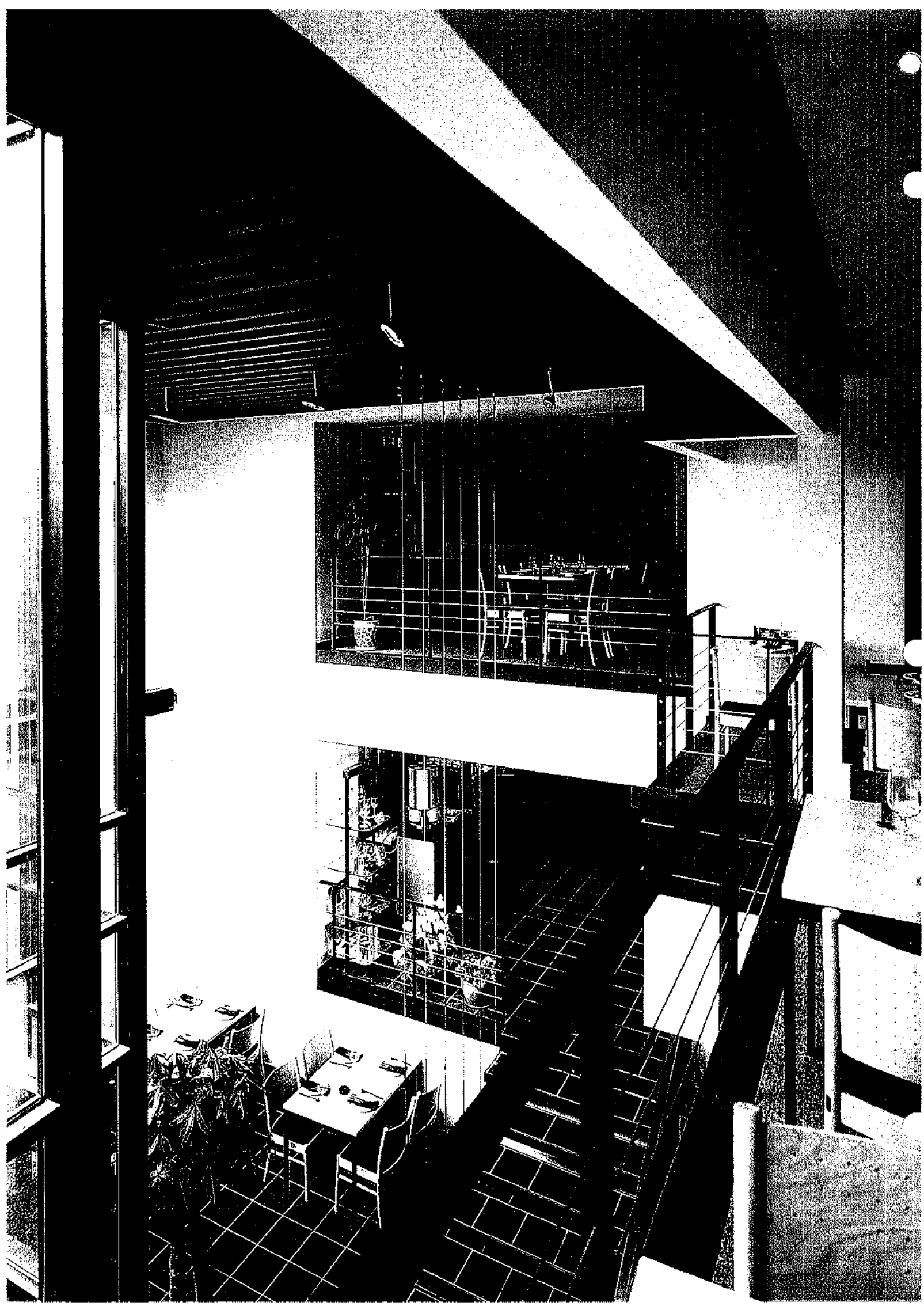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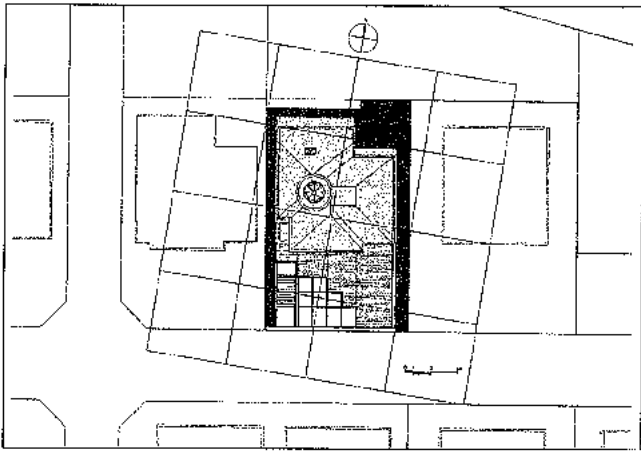
- 1. 미팅
- 2. 주차장
- 3. 식당
- 4. 화장실
- 5. 주방
- 6. 침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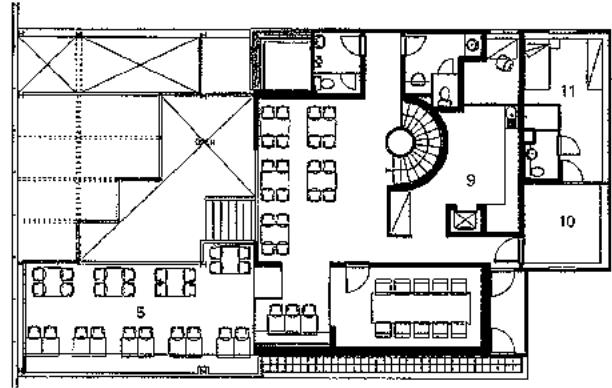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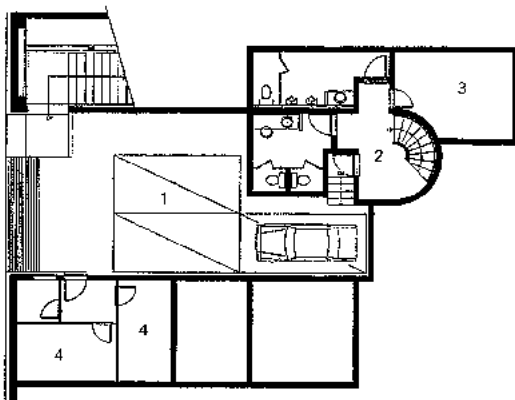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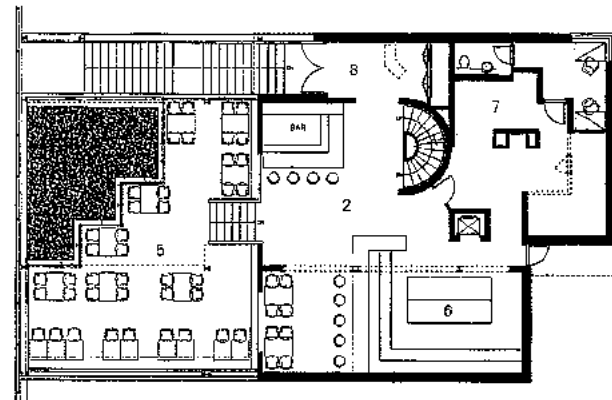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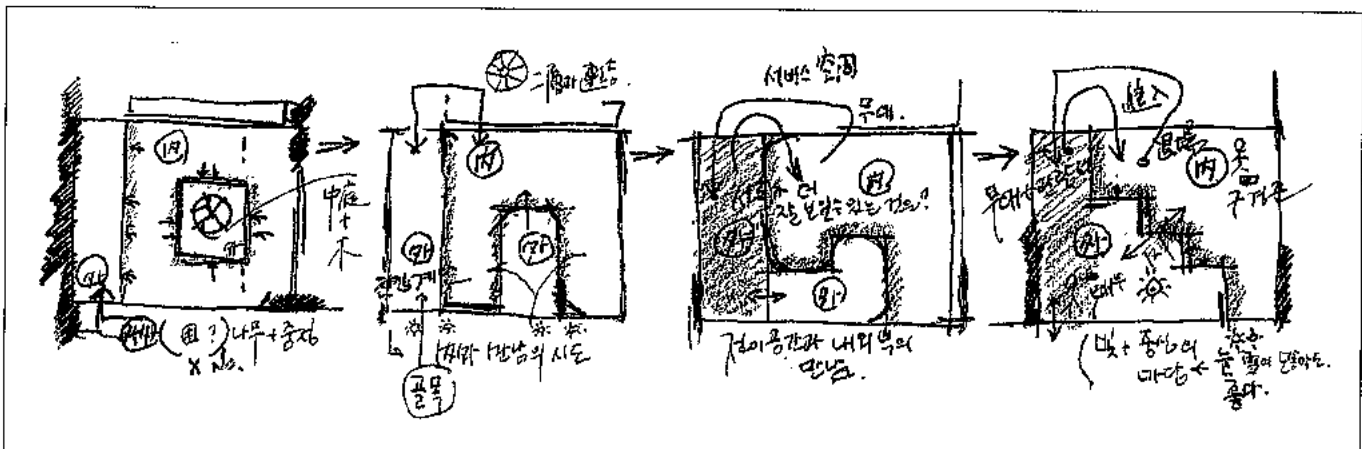
0 1 3 6m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주차장
2. 홀
3. 보일러실
4. 직원파카룸
5. 식당
6. 주방
7. 새희장
8. 현관
9. 서비스에리어
10. 사장실
11. 침실



개념 스케치

무대와 객석 공간의 반전

Reversal of Position Between the Stage and Seats

건축사 / 부대진(진아건축 · 도시 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동정근(인하대학교 교수)

Dong Jung-Geun vs. Bou Dae-Jin

일시 / 98. 11. 23(월) 17:00

장소 / (주)진아건축 소장실



대담장경(왼쪽: 동정근, 오른쪽: 부대진)

동정근 _____ 작지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에서 공간으로 많은 말을하고 계신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간 대형작품을 주로 하셨는데 작은 이 작품을 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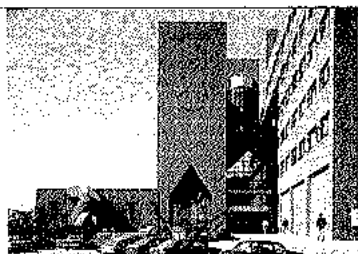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고도 재미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복잡한 부분으로는 주택의 건축적 프라이버시를 단지 증축만을 통해 퍼블릭 스페이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과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주변의 주택가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매우 낮은 예산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표현해야 하는 점이었지만 이 모든 여건들을 모순처럼 안고 있는 사이트를 풀어나가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이 선보이는 프랜차이즈 치아니즈 레스토랑의 성공여부까지도 책임질만한 건축을 시도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설계를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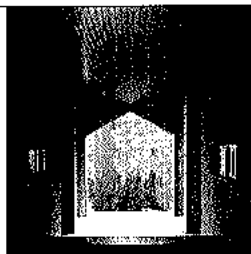
동정근 _____ 이 작품이 위치한 지역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진 _____ 물론 상업지역과 주택가간의 연결은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현명하게 풀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청담동 압구정동 지역은 기존의 주택 단지 내에 작은 규모의 상업 공간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이 지역의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상업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성을 반경 2km 정도의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현재의 이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의 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자본과 정보의 흐름에 의하여 각국의 특별한 지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물리적인 지역에 상위되는 지역성이 세계 곳곳에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소호지역, 동경의 롯본기, 홍콩의 쇼핑가, 뮌헨의 막시밀리언 스트라세, 베를린의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여기서 거래되고 소비되는 문화는 그 나라의 특징을 반영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의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건축물 또한 그곳의 지역성과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에 민감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서강대 다산관



서강대 다산관
(지하1층 출입구)



서강대 다산관(옥상 외부공간)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하고 이를 통해 계속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 알류 호텔들은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공간 편성의 방법이 맞물려 생성되는 결과입니다.

동정근 _____ 지역성에 대하여 매우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지역성과 국제성은 독자성과 혼합의 배타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대진 _____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개발 요구 또한 국제 네트워크의 흐름의 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90년대 이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소비성향에 대응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이곳에 가장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지역 질서와 대응하는 이질적인 성향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아주 엇비슷한 현상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질성을 묻고 망설이는 건해는 조금은 지나간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고려가 더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만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편견을 버리고 좀더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고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정근 _____ 평소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대진 _____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각기 외모와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 또한 다릅니다. 만일 내가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यो" 하고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 기억과 경험의 복합체인 그 사람을 몇 마디로 단순화시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각각의 특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황마다 다른 건축적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닌 이미 복잡하고 복합적인 총체인 도시에 또 하나의 대안을 보태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건축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한 광화문 1994는 주변의 지역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이고 큰 규모의 작업이었고 이번에 완성한 사안은 내향적이고 작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동정근 _____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작품은 길에서의 표정 특히 밤의 표정이 매우 독특한데 이 골목길에서 밤과 낮의 행태가 다른데 그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진 _____ 밤의 서울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형광빛 네온사인에 의해 길의 구획이 칼날 같은 선으로 지어집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네온 격자 내부의 어둠이 매력적입니다. 도무지 그 어둠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 블록 내부의 어둠은 현란한 네온빛의 뒤편에 만들어진 우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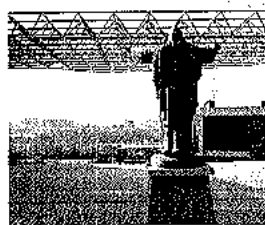
사안의 파사드는 도시 블록 내부의 어둠과 블록 외피의 네온빛의 역전입니다.

동정근 _____ 골목길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연결방법 즉 내외부 공간의 연결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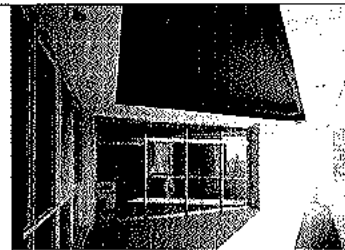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먼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이해



서강대 이나시오관



서강대 성이나시오관
(진입광장)



서강대 도서관
(휴게 마당)

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물은 주택이었습니다. 이 주택의 마당은 현재의 길 보다 한층 높이 있었고 그 밑에는 차고였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개축을 하더라도 주차대수가 3대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연립주택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양 옆은 주택으로 역시 길로부터 1층 위에 마당이 있어 집에서 바라본 모습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작은 대지에 최대한의 공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성향이 서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정근 _____ 내외부의 매개공간들, 즉 입구와 진입계단 그리고 내부공간에서 뒤돌아보는 외부공간은 페비우스의 고리를 연상시키는데 의도가 있습니까?

부대진 _____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들 조건들을 소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진입을 최대한으로 내부로 깊숙이 끌어 들여 심리적인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길에서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왔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주변의 상황과 차단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새로 들어오는 손님과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과의 관계를 무대 위의 배우와 관객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정근 _____ 배우와 관객의 역전은 이 작품에서 공간연결에 대한 주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대진 _____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도로 레벨은 개인 주차장으로 쓰

입니다. 주차장의 파사드는 전체 파사드보다 한 켠 들어가 있어 진입을 암시합니다. 주진입은 메인 파사드를 관입하여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눈앞에는 철판과 너트로 구성된 또다른 파사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벽은 건물의 두 번째 파사드입니다. 내부의 공간은 사실은 매우 좁지만 심리적으로 이 벽까지 공간이 확장됩니다. 접근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주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조금씩 관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문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리셉션이 있는 진입 레벨은 주차공간보다 1.35m 가량 높이 위치한 무대가 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주차공간과 2층의 발코니 공간을 모두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식사중인 사람들도 새로 등장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차공간은 주차장이 지붕이면서 기존 주택의 마당 부분입니다. 진입 공간은 기존에 거실이 있던 부분입니다. 원래 마당이 거실보다 1.35m쯤 낮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배우는 무대 계단을 통해 관객으로 편입되고 또 다른 배우들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새로 등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식사중인 관객이 또 다른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근 _____ 외부와 내부공간을 착각하게 하는 외부공간의 해석은 독특한데 이 작품에서 시도하는 마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설계를 하다 보면 법적 제약이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안의 마당 또한 그런 경우입니다. 주어진 건폐율로 최대한 공간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당이 제안되었습니다. 마당의 모양에 대한 다양한 스터디가 이루어졌고 최종안은 전면 파사드와 진입 계단 건너편의 공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빛의 마당' 이고 건물의 '중심' 입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는 전통 마당과는 상반없는 개념입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 외에 평소 내외부 공



서강대 엘마오관



서강대 엘마오관
(운동장에 관한 회랑)

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부대진 _____ 건축이 그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그 주변의 상황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이는 집합 주택인 효성빌라, 캠퍼스 건물인 서강대학교의 다산관이나 성 이나시오관, 엠마오관(스탠드 건물), 그리고 오피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건물에서 개방 또는 반개방의 다양한 형태의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내외부의 접이공간을 마련하여 휴식, 집회, 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평면적인 내외부 공간의 확장과 영향뿐만 아니라 단면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대진 _____ 주변과 형성되는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건축이 놓여지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데 시안의 해석은 완벽한 단절에 의한 독립이었고 이것은 주변의 요구와 그에 따른 해석의 결과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질적인 공간이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건축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표피가 가지는 한계를 내부의 풍만함으로 대처시킴으로써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정근 _____ 기존주택을 증·개축하였다고 들었는데 건축에서 재생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진 _____ 사람에게서는 Life Cycle이 있습니다. 시간(나이)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은 공간적 유동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80년대초 지금 살고 있는 효성빌라를 설계할 때에는 벽구조를 지양하고 기둥구조로 고집한 이유도 추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구성원이 바뀌면서 집의 구조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유동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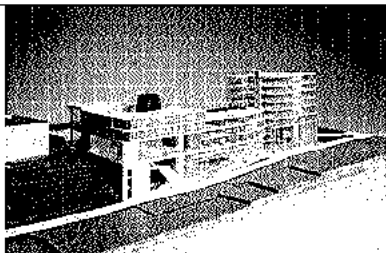
내재된 유동성(Flexibility)은 건축을 강하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체 건물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정도 들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도 중첩이 되지 않을까요? 시안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는 우리 설계사무실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정근 _____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은 서로 다른 구조와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시공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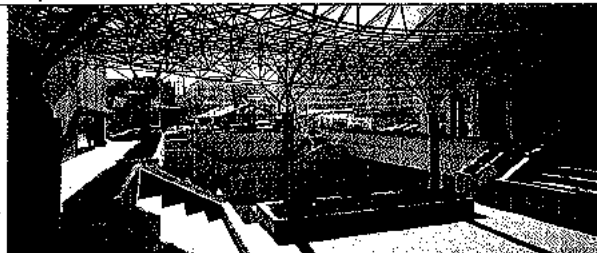
부대진 _____ 시안의 경우는 기존 건물의 구조가 80년대 초반 주택 공사에 흔히 쓰인 벽구조로 되어있어 기존의 공간을 바꾸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구조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한 후에 비로소 구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물에 철골 박스를 옆에 덧붙여놓은 구조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기존 건물의 질서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동정근 _____ 철이라는 재료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는데 특히 벽으로 사용한 몇 종류의 철판에 담고 있는 어휘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기존의 재료를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증·개축일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또다시 그 모습을 바꾸어



서강대 국제관



홍인동 한성빌딩
(오피스동과 스포츠동 사이의 외부놀이마당)

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콘크리트 구조는 제외되었습니다. 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된 폐자재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철은 그 재료가 먼저 말한 건축적 유동성(Flexibility)에 부합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조립식 박스와 같이 만들어진 이 건물은 나중에 나사를 풀어 해체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CORE 10 Steel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면 녹 방지용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성된 결과는 다른 느낌을 가져 왔겠지만... 대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주들이 좀더 보수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에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안과 같이 작은 건물의 경우 재료에 대한 색다른 실험이 많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바 입니다.

동정근 _____ 이 작품을 떠나서 그간 건축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부대진 _____ 고도성장기에 건축가가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에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려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잠실지구 마스터 플랜, 목동지구 마스터 플랜, 서울 대공원 마스터 플랜, 부산 2000년 등 대규모 계획을 그 동안 제시했습니다. 대형 작품을 한 이유도 큰 규모의 계획을 통해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고도성장의 시기가 끝난 지금은 하나의 작업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대부분의 작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작은 스케일의 작업까지 건축가가 보다 많은 관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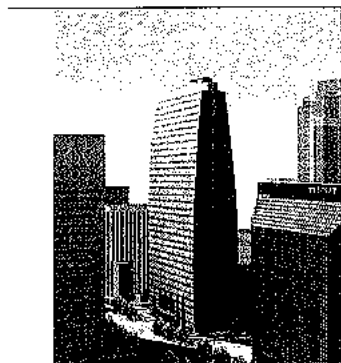
형태적인 연구와 재료의 선택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나 정갈한 디테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질의 건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항상 관심 있었고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학교 캠퍼스입니다. 이는 캠퍼스 내의 건물들이 아주 구체적인 목적으로 서로 엮인 작은 스케일의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큰 골격만 잡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주어진 캠퍼스 플랜 안에서도 하나의 건물을 구체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면 전체에 거꾸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캠퍼스는 보통 4년 정도 삶의 터전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캠퍼스 시절의 건축적 공간적 체험이 아마도 그들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뇌리에 남을 겁니다. 여기에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토피아적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떠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섰 책임지고 나서는 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 보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도시계획 경험과 캠퍼스 건물을 많이 설계해 본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건물과 디테일까지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여건이 나빠진 지금이 비로소 크고 작은 스케일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동정근 _____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기대합니다.



SK상사 사옥



배재대학교 21C관



홍익생명 본사사옥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場 - 흑기사 XIAN

Ground for the Desire to be Seen Black Knight XIAN

민선주/ 위가건축

by Min Sun-Ju



“우리는 로데오 거리 쇼윈도의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민교육헌장, 유신 등 우리 현대사의 파편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이미지와 기호들에 억압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투명한 유리에 반영된 우리의 분열된 얼굴 - 유교적 전통과 서구 모더니즘의 열성 교배에서 파생된 기호들에 억압되어 일그러진 얼굴 - 을 볼 수 있다. 로데오 거리의 투명한 유리 속에는 치절한 우리 현대사의 파편과 그 파편의 조각들이 있고 이 조각들은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압구정동의 복제된 아이들은 유럽의 어느 부분을 도려내서 혹은 북미의 어느 공간을 오려서 한강변 뽕밭에다 어느날 갑자기 슬쩍 붙여놓은 것이 압구정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복제된 아이들은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압구정동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부정한다. 이러한 부정은 현재라는 공간 -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차원적인 - 속의 일상을 더욱 더 강도 높고 열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일상은 단절된 시간 속의 분열된 파편으로서 존재하게끔 한다. 복제된 아이들은 현재라는 납작한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시간이라는 길쭉한 직선의 포기를 의미한다. 압구정동의 현재는 시간이라는 길쭉한 선에서 이탈된 현재이다. 다시 말해서 압구정동의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의 현재가 아니라 이것들이 분열되고 파편화된 여러 개의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으로서의 현재일 뿐이다. 이렇게 조각난 현재 속에는 내일이 없다. 그 이유는 압구정동의 현재라는 시간이 초월된 현재 혹은 초월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간은 단절된 것이기 때문이다. 초월된 현실 속에서 실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압구정동의 이미지와 기호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실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압구정동의 이미지들은 현실을 기초로 생성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압구정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고 압구정동 자체가 가상의 현실을 그 모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구정동 공간 속에서 가상의 실재는 현실이 된다.” - 엄혁, 압구정동: 억압의 역사와 아이들의 미학 -

시안의 비평 원고청탁을 받고, 비록 이 건물이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압구정동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본 건물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필자가 해왔던 대로 컨텍스트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평가하다보면 청담동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을 논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압구정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글이 쓰여진 시점은 1992년이었고 필자의 기억으로는 시안이 위치한 청담동은 아직 덜 상업화가 되었던 때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청담동은 대rob변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섰을 뿐만 아니라 블록 내부로도 대rob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업화가 되었다. 시안과 같은 블록에 처음 “하루에”라는 찻집이 생기면서 “전혀 모를 골목 속에 찻집이 위치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섰다”며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마 3~4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시안과 그 일대를 몇번 방문해보고 상업 용도의 건물들이 얼마나 점조직처럼 파고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착되고 자라난 문화파편

청담동 쪽으로 새롭게 개발이 된 건축물들을 통해 아직도 이곳에는 이전 압구정동에서 보여주던 일면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아직도 이곳은 우리 나라 어느 곳보다 외국의 것이 가장 먼저 착륙하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아니 어느 찻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뉴욕의 한 카페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다.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금방 잡지책 속에서 뛰쳐나온 것 같이 근사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아마 5~6년 전에도 이 일대에 존재하였던 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 새롭게 발견되는 점들은 전에는 국적을 모를 것과 같았던 그리고 내일이 없었던 그런 곳에 “지금”이 그 “내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그곳에 가상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시간의 파편인 장소들이 있지만 “시안”은 새롭게 정착되고 자라난 문화의 한 부분을 보

여주는 장소이다. 앞에서의 글에서와 같이 많은 우리를 불러일으킨 압구정동의 세대들은 서태지를 좋아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조금은 성숙한 세대들로 자리났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들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압구정문화를 배척하고 비난하기 보다 이미 우리의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잡은 문화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글의 “우리”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대목을 필자는 무척 사랑한다. 그와 같은 사고가 유독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에는 외국 것이 금방 들어온다. 실제로 일본의 문물이 일주일이면 위성방송을 통해, 직접 건너오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새 것이 전해 온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첨단적 소비재와 감각적 패션이 이곳에 다 몰려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도시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세계규모의 자본주의체제는 이러한 공간을 곳곳에 창출해내고 있으며 문화적 혼합과 혼성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뉴키즈 온 더 블록’을 보고 환호하는 것보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낫다고 하던 어느 교수의 이야기는 순진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다. ‘우리’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미 서양화될 대로 서양화된 우리를 놓고 서양화되지 않은 어떤 ‘고유한’ 우리를 찾아보려 한다면 긴 식민지적 상황을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소외시키고 말게 될 것이다. 북고적 민족주의에 빠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조혜정, 압구정 공간 을 바라보는 시선들: 문화정치적 실천을 위하여 -

그런데 이렇게 성숙해진 청담동의 공간들이 한 편으로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면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5~6년 전에 걱정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정착되고 거기에서 새롭게 자리나기 시작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안”은 그런 면에서 이전에 이식되었던 문화의 한 부분이 이곳에 정착해나가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동양과 서양의 퓨전

필자에게 “시안”은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틈틈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시안”을 설계한 진이건축의 부대진 사장님은 필자가 가장 아끼는 후배, 부상훈의 아버님이시고 이 프로젝트에는 두父子뿐만이 아니고 부대진 사장님의 둘째 아드님과 며느님이 같이 참여하였고 건축주는 둘째 아드님의 친구이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 과정은 어느 외국의 장소를 흉내내기 보다는 현재 외국과 우리 음식문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계획이 된 것이고, 건축주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장소와 사업을 꿈꾸어왔던 이로 들은 바 있다. 특히 “시안”이 제공하는 메뉴 자체가 퓨전 스타일의 음식으로 서양식과 동양식이 접합된 스타일의 음식이다. 지난 몇 년간 외국에서도 퓨전 스타일의 음식들이 관심을 끌어왔고, 한 예로 뉴욕에서 오정미가 가장 전형적인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퓨전 스타일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정미는 한국에서 미슐랭 전성기였고 후에 요리를 공부한 이로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아름다움과 퍼포먼스로 널리 알려진 요리사로, 한국의 문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외국에 알리는 예술인으로 생각된다. 한국 음식 이전에는 베트남 음식과 불란서 음식의 퓨전과 중국, 일본 음식의 퓨전을 접해본 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의 특성이 세계화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시안”으로 돌아와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아마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합되는 곳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문화가 압구정의 지역문화, 그리고 한국의 보편적인 지역문화와 같이 섞여, 이를 음식에서나 건축에서 잘 전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건축적으로는 기본 설계가 이 지역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이 된다. 대지 건너편에 위치한 주택과 본 건물의 상업적인 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전면에 타공철판의 벽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이 벽은 단순히 건너편을 무시하고 단절하기 위한 벽이보다, 낮에는 빛을 받아들이고 또 저녁에는 빛을 새어나게 하며 상대방을 의식한 벽이다. 기본 공간의 구성에서도 기존하였던 전형적인 주택의 공간을 받아들였지만 그 이전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무척 놀랍다. 오히려 그 이전의 주택이 국적없는 주택이었다면(이제는 집장사 집도 전통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마당을 내부 공간과 더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준다면 더 우리의 전통 공간 개념을 잘 살린 안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압구정의 지역문화를 잘 살린 부분이 긴 계단을 통해서 입구에 들어서서 식당 공간으로 내려가려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서로 보이고 보기 위한 연출로, 기본 설계의도에서 들어오는 곳이 스테이지와 같아서 근사하게 차려입은 것을 뽐내고 또 훑쳐보라고 계획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이순원은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이 좋은 압구정동의 카페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공간이다. 노출과 훑쳐보기가 자연스럽게 교차된다. 카페나 음식점,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같이 밝은 실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연출을 모른 채 시누와 같이 들렀던 필

자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계획하였던 연출이 충분히 효과를 발하고 있었던 증거이다.

건축주 층의 확대

“시안”과 같은 좋은 상업 건물들이 최근 많이 지어진 것을 반갑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 대중이 일부러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식사하면서) 건축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좋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관공서나 집단, 일부 특수 계층의 사람들만이었던 시대를 지나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좋은 건축물에 관심을 쏟고, 직접 건축주가 될 수 있는 현상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압구정동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읽으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사항은 글들이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쓴 글들인데도 공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대중문화에서 가장 먼저 건축적으로 눈을 뜨는 지역이 압구정동이기 때문

Along the show windows of Rodeo Street located across the road from Galleria Department Store, various items are displayed in brilliant, fancy design. Show window is a private and public space where communication and value exchange occur. However, the show windows along Rodeo Street of Abkujung bear meaning beyond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private or public space.

Through the transparent glass of Rodeo show windows, we can see fragments of our contemporary history such as the New Community Movement, the National Charter for Education, the Revitalizing Reforms and so on. We, also, can see ourselves suppressed by such images and symbols. We can see our disrupted faces, the deformed faces oppressed by symbols derived from inferior hybridization of our Confuci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sm, reflected on the clear glass. Inside the transparent glass of Rodeo Street, there exist fragments of our miserable contemporary history and these fragments reflect ourselves in many different angles.

Duplicated teenagers of Abkujung believe that a part of Europe or some space in North America had been cut off and attached to the mulberry field near Han River and that one day all of sudden Abkujung-dong came to be. Therefore, they deny its existence within the flow of our history. Such denial may make the daily routine within the space called present two dimensional

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 무턱대고 압구정 문화를 비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시안”이 한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믿어본다.

대담 내용을 팩스로 받고

위의 글을 급히 끝낸 직후 동정근 교수님과 대담 내용을 팩스로 전해 받았다. 필자의 글은 이전에 부상훈으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들은 후 전화로 2~3분간 추가 설명을 들은 외에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내용인데, 대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고 지금 다시 위의 글을 읽어보았다. 일부러 잘 쓰려고 한 것도 없었고, “시안”은 근사한 건축물로 그가 속한 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space where time does not exist - more passionate, but at the same time, it makes the routine exist in disintegrated fragments of broken time. Duplicate teenagers desire to exist in flat space of present, and this signifies their giving up of long linear time. We have experience of cut off history whether it was caused by voluntary/forced or inner/external factors. Cut off history signifies cut off time and cut off time again signifies cut off language that fails to be completed. For these reasons, our general consciousness/unconsciousness partially lost its ability to linearly assemble the before and after relationship of history, time and language.

Present of Abkujung is that which has broken away from long line of time. In other words, the present of Abkujung is not that which is in past-present-future line. Rather it is only a fragment among the many pieces derived from breaking and disintegrating the line. Within such fragmented present, there is no tomorrow. This is because the present of Abkujung exists in transcended present or in transcended reality and it is cut off. In transcended present, reality can not exist. Likewise, the images and symbols of Abkujung do not have corresponding actuality. The images can not form based on reality, because, the space, Abkujung, itself, has broken away from the space of present and Abkujung, itself, follows a model of hypothetical present. Therefore, hypothetical being in the space of Abkujung becomes reality.

Hyuk, Uhm, Abkujung-dong : Suppressed history and aesthetics of children.

After being requested to write critique for Xian, I fel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concerned building, though it is located in Chungdam-dong, without mention of Abkujung-dong. As I always have done, to evaluate the work based on its context, I will have to discuss not only physical but also social, cultural background of Chungdam-dong, and in doing so, its relationship to Abkujung-dong will surely come up. Quoted writing above had been written in 1992, and as I recall, it was when Chungdam-dong region where Xian is located was less commercialized. During the six years since then, fancy buildings have lined up along the big main street of Chungdam-dong, and even the small roads of the block branching out from the main street have been incredibly commercialized. It was already 3 or 4 years ago when I heard people talking about a caf called Haruae situated in the same block as Xian, amazed at how crowded it was despite its disadvantageous location. Recent visits to Xian and its neighborhood made me realize the extent to which commercial buildings have eaten into the district as point structures.

Culture fragment that has settled and developed

Through newly developed buildings in Chungdam-dong area, I see some characteristics of Abkujung-dong partially existing, yet at the same time, I discover new different aspects. Still this is definitely the place where foreign culture arrives earlier than any other place in our country. When sitting at a caf there, we almost have illusion that we are at a caf in New York, not Seoul. Young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is area mostly look very chic as if they just popped out of a fashion magazine. Probably even 5~6 years ago, such features did exist. What has newly been discovered recently is that the present of the place with unknown nationality that seemed will have no tomorrow has become that tomorrow. There still are fragmentary places that make us feel we have entered a false image. However, Xian is a place that represents an aspect of newly settled and developed culture. The Abkujung-dong generation that caused much concern and worry as described in the quoted writing above have escaped from the days they worshipped Suh Taeji and have matured to some degree. As result, the places

that accommodate them have also matured. Rather than unconditionally expelling Abkujung culture, we need the will to optimistically develop it, since it is a culture that has already settled among many of our young generation. From following writing, I especially like the part that says If we are to discuss about us, shouldnt we start off with ourselves present here? Such attitude is required not only in evaluating Abkujung but also in understanding our culture in general. Foreign things enter Abkujung-dong fast. In actuality, Japanese civilization is readily passed onto this area in one week, either through satellite broadcasting or through someone coming from there. People say the latest consumer goods and the newest fashion are all gathered there. However, the capitalistic system in international scale that seems to concentrate in urban areas has created such space in many various places and has brought about mixed culture and confusion. What does it mean now for us to persist in our essential qualities? One professor once claimed It is better to cheer at Suh Taeji than at New Kids on the Block. This may sound naive but it does have a point. If we are to discuss about us, shouldnt we start off with ourselves present here? If we try to find not westernized peculiar us when we have already been as westernized as can be, we who have barely escaped long colonial situation would once again be isolated. We should not stand still drowning in regressing nationalism. Hae-Chung Cho, Views on Abkujung Space : Toward Culture-Political Practice

Such matured Chungdam-dong spaces probably can not have escaped totally from foreign influence, however, we can not deny the fact that what we had worried about 5~6 years ago has settled and newly developed from there. Xian in that respect is an example of case where a part of culture transplanted in former days is settling.

Fusion of East and West

From the beginning stage of its planning, I have occasionally been informed of its progress and thus, Xian was not an unfamiliar project to me. The architect who designed Xian, Mr. Dae-Jin Bu, is the father of one of my close juniors, Sang-Hoon. The two men along with Mr. Bus second son and his wife also were involved in this project. The client was a friend of his second son. This project was planned not to imitate some restaurant in another

country but to accord with the outcome of current foreign and domestic food culture analysis. I heard that the client, since he were young, has been dreaming of such place and business. The menu Xian provides, itself, is food of fusion style that joined the western with the eastern. Past few years, fusion style foods have also attracted interests abroad. The fusion restaurant of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foods that Jung-Mi Oh has been running successfully in New York can be one example. After graduating art school in Korea, Jung-Mi Oh started the studies of cooking. As a chef widely known for the aesthetics and performance of her cooking as well as the taste, she, I believe, is the artist that has most effectively publicized Korean culture to the world. Prior to Korean food, I had seen fusion of Vietnamese and French foods and that of Chinese and Japanese foods. Such phenomenon shows that eastern culture is becoming more actively known to the West and at the same time, that characteristics of a regional culture is becoming internationalized.

Returning to discussion of Xian, Xian may be considered one of the places where regional culture and world culture have most actively come together. It is a project where the western culture mingles with Abkujung culture and general regional cultures of Korea. Such characteristic is well portrayed in the food and the architecture. Particularly, the basic setting of its architectural design starts off with consideration of the district. In order to separate the building from the residence across the street, the design provided an iron plate wall on the facade. This wall rather than disregarding and cutting off the residence across stays conscious of the counterpart, absorbing light during the day and leaking out the light at night. Regarding basic composition, also, the design accepted the typical residential space of the existing house. It is amazing that, even so, no one can imagine what it was like before. All the better, if the existing house were a denationalized building (though buildings built solely for commercial purpose might be a part of our tradition now), the new design well utilizes the concept of our traditional space by more directly connecting the courtyard with the interior. At the same time, it well transfers the regional culture of Abkujung. Through long stairs one enters the restaurant and before he steps down to reach the main dining area, he gets the feeling that everyone is looking at him. The circumstance intended is to see and to

be seen. Design concept explains the entrance as a stage where nicely dressed customer gets a chance to show off his or her fashion and people can have a peek. However, such cultural phenomenon is described as follows in Lee Soon Wons There is no exit in Abkujung. Popular cafes of Abkujung are spaces to show oneself off and at the same time, to view the others. Exposures and furtive glances intersect naturally. The reason cafes and restaurants emphasize bright interior lies here. Not understanding such intention of design, I felt very uncomfortable

Expansion of client class

Another reason for welcoming recent increase in the well designed commercial buildings such as Xian is that it provides opportunity for the general public to have interest in architecture even in unintended situation (even when having meal). Furthermore, it is extremely desirable that wider class of people acquire interest in architecture and become architects themselves to move on from the days when architectural clients were limited to just government, public offices or privileged upper class. What I found interesting while reading writings on Abkujung-dong was that, though they were written in point of cultural sociology, the writings often mentioned about spaces. I believe this is because in our mass culture the region that first opens its eyes architecturally is Abkujung-dong. Rather than blindly criticizing Abkujung culture,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roperly developing it. I trust Xian will become a good precedent.

Upon receiving interview text

Right after urgently finishing above writing, I received the text of interview with Professor Jung-Keun Dong through fax. My writing was based on few talks with Sang-Hoon during process of design and 2-3 minute additional explanation over phone. The rest was purely my personal views thought out independently. The interview text, however, was amazingly similar to my writing and I felt the urge to revise my text. Just now, I read above writing once again. There was no intention to critique nicely about the project. And I reconfirmed that there is nothing more to add or correct to the fact that Xian is a smart architecture that well expresses the cultural situation it is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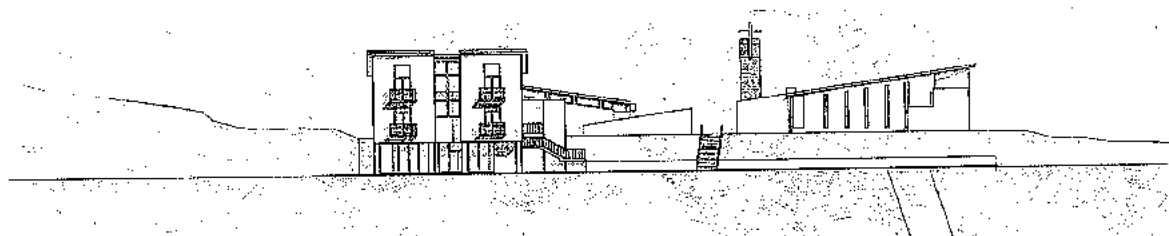
연동교회 강화수양관 Retreat Center, Yeondong Church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 C. A
Designed by Lim J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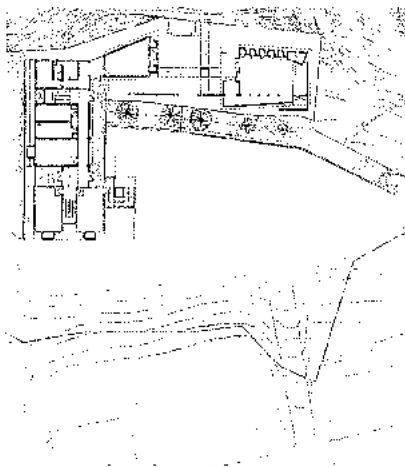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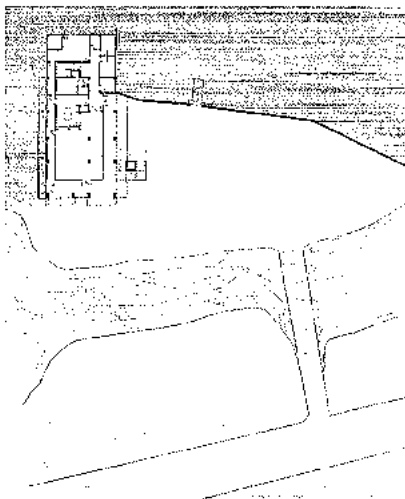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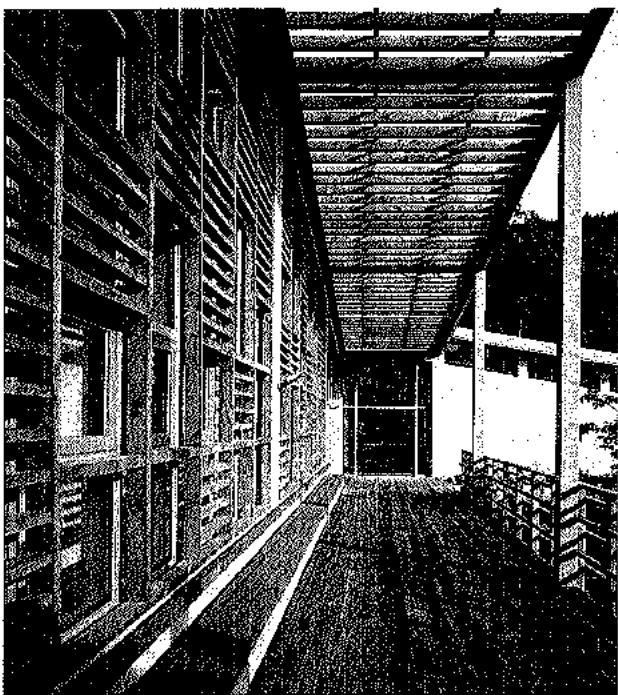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4,889㎡
건축면적	782.6㎡
연면적	1,427.7㎡
건폐율	14.7%
용적률	26.9%
규모	예배당1층, 숙소동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드라이버트, 노출콘크리트 시멘트올타르 견출, 샌드위치패널
설계담당	김만규, 김도형, 문희경, 김희성
프리젠테이션	문희경, 최형석, 김희성
시공	(주)이세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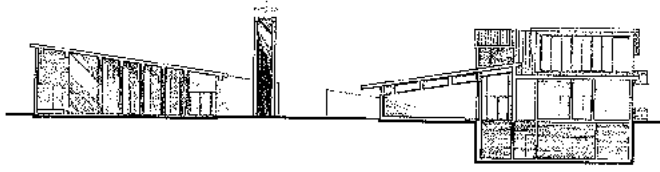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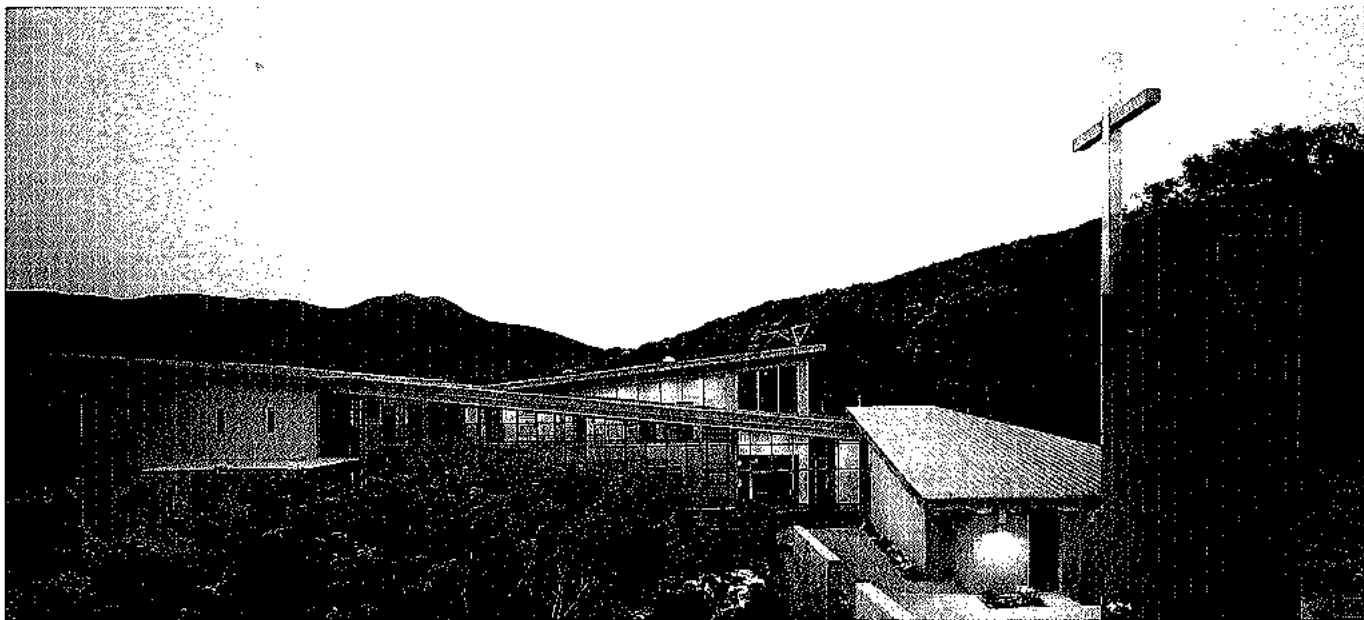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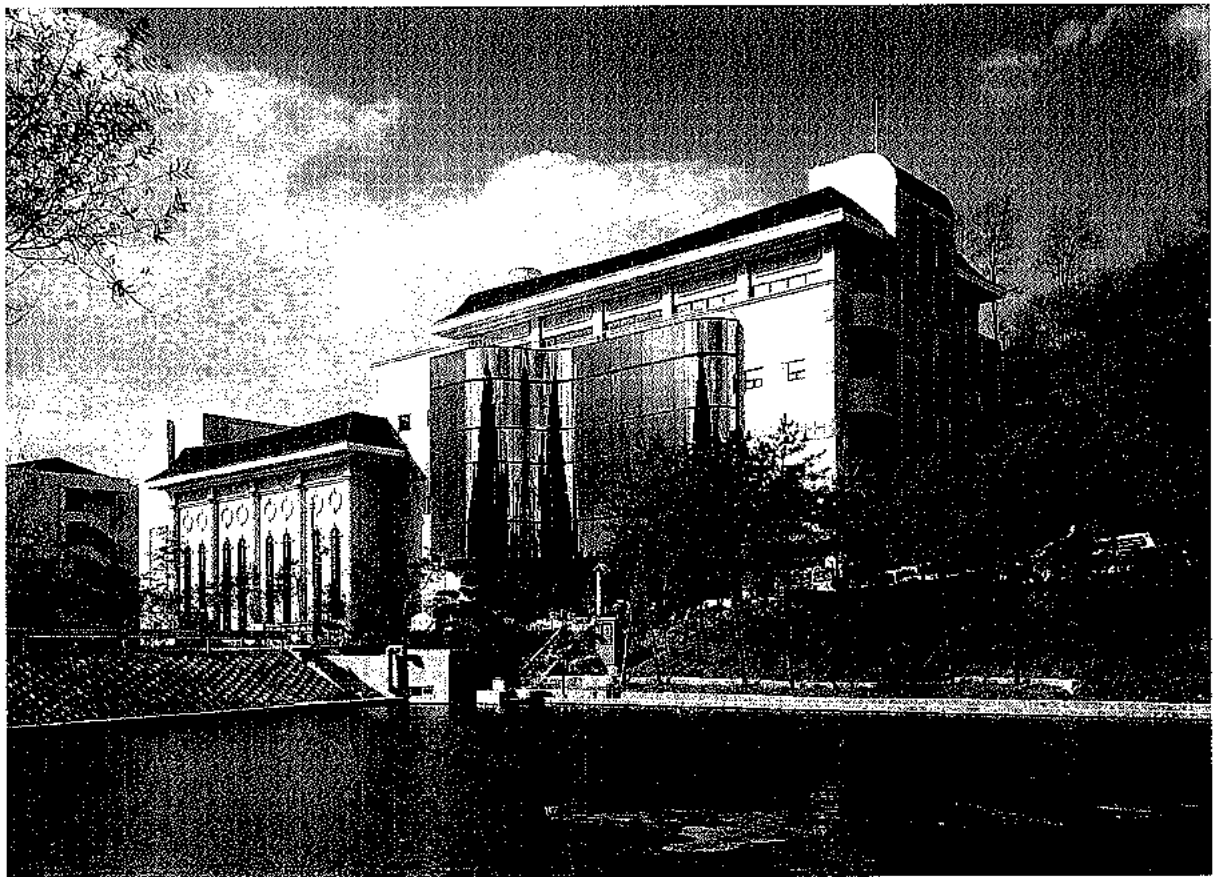


강남대학교 50주년 기념관

50th Anniversary Memorial of Kangnam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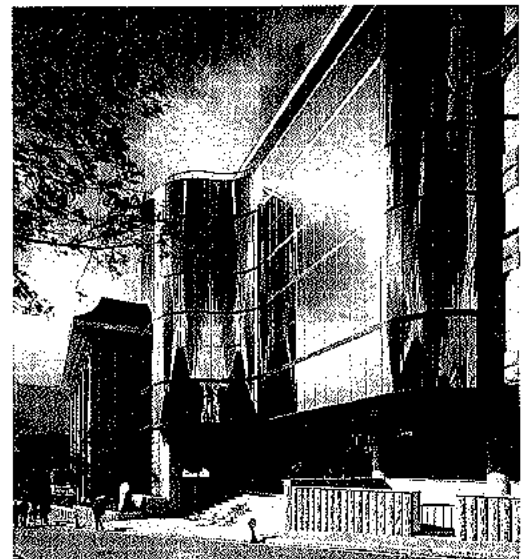
김규태/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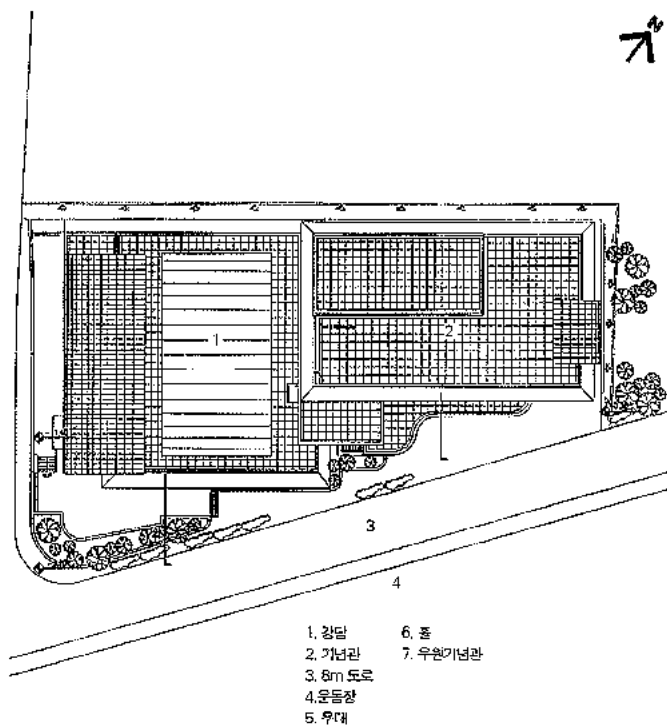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Kyu-T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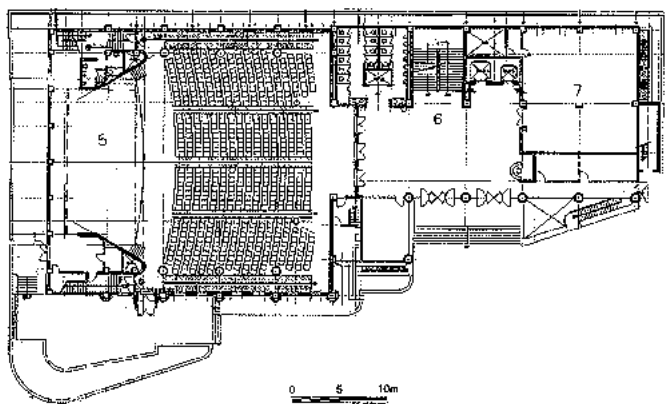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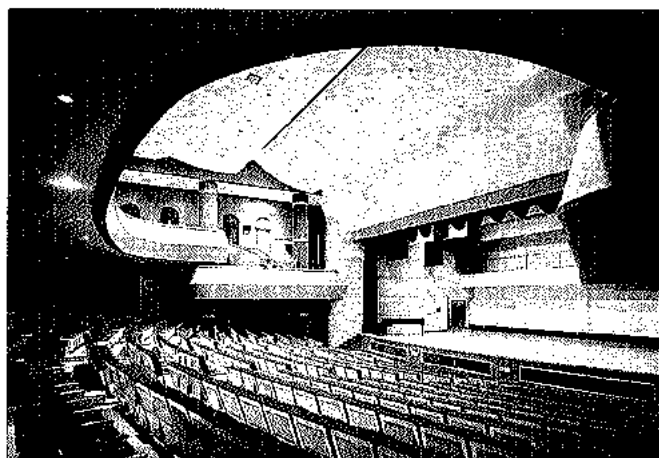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외 13필지
대지면적	171,177.0㎡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652.18㎡
연면적	4,973.18㎡
건폐율	10.56%
용적률	37.0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기설계	석우엔지니어링
설비설계	기한엔지니어링
구조설계	태신구조
시공	동방 TNC
설계담당	신면우, 변창성, 김상욱, 이상웅
자문	신신웅, 안형준, 최호천(이상 강남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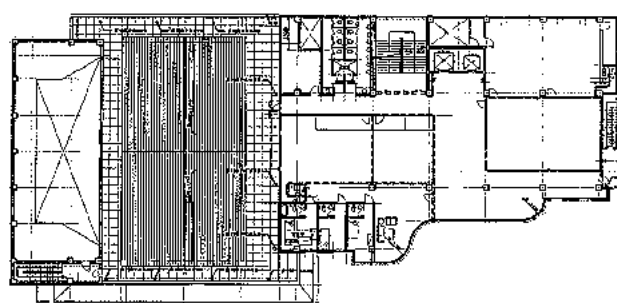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LG평택연구단지 생산기술연구원, 식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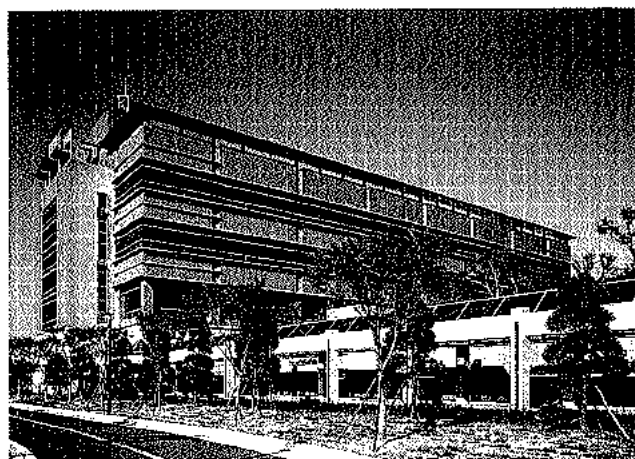
LG Pyungtaek Research Complex

이충언+김광섭/ (주) 원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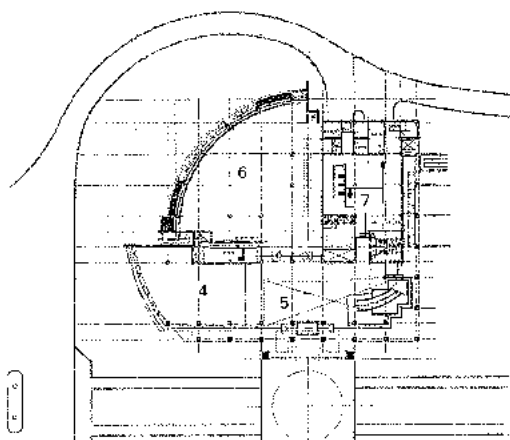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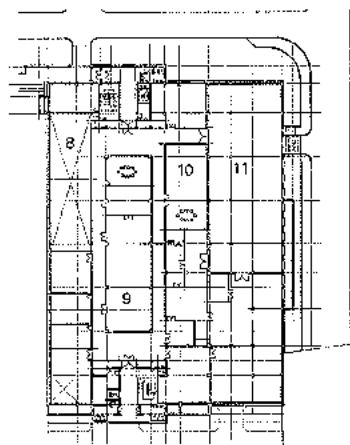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외 79필지
지역지구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10,396.10㎡(생산기술연구원), 4,948.35㎡(식당동)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알미늄 하니콤 패널, 화강석 버너구이
설계담당	김경표, 김형권, 김태훈, 박충호
시공	(주)LG건설
조경	고려조경
구조	동양구조
전기	우신 ENC.
설비	서일 ENG.



연구원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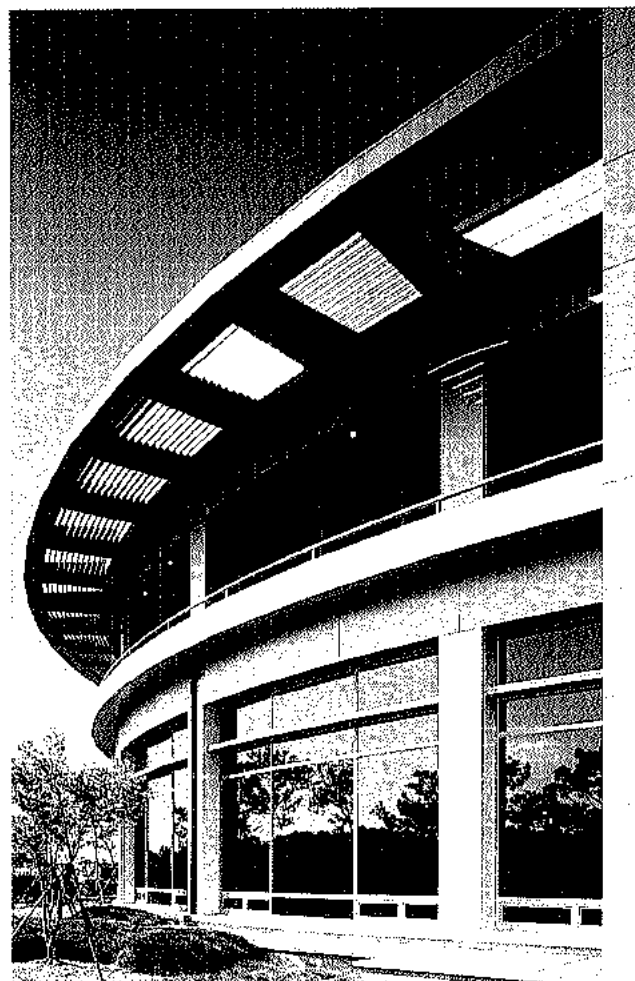


식당동 2층 평면도



0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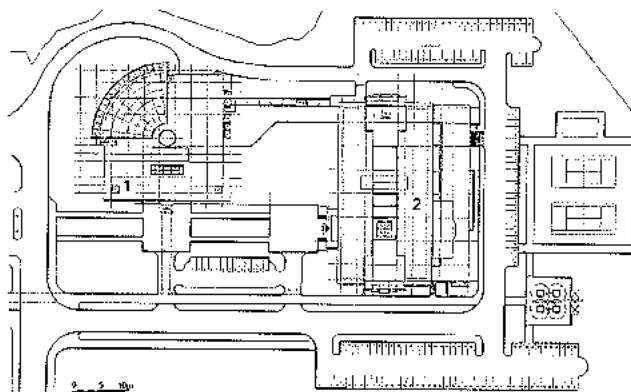
연구원동 1층 평면도



식당동 입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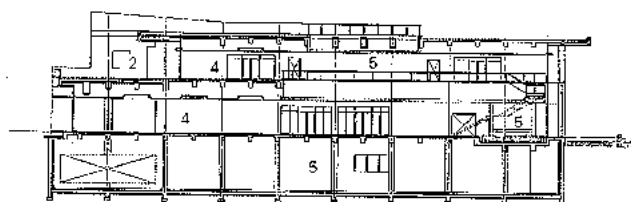


식당동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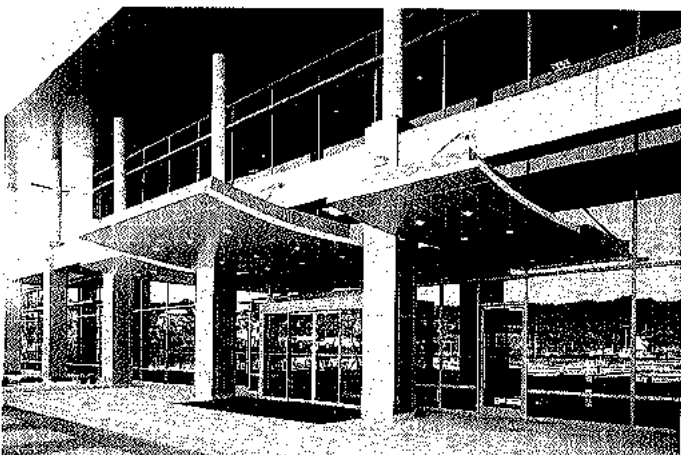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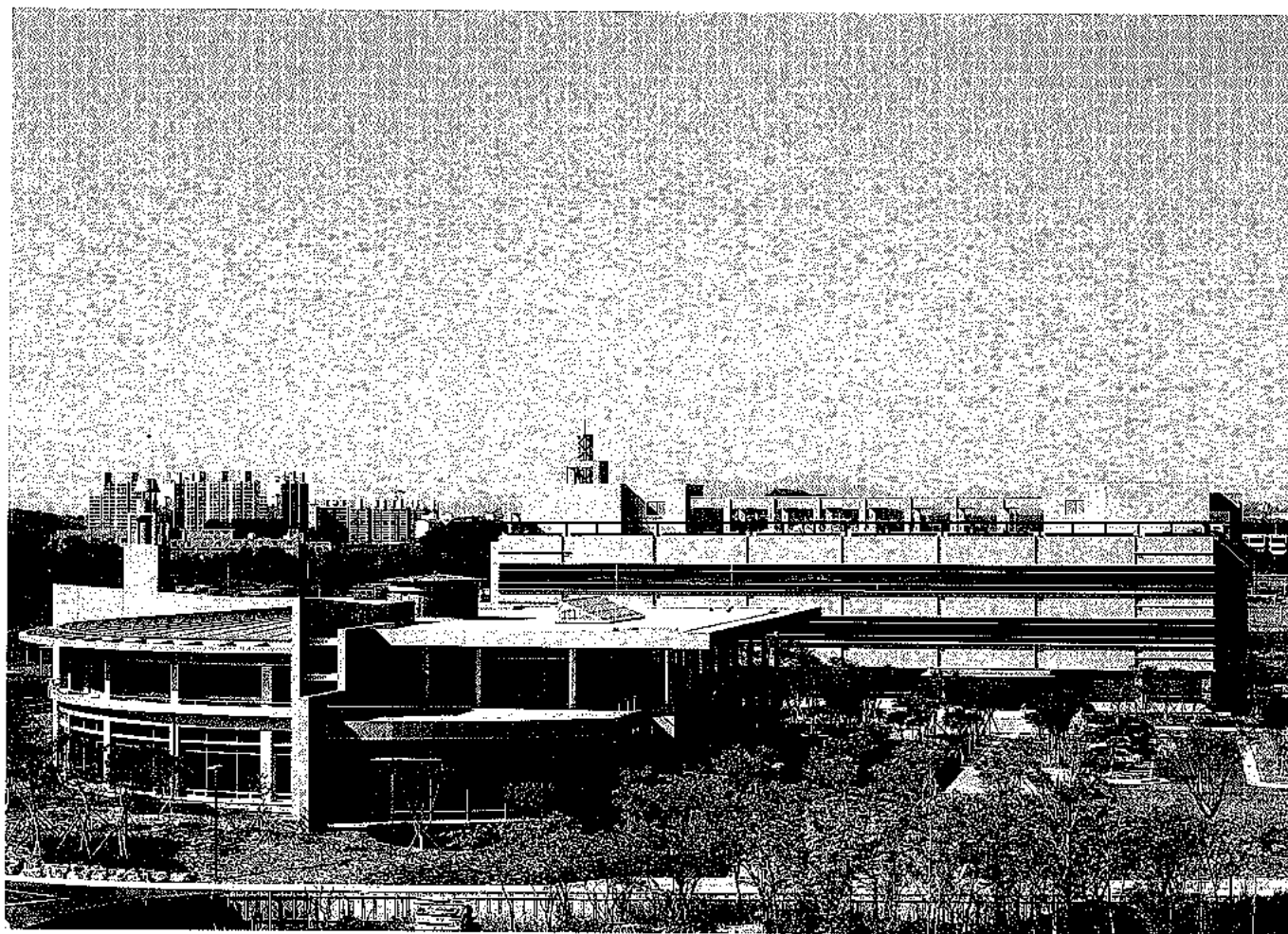
- | | |
|---------|----------------|
| 1. 식당동 | 8. 크린룸 |
| 2. 연구원동 | 9. SMT실 |
| 3. 발코니 | 10. 서아나실 |
| 4. 리운지 | 11. 자동차 조립 제작실 |
| 5. 홀 | |
| 6. 기계실 | |
| 7. 주방 | |



일반단면도



식당동 주출입구 전경



태종대 전망대

Observation Tower of Taejongdae

이충언+김광섭/ (주) 원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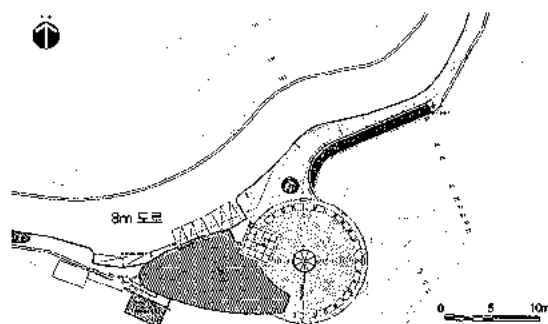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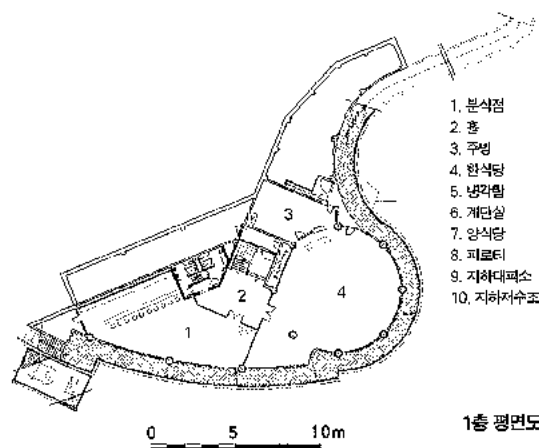
구름사이의 햇살이 내어 비추니 하늘과 바다라는 캔버스 위에 비취빛, 검푸른빛, 회색빛 회화의 장관이 연출되며, 대자연의 광대함이 펼쳐 내려다 보이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닿아 대자연의 막강 감동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낭만과 추억을, 어떤 이는 좌절의 절망 속에서 검푸른 바다의 손짓에 유혹되어 몸을 던지기도 했다던가! 부산의 갈매기 뱃고동 소리와 함께 상징적 의미와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곳. 개발과 보존의 전제하에 상징성, 조형미, 복합적 기능을 충족하고자 Study는 시작되었으며, 기존절벽의 지형 위에 자연조건을 최대 살리며 휴식과 전망의 기능을 확보하고 바다 위에서의 조망까지도 고려, 전체 윤곽을 잡아본다. 일단,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란 자연과의 거부감을 갖기에 자연친화적 요소인 원형과 곡선의 도입을 시도해 본다. 바다와 하늘이라는 투명성을 갖기 위해 유리의 커튼월을 적용하면서 지형이 갖고있는 기존도로의 진입과 Level을 최대이용, 단순 절제된 평면 및 단면을 정리해 본다. 외관의 형태는 전망대라는 특성을 감안, 주공간의 원형 탑은 시시각각 변화 연출되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저 멀리 아득하게 내려다보이는 바다와 함께 주변의 모든 풍광까지도 담아 보려는 욕심이다. 이렇게 펼쳐진 곡선과 원형의 내부공간은 실마라 햇벌이 들고, 실마라 보이는 각도에 따른 조망이 다르다는 변화에 만족하고, 또한 쾌적성, 일조, 통풍 환기에 있어서는 두말이 필요없다. 준공후 전체의 형태는 태종대의 거친 절벽 위에 반투명의 원형 우주선이 사뭇히 내려앉으니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것같이 흥미를 더해주며 야간조명 연출이 한층더 어우러지니 환상적 분위기이다.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드니 이왕이면 멋진 공간 속에 담겨져 대자연과 호흡하고 대화하며 눈, 비 맞으며 밀려드는 파도소리 바닷바람과 함께 좋은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만이 담겨질 수 있음을 직감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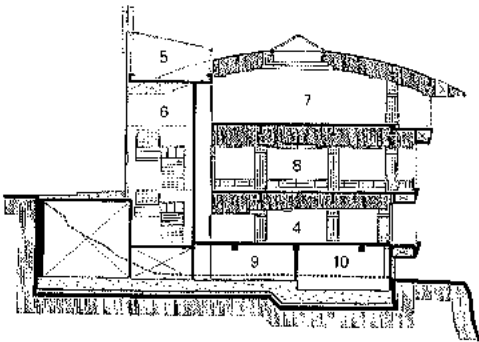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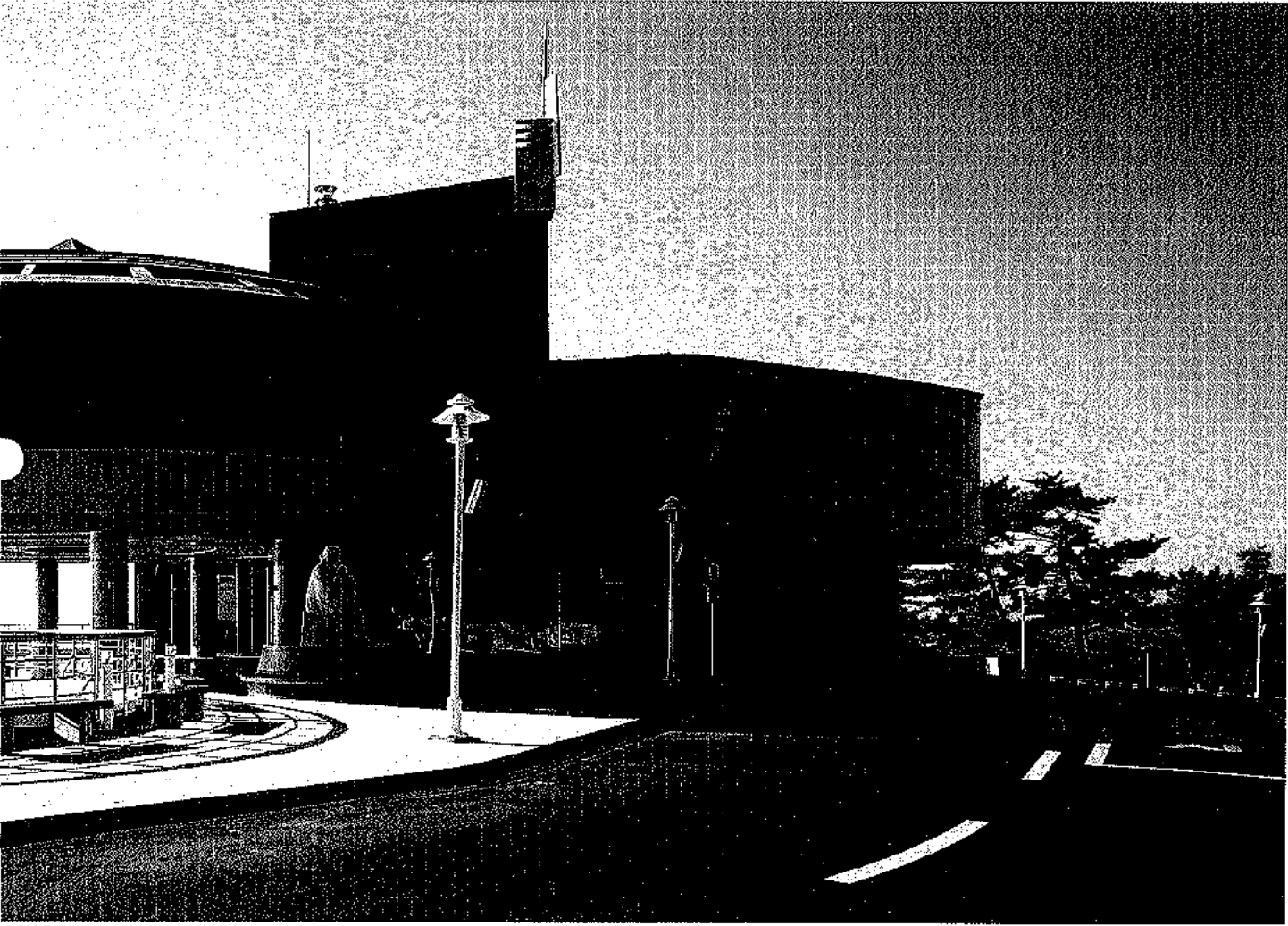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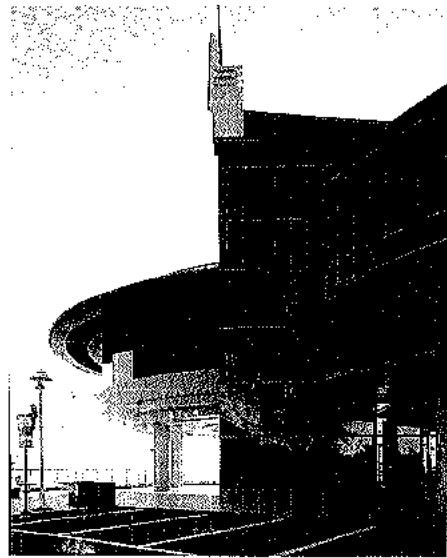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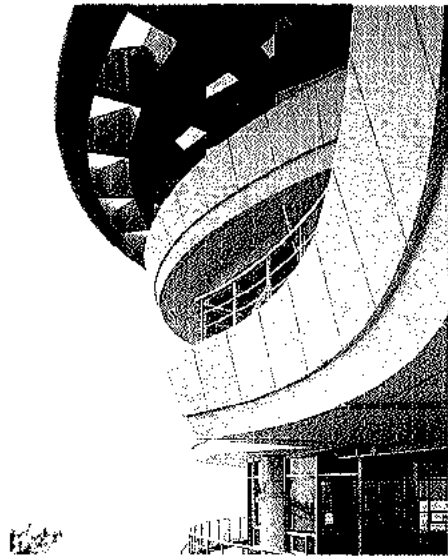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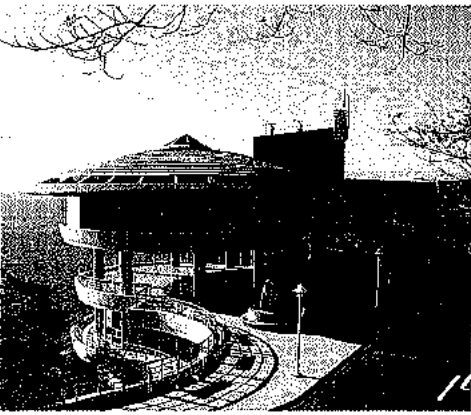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태종대 유원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용도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	1,162,133.80㎡
건축면적	792.45㎡	연면적	1,736.01㎡
건폐율	0.068%	용적률	0.13%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설비	서인설비	전기	청우엔지니어링
설계담당	윤영수, 양성수, 윤광식, 윤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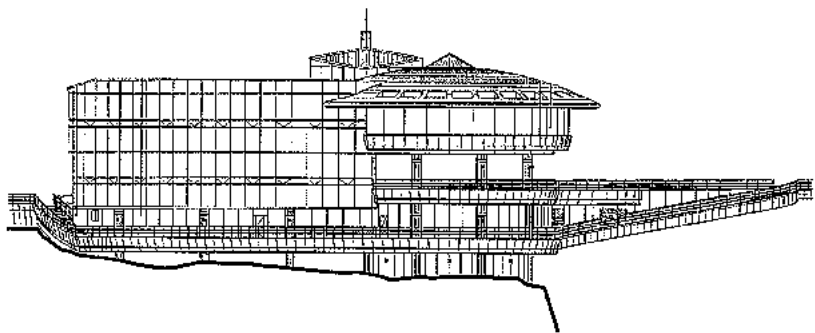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일반단면도



남측입면도

독수리 빌딩

Eagle Building

이인호/ (주) 이레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In-Ho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31-4와 6필지
대지면적	740.6㎡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면적	429.1㎡
연면적	4,070.5㎡
건폐율	57.9%
용적률	397.1%
규모	지하2층, 지상8층
구조	철골조, RC조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마감	외부-AL, 단열바+투명 복층유리 화강석, AL, 복합패널
시공	현진건설(주)
건축주	독수리 빌딩 김정희
설계담당	곽선신, 이희창, 최민영, 임성민, 박홍점

항상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이는 신촌골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상업지역과 다른점은 주변의 학교들과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교육 및 주거기능이 더불어 신촌골의 주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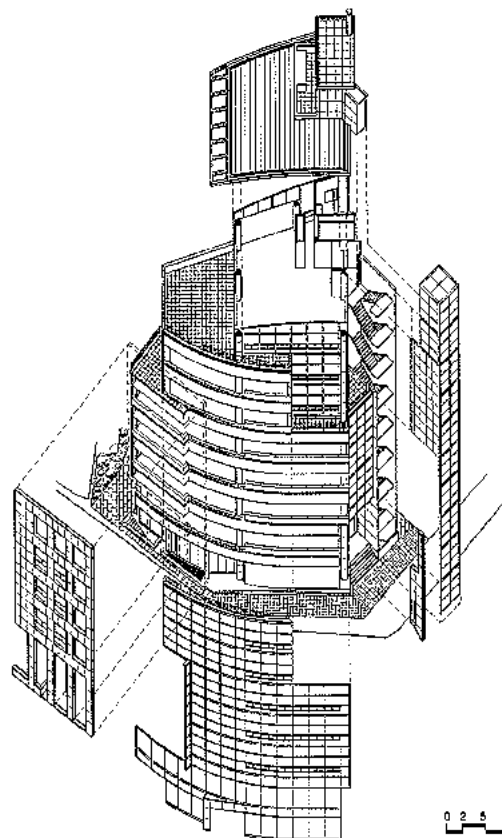
특히 연대 앞거리는 오랫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젊은 아들과 지식인들의 에너지 발산 장소가 되어왔다.

신촌골의 가장 번잡한 도로들의 교차점에 있는 신축 독수리빌딩은 신촌 로타리에서부터 연속되어 있는 상가들과 축을 이루면서 연대정문을 향하여 얼굴을 내밀고 있고, 후면의 낙후된 단독주택들과 하숙집들에 근접해 있으면서 이대쪽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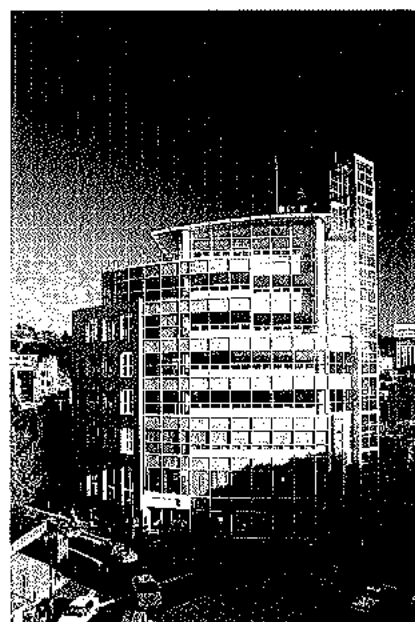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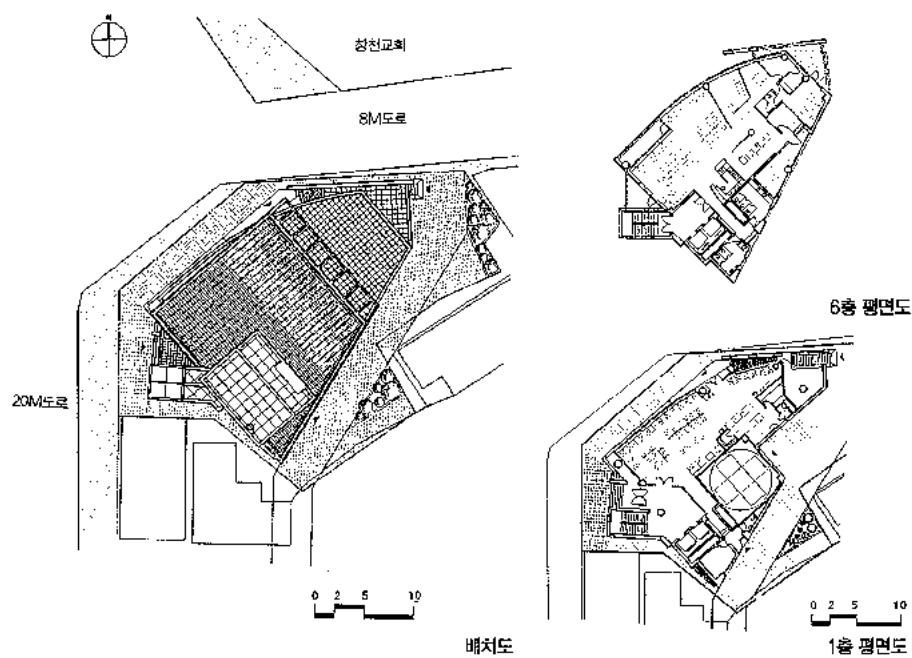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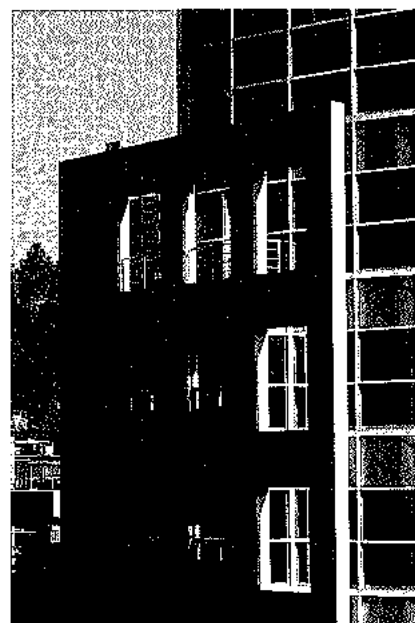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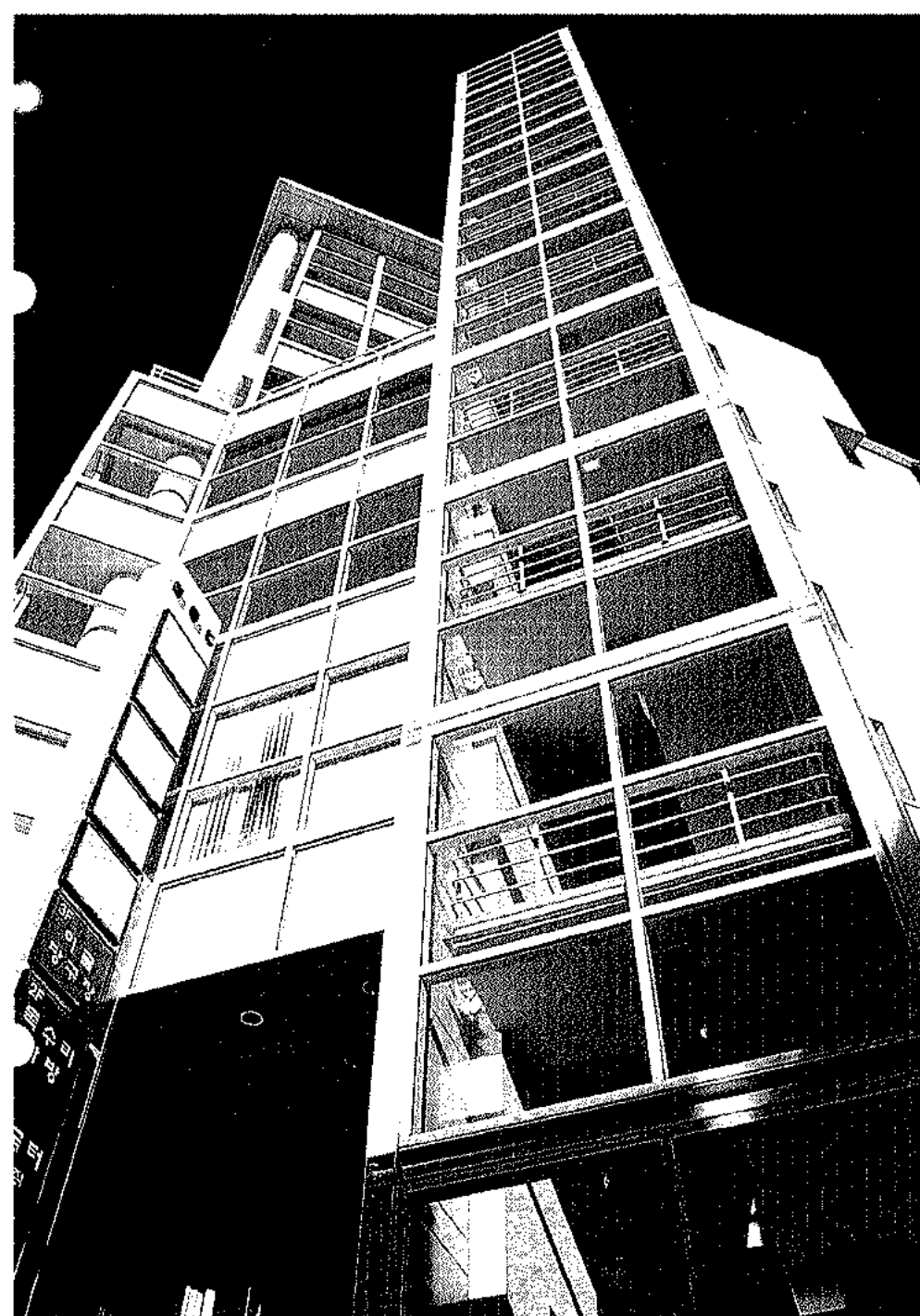
독수리빌딩의 설계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신촌골의 문화를 반영하고 독특한 주변의 기능과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의 조형적 성격은 상업적 형태와 지성적 분위기를 발산하고 밝은 내부공간과 활기 넘치는 외부의 길거리가 공간적 동시성을 갖도록 투명성을 강조하고 내부기둥을 부분적으로 노출시켰다.

젊음이 있는 곳은 밝고 생동감이 있으며 아름답다.



0 2 5 10



동호인 빌딩, 라움

Raum

서용식/ (주)수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o Yong-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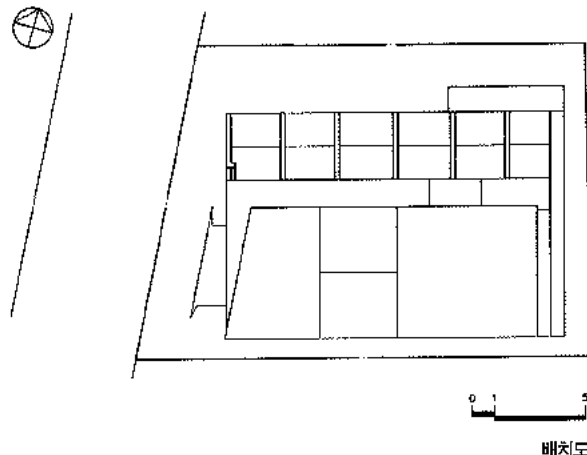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사진, 영상 등 예술관련업종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초 일련의 SI(Space Identity)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협소한 대지와 주변여건(도로폭, 인접건물)으로 인한 부족한 소요공간 규모의 차이로 가용공간의 극대화가 요구됐고 더 나아가 볼륨의 시각적 확장감이 외부 디자인의 전제가 되어야만 했다. 건물 네 면에 대한 배려는 어느 도심 건축물의 경우처럼 건축법상의 제약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출발한다.

북측 입면은 거대한 프레임 작업을 통해 실루엣과 같은 내피를 형성했다. 각각의 틀은 금속성의 구조물과 콘크리트 기둥, 보의 수직, 수평부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에서의 일상의 행위자체가 도심의 생활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동화상이 되도록 계획했다. 남쪽 연립주거에 면한 외벽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의 적절한 배려로 인근주거의 사생활 침해, 내부 공간에서의 개방감이라는 양면을 고려해 디자인했으며 동쪽 주거군번은 블라인드월로 처리됐다. 서쪽 정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북쪽 발코니에 접한 부분과 계단실을 포함한 주요공간 부분이다. 파사드는 세장한 수직창과 발코니 개구부를 통해 아분되는데 외벽 색상과 수평의 띠에 의해 다시 한 번 헤테로겐의 양상을 띤다. 3, 4층에 걸친 돌출창은 내부에서의 조망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통해 보행인들이 점층적, 시각적으로 접하게 되는 건물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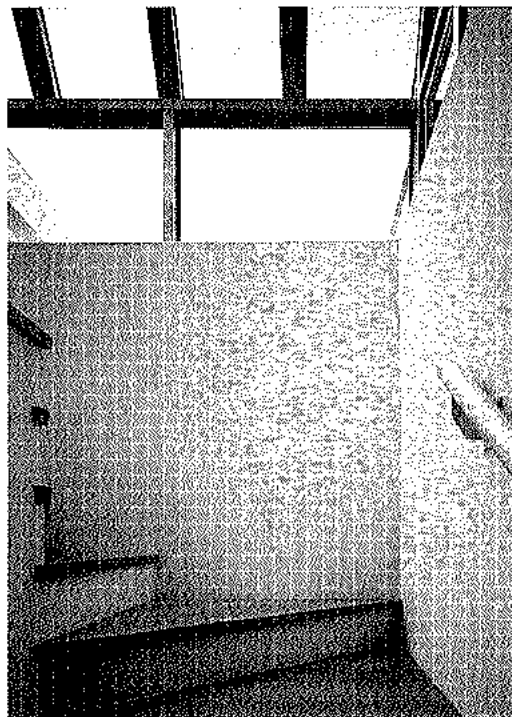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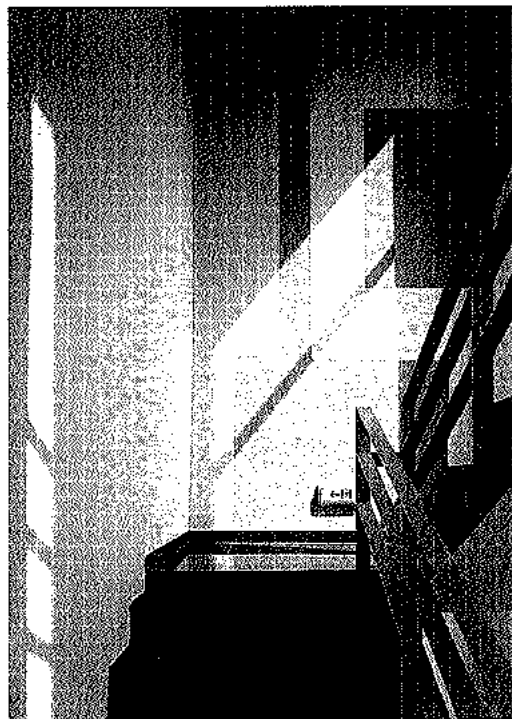
업무공간은 내부계획을 미리 고려해 모듈화한 평면계획이 이루어졌고 자연채광만으로도 주간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4, 5층은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복층형 주거공간으로 단독주택의 장점을 그대로 도입한 바람직한 도심형 주거공간의 프로토타입의 제안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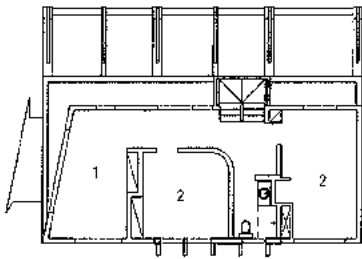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4-17		
용도	건축, 인테리어, 사진, 영상, 스튜디오 / 주택		
대지면적	260.60㎡	건축면적	150.46㎡
연면적	701.20㎡	건폐율	57.74%
용적률	213.23%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대수	5대		
외부 마감	외벽 단열 표준마감재(스토), 스틸플라이트, 지붕-레인링크		
내부 마감	바닥-우드폴로링, 벽-테라코타, 천장: 레카빔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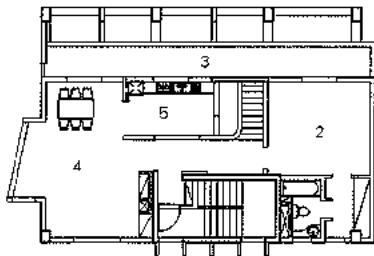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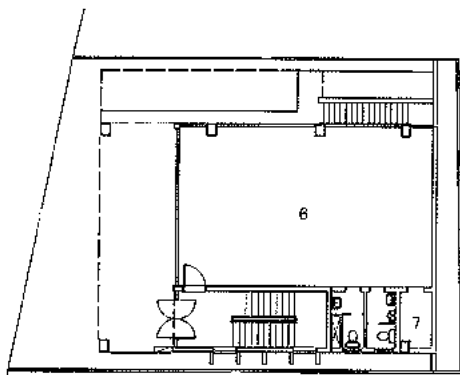
1. 서재
2. 방
3. 발코니
4. 거실
5. 주방
6. 근린생활시설
7.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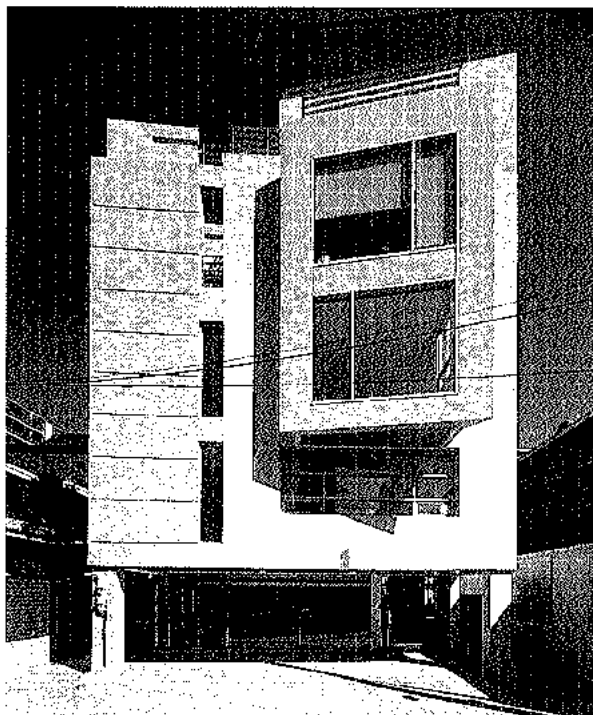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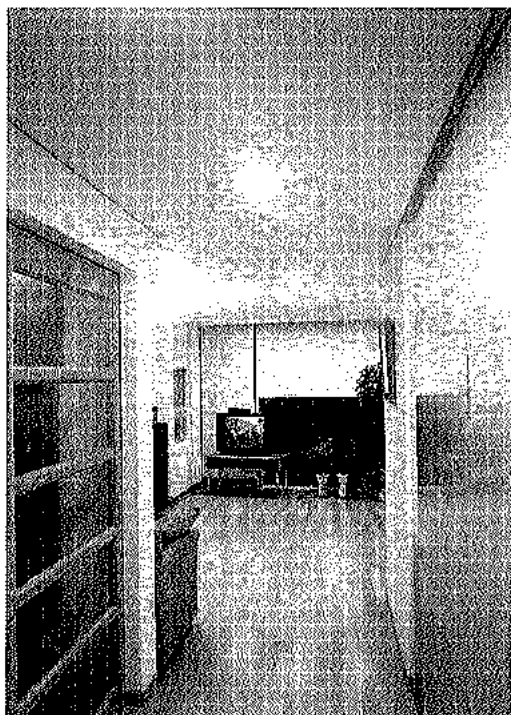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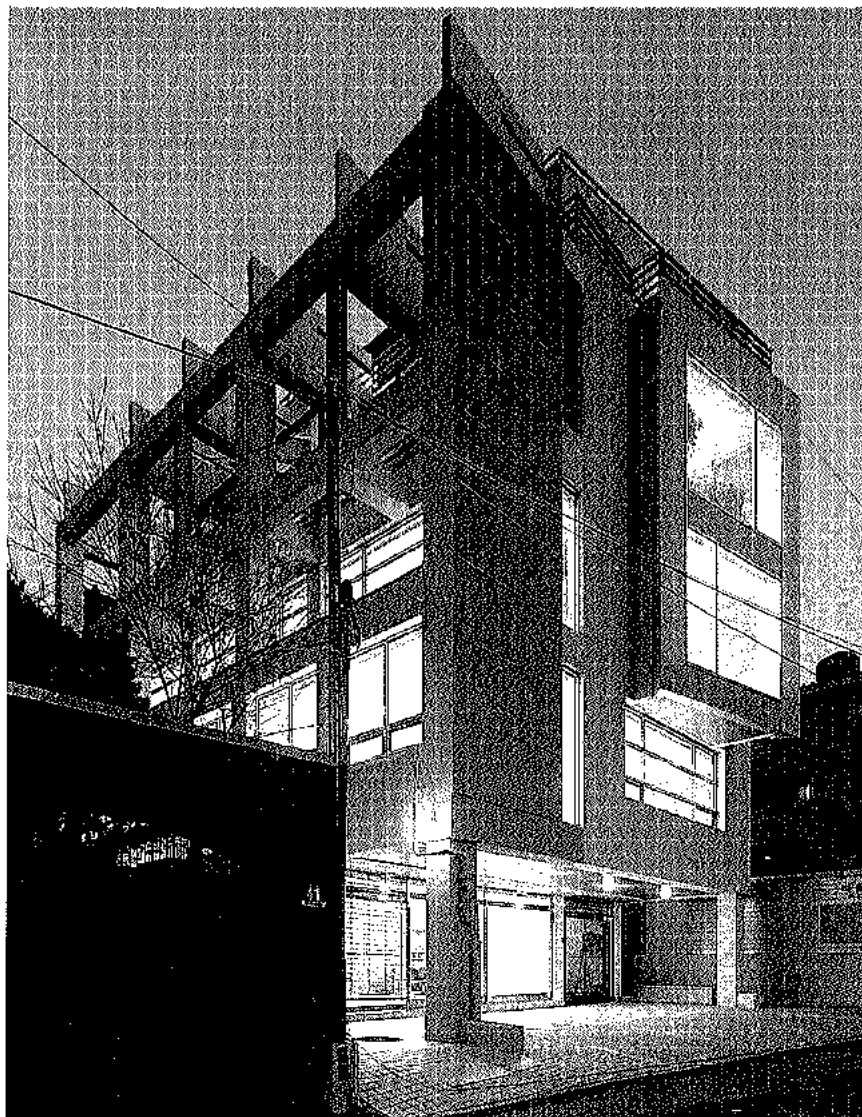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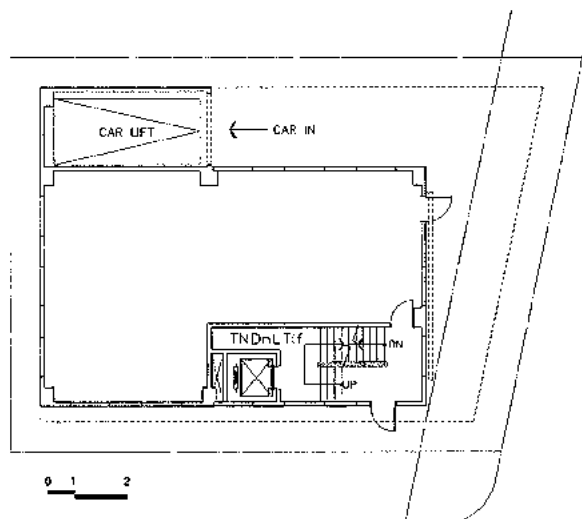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영등포제일빌딩

Jeil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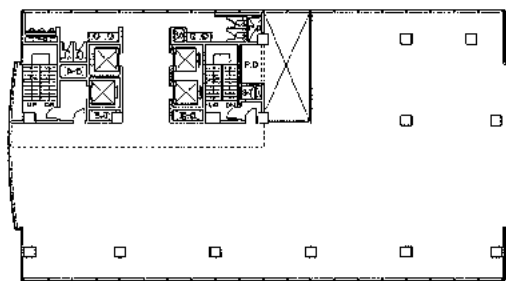
최동규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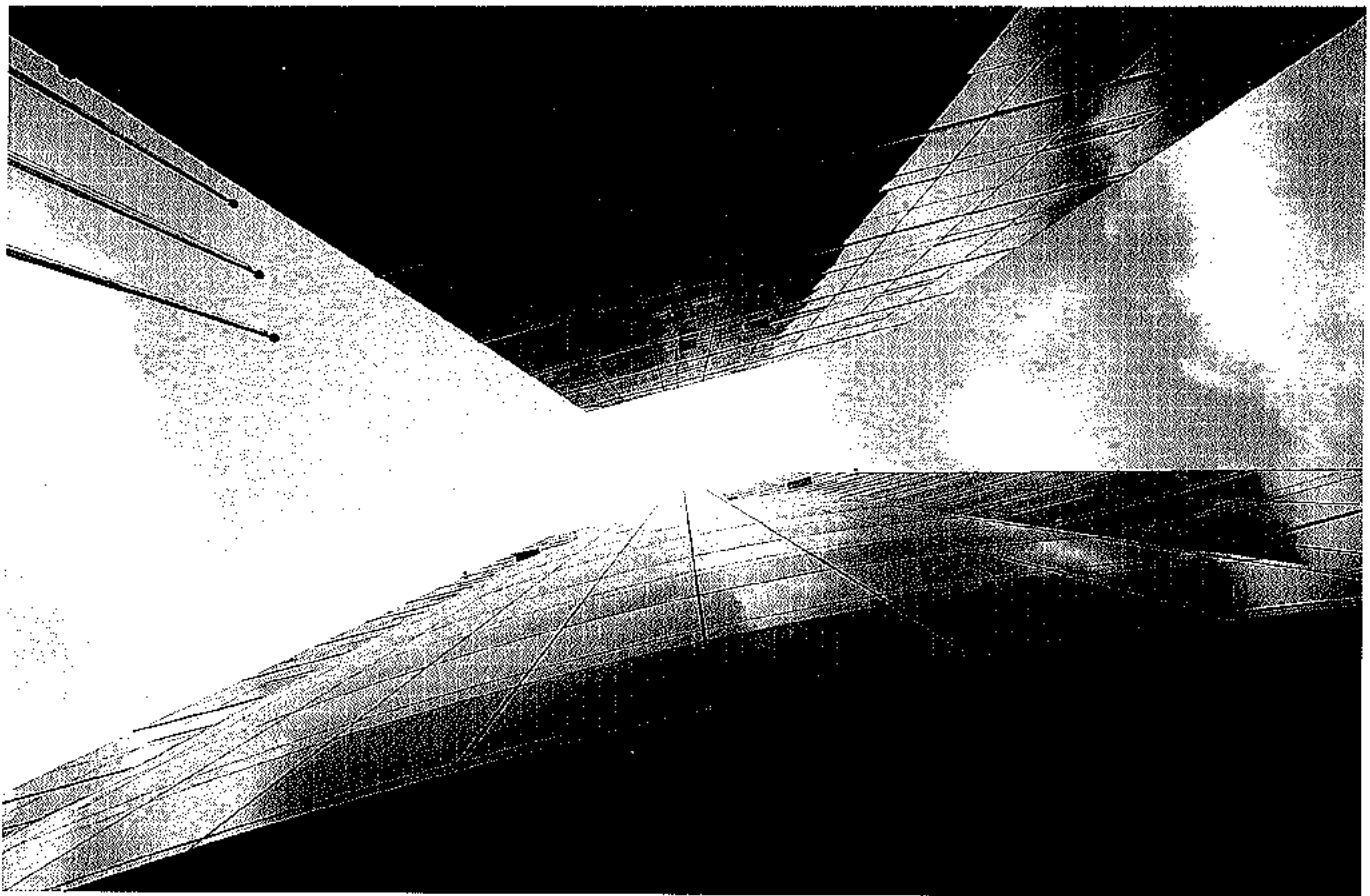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7가 94-46		
대지면적	1,429㎡		
지역지구	일반주거, 2·4층 미관지구		
건축면적	732.96㎡	연면적	19,017.68㎡
건폐율	51.29%	용적률	998.12%
용도	일반업무시설	규모	지하5층, 지상20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알루미늄커튼월, THK24 컬러 록충유리		



기준층 평면도



귀여리 303

Gyiyeori 303

김희곤/ 중간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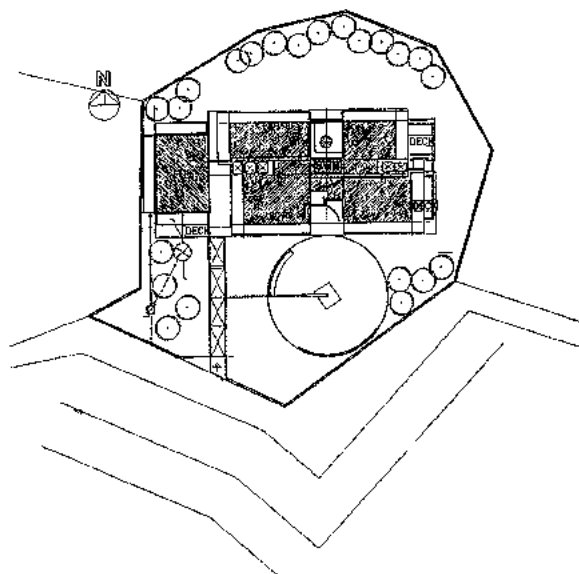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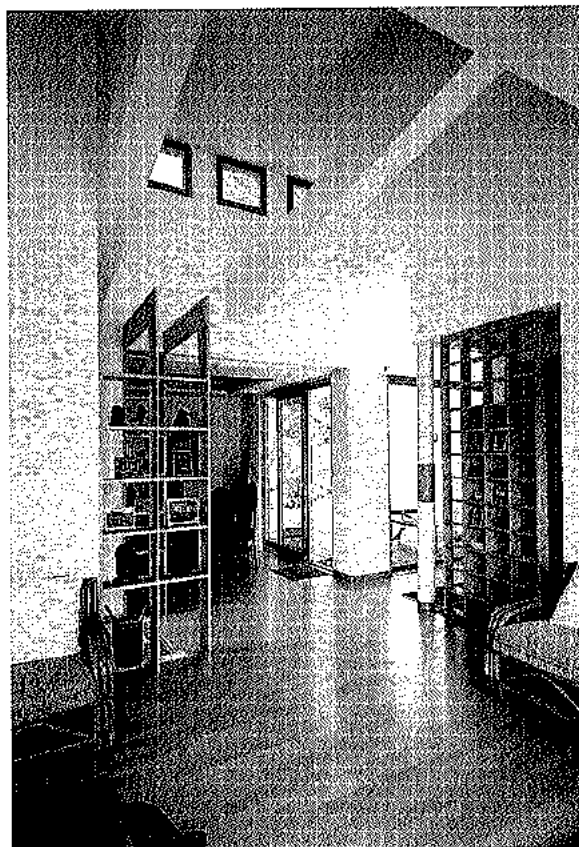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Hee-Gon

빛과 녹색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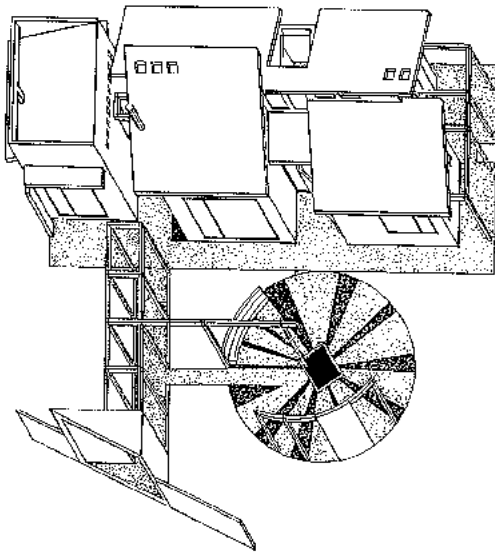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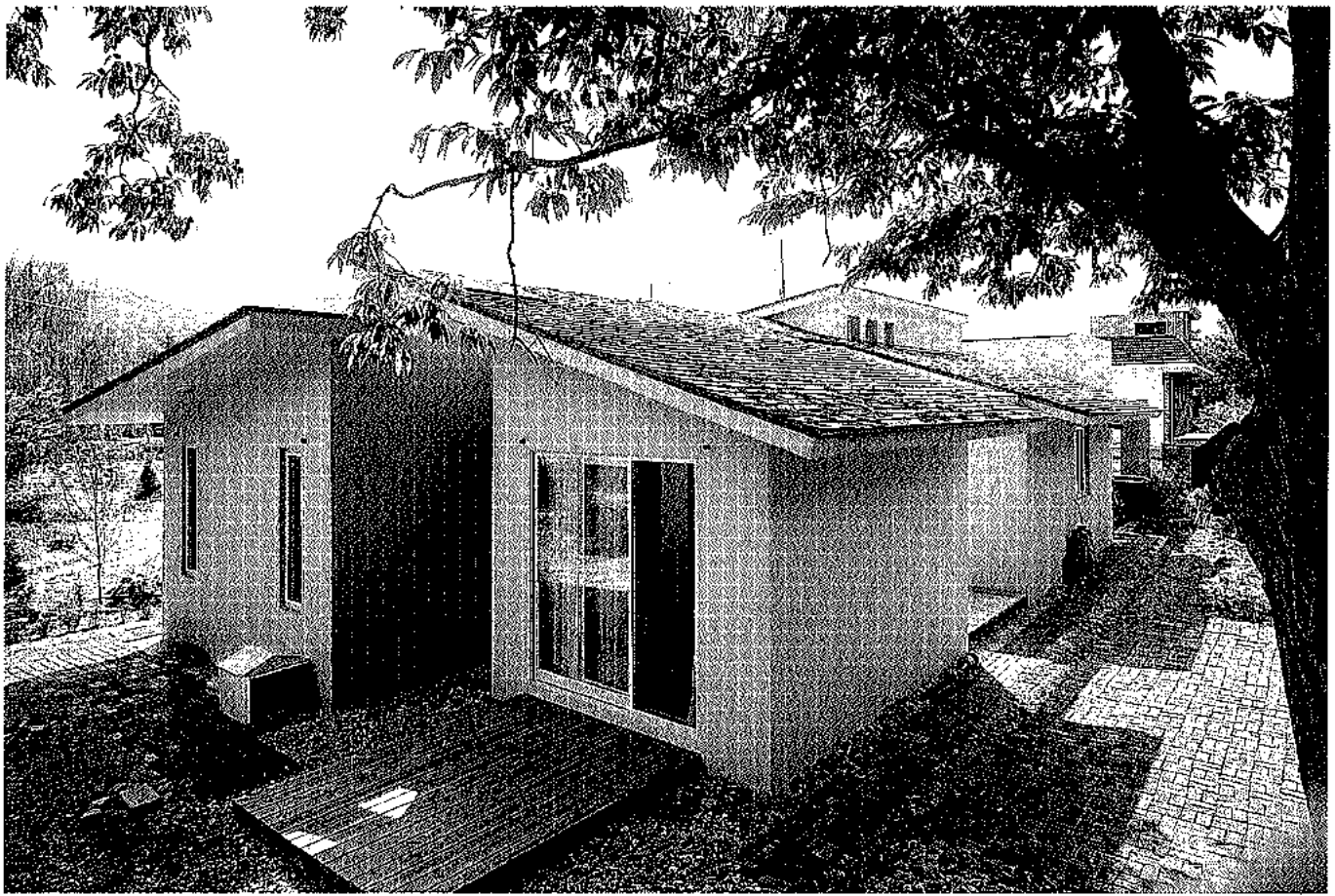
현대인에게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정주자를 위한 주택인가? 노마드를 위한 주택인가? 이 주택은 노마드와 정주자의 중간에 있으며 사회의 정보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마을이 따뜻한 중년부부를 위한 주말주택이 아니라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다. 처음부터 관념적인 형태조작 보다는 어린시절의 꿈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 기승벽천 순간에서부터 어딘가 삶의 또다른 향기와 인생의 근원이 다시 만져지는 확실한 공간을 현대의 도시인에게 꿈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밑거름 속에서 과거의 맛이 배어서 미래에 대한 강한욕구와 삶의 건강한 추진력이 생기길 원했다. 형태의 현대적, 기하학적 조작에 대한 의미보다는 태양과 녹색에 대한 소박한 욕구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주택의 주된 관심사는 서울의 생활무대, 즉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노년을 보내는 주거가 아니라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사이 공간과 처마의 높낮이 조절에 의한 수평공간의 다층화, 그 틈새로 투과되는 빛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유도했다.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와 외부의 돌담길, 마당의 형태적 현대화로 일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퍼포먼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삶이 더욱 풍족하고 재미있게 연출되길 기대했다. 낮의 빛과 녹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밤의 인공적인 빛에 대해서 고민했다. 도시의 자기과시의 빛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박하지만 축복하는 빛에 의해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길 기대한다. 건물이 작은 자연이고 또 큰 자연의 일부로 연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싶은 주택이다. 시종일관 건축가의 일관된 의지를 맡겨준 건축주에게 감사드린다. 제한된 여건안에서 최선의 과정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좋은 협력자들이 생각난다. 지어지는 과정에 새겨지는 시간의 흔적은 담과 인내를 담보로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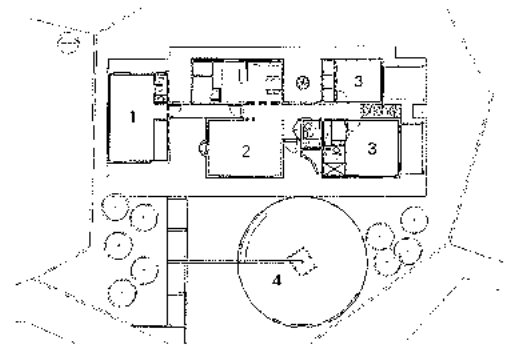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 303번지		
대지면적	744.00㎡		
건축면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건폐율	17.30%	규모	지상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원윤정, 박주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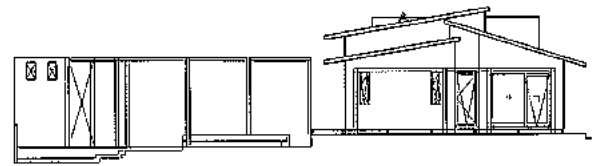


- 1. 창고
- 2. 거실
- 3. 방
- 4.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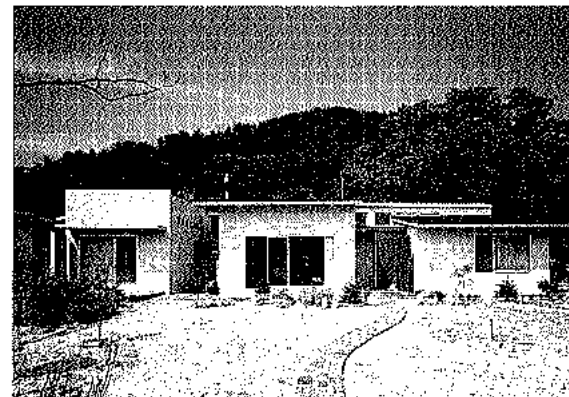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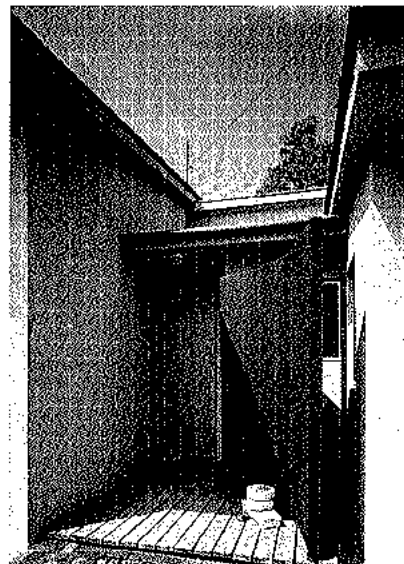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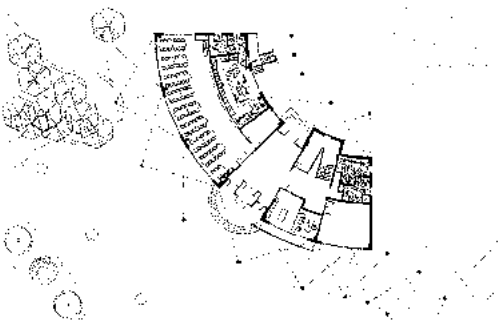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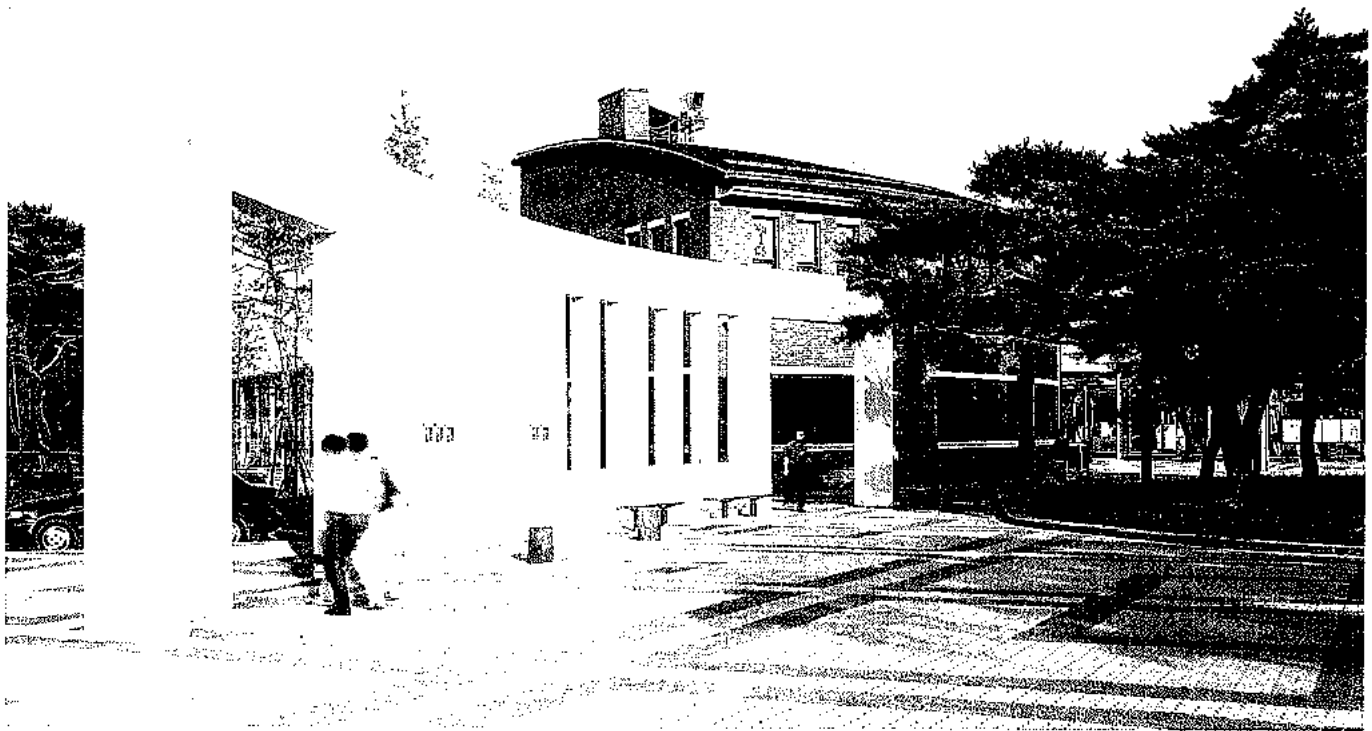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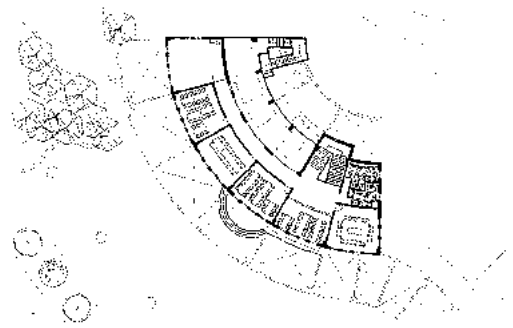


동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당감동 새마을금고

Danggam 4 dong New Community Fund

최영석 / 우석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Young-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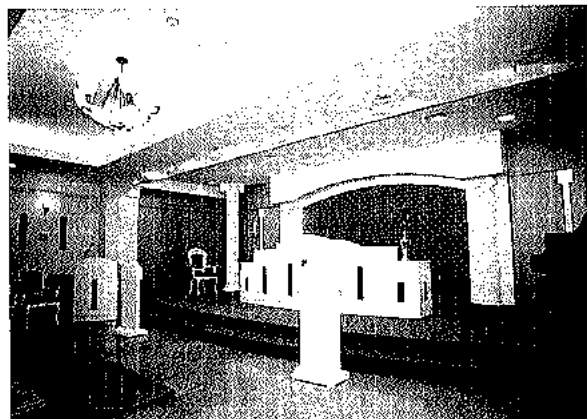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T자로 교차되는 건너편의 아파트단지를 가진 동서방향의 길이 34m대지로서 도로축을 따라 건물배치의 축을 설정함으로써 건물의 방향성과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1층 금융업소의 출입구를 양측에 두어 지역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고 차량동선은 측면 4m 경사도로를 이용하여 주보행동선과 분리하였으며, 배면부분에 주차출입구를 두어 차량진입을 하게 하였다.

2,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양측에 계단을 이용하여 각층에 진입하고, 314㎡의 넓은 공간의 임대문제를 고려해서 중앙에 칸막이벽을 설치할 경우 분리임대운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층은 설계상 관람집회시설을 두어 지역주민을 위한 소회의 및 집회시설의 공간구성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새마을 금고 영업과 연결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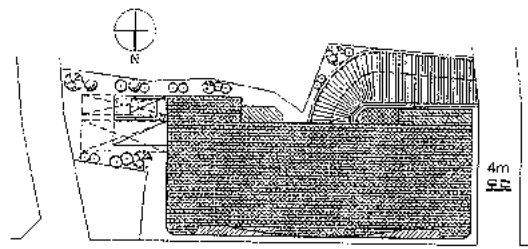
그리고 입면은 중앙부분을 돌출시켜 정면을 곡면처리하고 금융업소특유의 웅장함과 지역주민의 믿음성을 강조코저 컬러유리 및 화강석을 마감재로 사용 건물전체의 느낌을 안전하고 웅장함을 강조해 보았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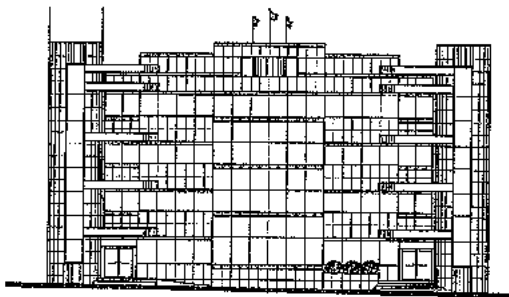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734-5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66.75㎡
건축면적	325.11㎡
연면적	1,582.52㎡
건폐율	57.47%
용적률	223.265%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THK24화강석 버너구이, THK16복층유리
설계담당	최중원, 박웅오, 김민수
감리담당	최중원
시공	성원종합건설(주) 김중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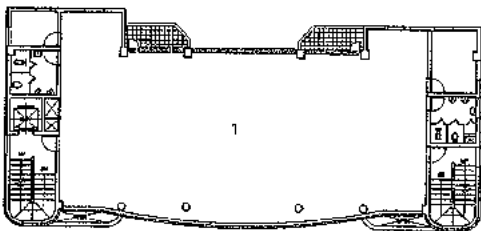


8m도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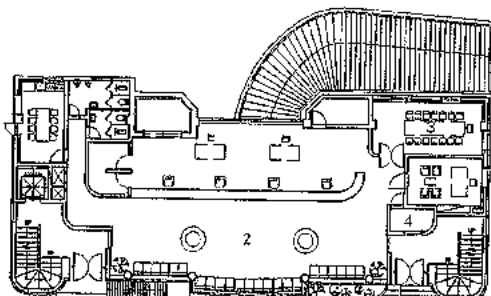


정면도



2, 3층 평면도

1. 근린생활시설
2. 영업장 및 객실
3. 회의실
4. 자동차 코너



1층 평면도



남강빌딩

Namgang Building

김효만 / 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by Kim Hy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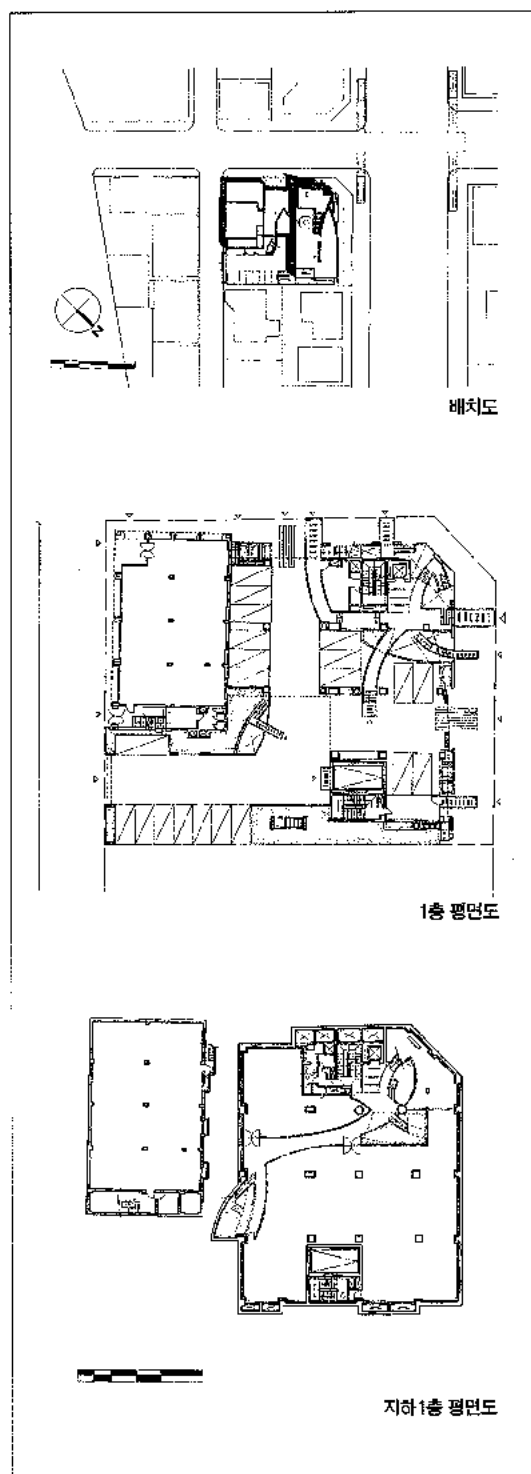
남강빌딩은 2층에 입주할 패밀리 레스토랑이 전 제됨으로, 그 레스토랑업체와 건축주 즉, 둘의 건축주를 가진 프로젝트였다. 먼저, 레스토랑 경영자로 하여금, 이곳 이 건물에서의 사업성을 확신, 결심하게 할 플랜(Plan)을 제안해야 했고, 또한 건축주를 위해 양화대로변 홍대입구 사거리 모퉁이라는 상업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이 대지에 걸맞는 건축을 그려내야 했으며, 이러한 중요한 대지 위의 건축은 필자에게 건축가로서 무거운 행복감에 흥분된 작업의 긴장된 연속이었던 것으로 회상된다.

건축주인 황사장은 필자와 고교동창이며, '남강'은 그의 부친인 회장님의 호이다. 평소에 수주를 위한 사교나 정보에 둔한 필자는, 그로부터 의뢰전화를 받기전까지는 그가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며, 더구나 그 안에 총동창회사무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르는 동문은 필자밖에 없는 듯 했다. 이에 더해 시공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님도 같은 동문이 되어 동문팀들의 우호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건공사과정의 어려움을 중화시켰을 것이다.

널리알려져 있는 제과점이 들어있는 기존의 4층 적벽돌건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형식으로의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주층인 2층의 패밀리레스토랑은 기존건물까지 브리지형식으로 연결되어, 대지가 접한 3면도로 모두를 섭렵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차를 위해 1층은 모두 피로티가 되었고, 이것들이 레스토랑을 위해서 전제된 프로그램이었다.

필자가 남강빌딩에 붙여넣고 싶은 생명은, 건축의 도시적 친화였다. 활기있는 사람들의 도시적 행위가 일어나, 양화대로변을 밝고 분주하게하는 일단의 도시조경적 풍경의 일익이 되게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간적, 조형적 생명력을 가진 랜드마크적 건축을 만들어, 이 대지에 건축적, 도시적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대지 후면의 소로는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있어서 하루종일 활기로운 도시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양화대로변과 홍대입구측 도로변은 대로이고, 큰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무표정한 거리이며, 활기없이 죽어있는 도시적 인상이 짙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당연히 상업시설로 계획됐는데 이는 대지가 가진 잠재적 상업성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상업시설이 가지는 건축적 속성으로, 건축과 주변도시를 강하게 연결해 주므로써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따라서 이 대지에 도시적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조형적으로 주요소가 되고 있는 4층이상의 매스는 같은 평면을 가진 사무소로 되어있다.

상업적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두가지의 방식, 즉 유리상자의 투명성, 도로의 연장인 "길"의 개념으로 외부계단의 수법이 적용되었다. 저층부 상업시설속, 투명유리 속의 사람들과 그밖의 사람들, 즉 건축속의 사람들과 도시속의 사람들은 공간적, 시각적으로 상호교류하고, 교감, 동일시되며, 서로의 호기심을 주고 받게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이들 저층부의 각 상점들의 집입을 도로의 연장된 길인 외부계단으로 연결, 상업시설들의 상업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살아서 움직이는 도시조경적 풍경으로 작용하여, 도시와 건축은 서로 어울리며 건축이 도시속에 뿌리박히게 되고, 이로써 활기로운 도시적 풍경을 연출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적 의도였다.

투명유리상자, 외부계단, 누드엘리베이터, 선권가든 등의 건축적요소들을 동원해, 임대건물로서의 임대효율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의 공유부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적 프로그램을 시도해 본 것이며, 이것은 전용면적에 연연하지 않았던 건축주의 과묵한 이해와, 기정화된 일층 피로티의 개방성, 상업적으로 개방적 속성을 가진 2층 패밀리레스토랑의 존재가 이를 자유롭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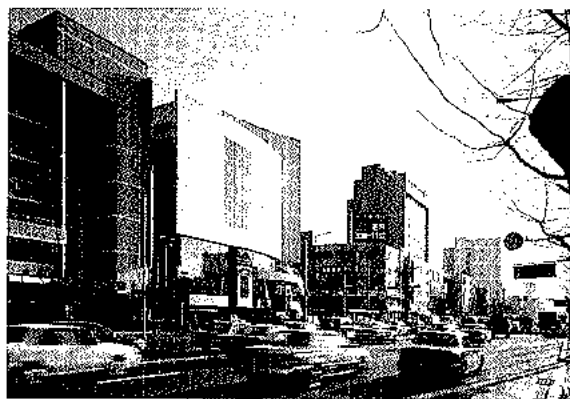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함은 대지위치의 중요도에 의한 식별성에 근거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형적 목적이 있어야 했다. 역사성, 장소성에 연유하여 마포나루, 뚝배의 이미지를 떠올림은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어렵지 않은 발상이었다. 결국 상층부 사무실부분은 각기 그 움직임의 각도를 달리하는 3개의 휘어진 금속성 은빛날개로 움직이며, 저층부의 상업시설은 투명유리상자와 검은 오석기둥으로 상층부와 극단으로 대비되어, 상층부는 떠있는 곡면날개조형이 강조되고, 저층부는 공간적 체계가 강조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남강빌딩에서의 투명유리상자, "길", 곡면날개조형의 적용은 필자가 해온 그 이전 작업들의 연장이었다.

이는 최근 모대학 특강을 위한 작품소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각한 것으로, "천안 TP-1"에서 투명유리상자의 투명성이 해주는 상업적 도시친화성을 경험하였고, "길"로서 의



우측면도



부계단의 상업적 동선으로서의 효과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시도한 바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바선제'에서 3쪽의 움직이는 곡면날개지붕을 시도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사후에 감지하게 되었다.

기본설계안은 늘 그렇듯이 어렵게 심의를 통과하고, 허가를 득한후 시공사 선정에 해야했다.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지만, 최단시간, 최소비용을 제안한 건설회사가 다수였으나, 건축주는 오히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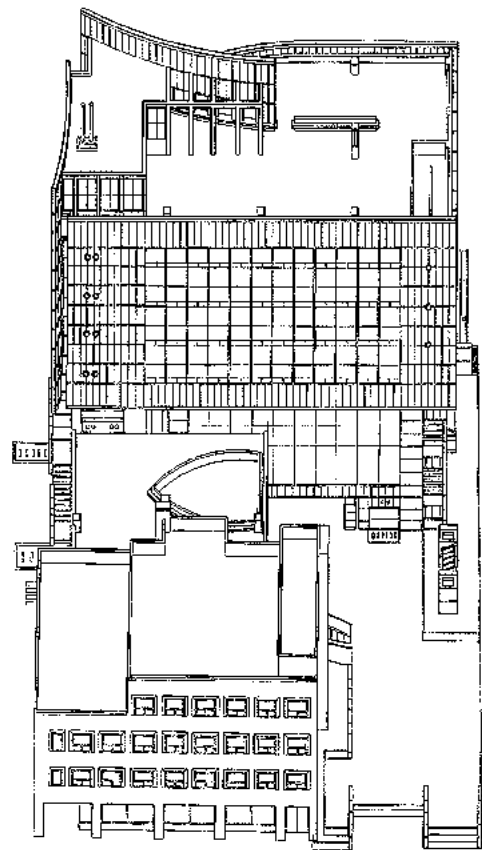
이어 건물은 착공되었고, 필자는 감리자로 이름을 바꾸어 등장해야 했으며, 이때부터 시공자와의 씨름은 시작됐다.

원칙이 아닌, 도면대로가 아닌 작업의 수정요구는 전 공사과정에 걸쳐 있었고, 관습적으로 일을 해온 공사현장 작업자들의 기존가치관을 건드려 이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특히 굴조의 시공에 있어서는 현장까지 나와서 직접 줄자를 들이대고, 철근의 갯수도 세는 등, 그것이 수정된 상태를 보지않고는 떠나지 않는 교과서만 주장하는 "유치한 설계사무소장"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철근배근지침, 콘크리트품질확보지침을 강조하며, 골조공사의 전과정을 수사관처럼 보냈다. 마감공사의 대부분인 알미늄복합패널의 업체는 가장 곤혹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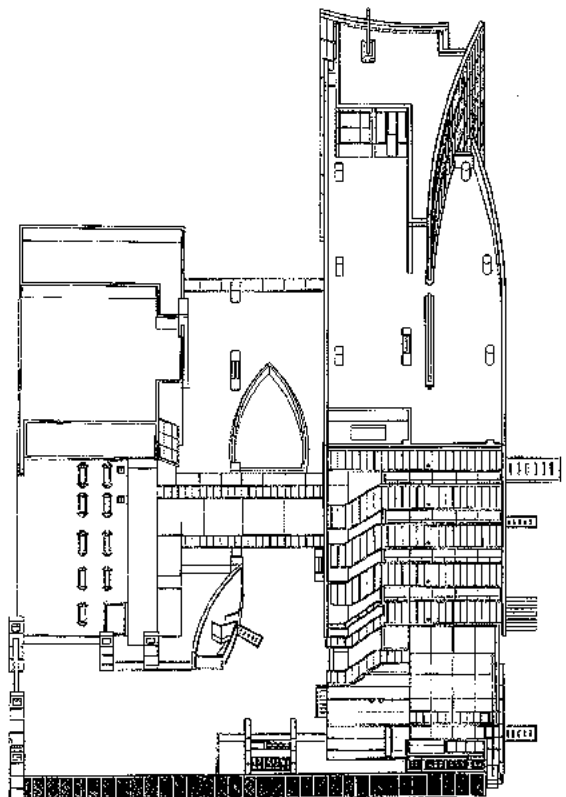
그것이 접착될 부분이 모두 그 반경이 다른 곡면이고, 현장시공상태도 도면의 반경과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정성들여 곡면가공한 알미늄패널이 맞지않아 다시 공장으로 가져가 재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들은 준공후에도 계속 남은 작업과 수정을 해야할 정도로 이 건물에서 학을 떼었다.

공사과정중에 2층 패밀리레스토랑의 인테리어설계를 의뢰받게된 것은 행운이었다. 건축주인 황사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일로, 일로서의 수주이기도 하지만, 남강빌딩의 주층으로서 2층의 모습을 처음에 의도한 개념으로 실현하여 실내공간으로까지 개념을 구체화할 수있는 기회였으니 이는 남강빌딩 전체 건축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다. 이미 오랫동안 부근에 위치하며 상권을 굳힌 경쟁적 레스토랑과의 극명한 차별화, 그들과 다른 음식의 서비스 컨셉이 이 패밀리레스토랑업체의 경영전략이었다. 이 "판다로사"는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고 부패식 샐러드바를 제공하는 컨셉을 가진 남녀노소가 고객이기를 원하는 가족식당이다.

개념의 설정이 필요했다. 인간의 가장 쾌적한 식사환경은 "자연속의 식사"라고 규정하고 전체를 세부부의 식당홀로 구분하여, Palm Tree Garden, Pine Tree Garden, Ivy Terrace로 각 식물의 이름을 가진 특성있는 홀을 정원시하여,



엑스노메트릭 1



엑스노메트릭 2

각 식물의 기능있는 조형물들이 넓은 식당홀의 요소들에 배치되어 또 다른 공간을 구획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홀의 중앙에는 대형 샐러드바가 위치하며 이것은 실내공간의 구심점이 되며, 실내 분위기 및 조형을 주도한다.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 주도적 재료로 밀러스 스텐레스판을 사용하여 샐러드 바 및 각 조형물들은 이 스텐레스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배경으로 이에 극단되는 부드럽고 친근한 목재와 녹색카펫이 바닥과 벽의 주재료로 채워져 있어 현대적 감각을 맞추었다.

이 기본개념의 그림이 통과되는 데도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경영자인 사장과 간부들은 물론 모그룹계열 사업이기 때문에 그룹회장까지 모두를 설득시키기에 분분했었다.

결국 어렵게 통과하고 수정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쾌감을 맛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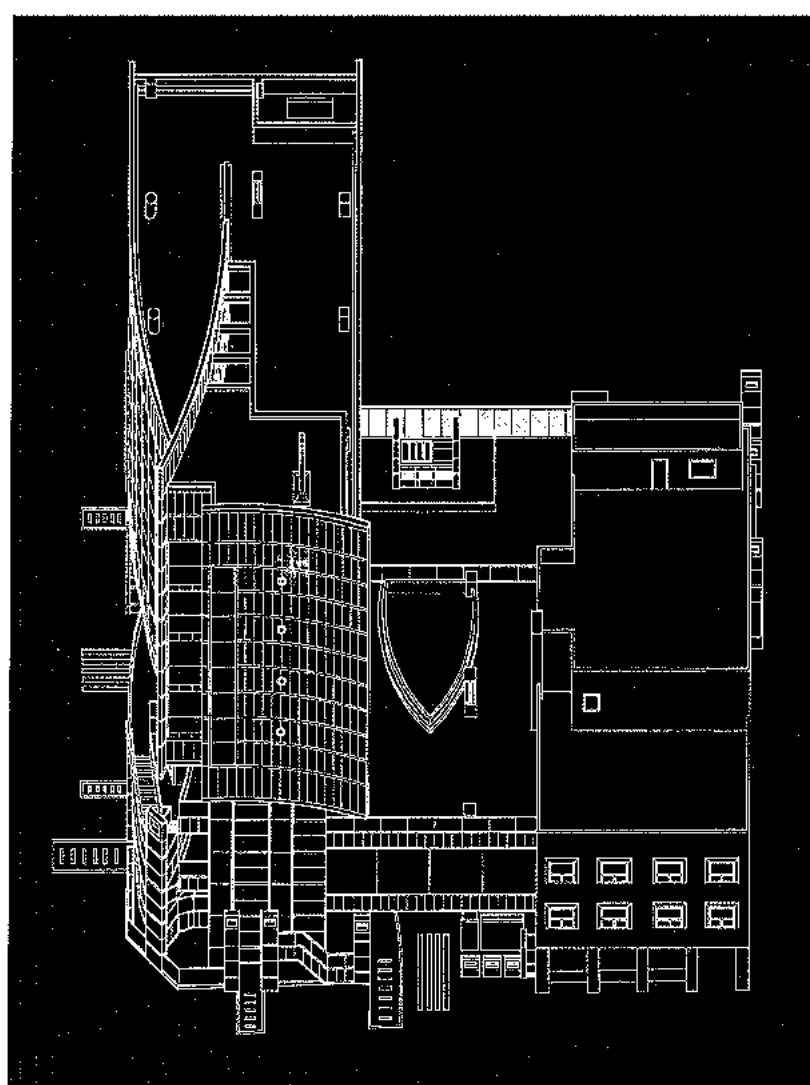
만약 다른사람이 인테리어디자인을 했다면 아마 건축과의 연계성의 문제에서 정도를 덜하였을 것이며, 지나친 상업홍보적 간판, 차양 등의 일방적 사용으로 건축을 손상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후 필자를 안도감에 만족시키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건축이 준공될 즈음 전후기간은 간판의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이다. 각층에 입주예정인 업체들은 모두 대로변 정면, 가장 큰면적을 차지하려는 일방적 욕심에 차 있었다. 건물정면 포인트 모두가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배될 수도 있는, 필자에게는 간박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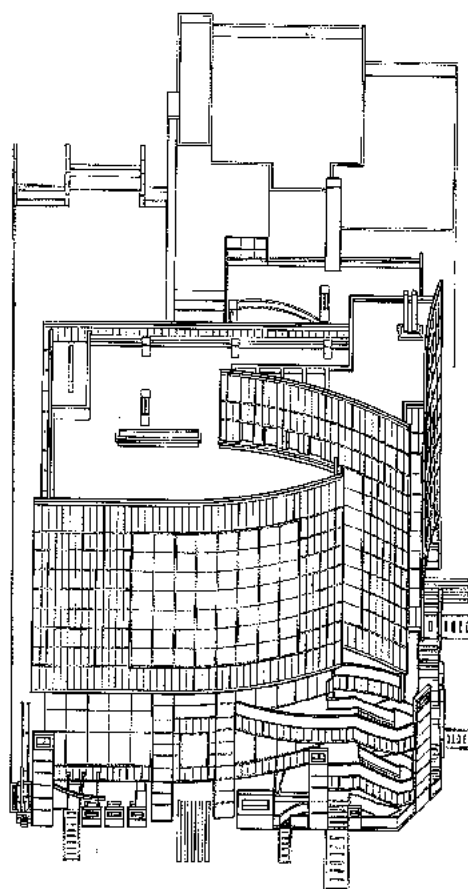
그러나, 건축주는 입주업체와 간판의 내용이 포함된 임대계약을 하기전에 입주업체와 필자를 만나게해 필자로 하여금 간판에 대한 승인을 하게 하므로써,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현명함을 택했다.

각개업체를 만나기전 그들이 원하는 부위와 크기에 비금하여 만족될 수 있는 다른 위치를 찾고 그 디자인까지 제시하는 안의 스테디를 했었고, 그들에게 홍보효과가 같은 범위에 있는 별차이 없는 간판크기에 연연함의 무모함, 그들이 들어있는 건축물의 이미지도 간판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는 중요성, 간판은 건축물의 일부로 인식되어, 건축과 간판은 공존해야 한다는 등, 간판면적배분 및 위치의 순서와 공정성 등을 통하여 혼신을 다해 그들을 이해시키고, 언쟁도 했으며, 결국 그들은 모두 공감하며 대부분 따라주었다.

상층부의 날개에는 어떤 간판도 붙이지 못하게하며, 그것들을 오히려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기를 바라는 저층부의 상업시설 존(Zone)으로 배치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합의된 간판은 또 폭이 넓지않은 광고법의 해석에 반해 허가가 나지않은 경우도 있었다.



엑소노메트릭 3



엑소노메트릭 4

이를 통해 광고법의 문제를 체험하게 됐는데, 이 법은 크게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간판들을 붙이는 위치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예를들면, 가로간판은 천편일률적으로 층과 층사이에 붙여야 하며, 세로로 붙일 수 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몇부분이며, 세로로 붙이고 싶으면 돌출간판을 해야하며, 자유롭게 디자인된 지주간판은 허가나 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법의 문제는 간판이 부착될 건축물의 형태를 수평으로 창이 각종 일률적으로 나오는 상자형의 단순한 형태를 전제로 하였다는 것과, 도시가로변의 미관이 건축물과는 별도로 간판들만 정렬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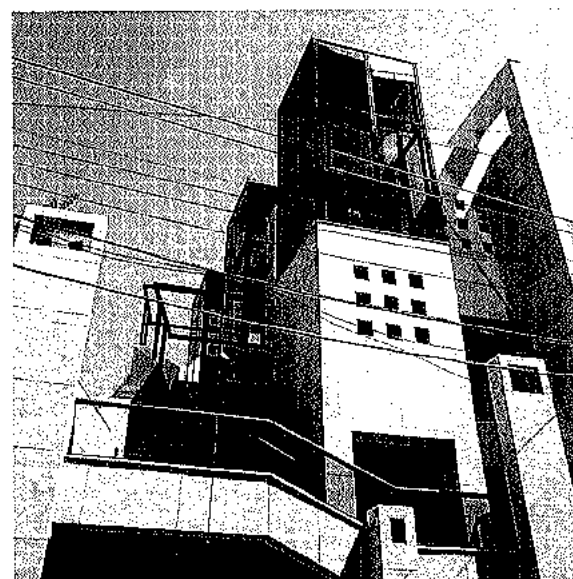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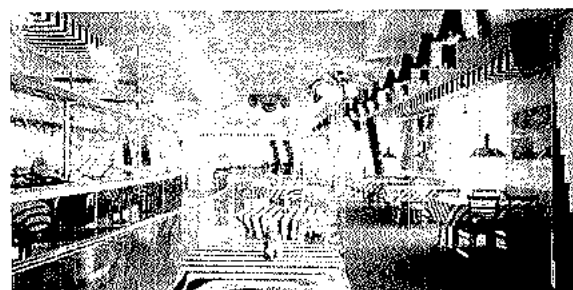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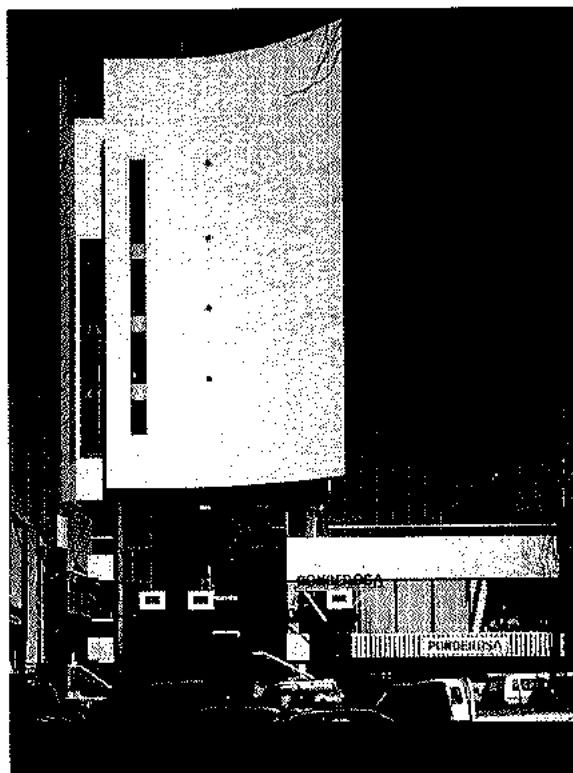
당연히 도시속 건축의 형태는 다양해질 것이며 그 경우의 수는 분류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고, 간판도 건축의 일부로서, 건축과 연관되어 일체화 되어야 하며, 간판의 정렬이 아닌, 일체된 건축물들이 도시맥락을 형성케 해야할 것이 바람직하며, 큰 원칙만을 공유하고, 디테일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간판에 대한 선택 및 허가권을 그 건축물의 건축가에 부여하는 것이 광고법이 목적하고 있는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 경험이었다.

어쨌든, 남강빌딩의 공사말기에는 건축과 인테리어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두가지의 감리에 분주했던 날들은 건축가로서 보람있는 기억들로 자리잡고 있다.

준공후 남강빌딩 지하층에 스파게티와 피자전문점이 들어옴으로써 각층 모두 임대되었고, 2층 패밀리 레스토랑은 개업일에 원하는 숫자의 고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필자는 그때부터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도 남강빌딩의 관리적 조연자의 역할을 하며, 건축주와 협력하여 이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 남강빌딩의 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화폭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생각을 여과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이는 역시 건축주와의 믿음의 관계가 해준 일이었을 것이다.



천안 TP-1

일반개요

건축설계 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설계담당 안영란, 김태섭, 권오현, 김진환, 윤진우, 김성임
 구조설계 최근철
 기계설비 한국설비
 전기설비 우림전기
 감리 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담당: 김태섭)
 건축주 남강상사(황경배)
 시공회사 (주)쌍용건설(담당: 박익수, 임용규, 정민섭)

건물개요

위치 서울시 미포구 동교동 162-4, 15, 16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역지구 근린상업지역, 2종 미관지역, 방화지구,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1,833.7㎡
 건축면적 994.6㎡
 연면적 6,449.1㎡
 건폐율 54.2%
 용적률 225.4%
 규모 지상7층, 지하3층
 최고높이 27.4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9대
 설계기간 1995. 1~8
 공사기간 1995. 8~1997. 1

인테리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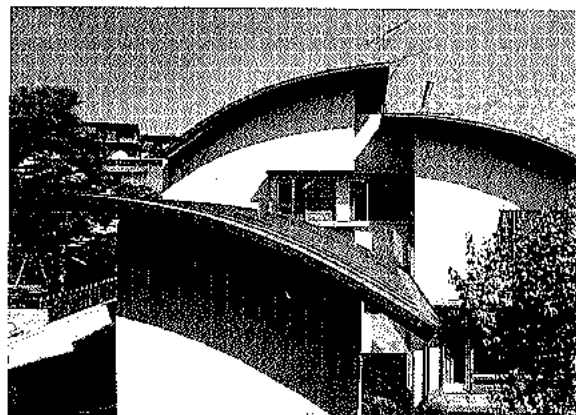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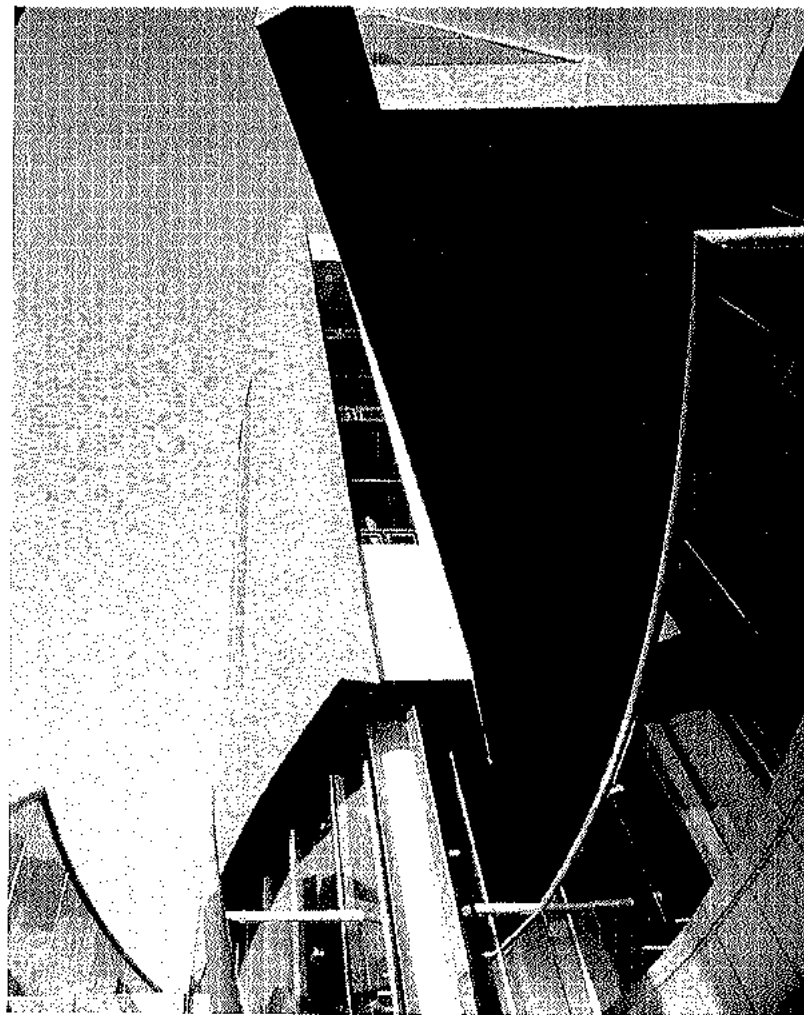
설계 이로재 김효만 건축연구소
 설계구역 2층 패밀리 레스토랑(판다로사)
 설계담당 김성임, 지웅일, 오윤주, 강정훈, 조수남
 시공 (주)심디자인
 주요마감 바닥 - 카펫, 인조대리석, PVC목재타일, 벽 - 색락커, 메이플 우드 패널, 천정 - 석고보드위 색락커, 메이플 우드 패널

설비개요

냉난방 팬 코일 유닛
 물탱크용량 지하 저수조 - 70톤, 고가수조 - 21톤, 수전용량
 수전전압 600KVA, 22.9KV
 전동전압방식 380 / 220V, 3상 4선
 발전기용량 170KVA, 136KW
 엘리베이터 전망용 15인승
 카리프트 유압식 중 소형 주차용 1대

재료

내부마감 바닥 - 오석, 무석면 타일, 벽 - 알루미늄 본드, 오석, 인조석, 천정 - 알루미늄 천정재, 암면흡음텍스
 외부마감 바닥 - 오석 물갈기판, 검정 풍자갈 박기, 벽 - 알루미늄 본드, 오석, 커튼월, 천정 - 알루미늄 천정재, 알루미늄 본드, 스테인레스 메쉬판
 방수 지하층 - 액체방수 2차, 옥외바닥 및 지붕 - 도막 방수
 유리 18mm 복층유리, 24mm 복층유리



비선재

여행일지

My Travel Notes

동유럽의 역사·문화도시 -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양상현 / 서울대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수로
by Yang Sang-Hyun

10월 31일, 맑음

여행은 언제나 그렇듯이 약간의 호들갑스런 흥분을 동반한다.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잠도 좀 설치고 비행기 시간에 맞추느라 긴장도 하고, 여권이랑 빠진 게 없나 몇 번씩 가방을 확인하고...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오후 1시 김포를 떠났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육중한 쇠덩이가 어떻게 날까 하는 신비로움과 더불어 닫힌 공간 속에서 지내야 할 몇 시간(정확히는 열두시간)이 끔찍하게 다가왔다. 가뜰이나 더 괴로운 것은 옆자리의 정체를 외국인 일당들이다(이들의 언어를 전혀 짐작할 수 없어 어느 나라 녀석들인지 밝히지 못하는게 아쉽다). 빈 자리에 버젓이 눕지를 않나, 기내식을 먹자마자 담배를 피워대고 저희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더니 박수까지 치고 난리다. 조용한 우리 일행, 자랑스런 한국인...

중간의 경유지는 암스테르담이었다. 암스테르담 공항의 분위기는 김포와는 사뭇 달라서 여행객의 흥분을 적당히 고조시켜주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냄새가 풍기는 디테일들도 그렇고 면세점이나 간단한 음식점들도 경유 승객들의 눈길을 끌만 했다. 도착, 머뭇, 떠남... 이런 행위들이 엉켜있는 장소가 적당히 들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소란스럽거나 혼잡하지 않은 것은 큰 매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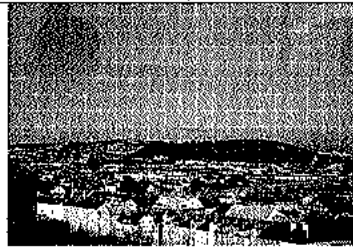
목적지 프라하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간 밤 아홉시, 시내의 숙소까지 오는 길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길가의 집들엔 불빛이 거의 없다. 현지 가이드의 말로는 이곳 사람들은 밤 열시면 다들 잠자리에 든단다. 오전 여덟시정도에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니 우리보다 한시간쯤 빠른 생활리듬을 가진 모양이다. 서울은 지금쯤 아침 여섯시가 됐겠다.

11월 1일, 비, 오락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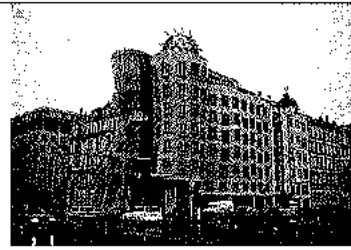
프라하의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여기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익숙해진 탓인지 우산을 쓰는 이가 별로 없다. 프라하는 도시 중앙의 구시가지와 그를 둘러싼 신시가지로 나뉘고 있다. 구시가지는 9세기 -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기쯤 - 이후 형성된 유서깊은 곳으로 역사적 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글자 그대로 건축박물관과도 같다. 시가지를 지나가다 프랭크 게리의 National Netherland Building에 들르게 되었다. 유리로 처리된 원통형 매스가 인상적인 이 건물은 도시의 역사적 문맥에 대하여



암스테르담 공항



프라하 구시가지



프랑크 게리의 National Netherlands Building

화목한 동거를 이루고 있다. 기존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평의 따라든가 격자창호의 연속 등의 어휘가 변형되어 이 건물의 디자인에 차용되었다. 파격적이고 낯설면서도 어딘지 이 도시의 분위기를 본뜨고 있는 이러한 실험적 작업은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프라하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구시가지 광장이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길들이 나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차량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도로이다. 그 골목길의 좁은 틈을 따라 언뜻언뜻 보이는 광장의 건물을 눈에 담으며 걸음을 옮겨 열린 광장으로 나갈 때의 감흥은 신선하다. 기껏해야 폭 4~5미터를 넘지않는 골목길에서 좌우 건물들의 디테일까지를 느끼며 걷다가 갑자기 툭 트여 열리는 광장이 주는 스케일의 확장은 시원한 눈맛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구불구불한 옛 골목길이란 그 마디마디에 놓인 우물가, 타작마당 등이 주는 즐거움과도 같은 보행의 기쁨이다. 그러나 이곳 광장의 구성은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것이어서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각 건물의 정면이 방사형으로 둘러싸여 광장과 건물, 또는 건물과 건물끼리가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열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경우는 정(丁)자형으로 교차되는 길의 마디마디에서 기능적 필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마당이 마련되며 각 건물들은 담장으로 차단되어 마당과 집의 연결은 길이라는 매개공간을 통하여

서만 가능해진다. 개별주호에서 열린 공공공간인 광장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우리의 전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전통마을에서 개인은 자신의 주거에서 빠져나와 짧은 길은 골목이라는 사회화의 매개장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모이는 저잣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당과 광장에서 느껴지는 공간의 체험에도 차이가 있다. 다분히 주관적일 터이지만 무리쉬인 분석을 털어놓는다면, 이 구시가지광장 가운데에 서서 방사형으로 도열한 건물의 입면들을 훑어볼 때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행복한' 도취와 동시에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세상으로 내버려진 자아'라는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작은 마당들에서 느껴지는 것은 집과 길, 그리고 마당이라는 위계 구조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길을 끄는 골목의 구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속의 자기 확인이라는 '편안한 정체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의 차이는 도시 공간 구성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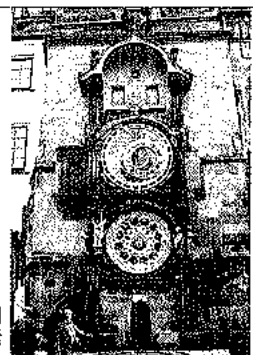
이 광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구시청사의 천문시계탑이다. 이 탑은 14세기에 세워졌으며 여기에 부착된 시계는 15세기에 제작된 것이라 한다. 세로로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위의 것은 당시의 천동설적 우주관에 근거한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아래의 것은 별자리와 농사시기를 표현하는 일종의 달력파도 같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매시 정각에 이 시계탑이 보여주는 소공연이다. 마침 11시 정각이



프라하 구시가지광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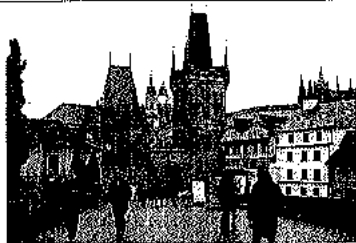
골목에서 구시가지광장쪽을 본 풍경



구시청사 건물의 시계탑



구시가광장의 틴교회



몰다우 강을 잇는 칼레르 다리



언덕위의 프라하 성

되자 시계탑 상부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닭이 울며 계시록에 등장하는 해골모양의 조각이 종을 쳐 긴장감을 조성한다. 익살맞기도 하고 극성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다. 장영실이 1434년에 제작한 자격루가 남아 있다면 아예 못지않았을 터인데...

구시가광장의 동쪽에는 두 개의 고딕식 첨탑을 지닌 틴교회가 서 있다. 1365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광장을 거닐던 중에 느닷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틴교회의 탑 한쪽 창이 열리며 종치기가 줄을 당기자 광장 가득히 종소리가 사람들의 여민 외투를 적시며 불결처럼 퍼져나간다. 발걸음으로 소란하던 광장이 천상의 언어로 차 오른다. 침묵의 건축은 이렇듯 음악을 만나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프라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블타바 강, 즉 몰다우 강이다. 체코 국민음악파의 거장,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2장이 곧 '몰다우'인 것. 그 선율만큼이나 유장하게 강은 흐른다. 이 강을 잇는 칼레르 다리는 중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406년에 건설되었다.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폭 10미터의 다리로 한가로이 '나의 조국'을 읊조리며 몰다우 강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없다.

다리 양편에는 역사적인 성자들을 모델로 한 성상들이 난간 위에 늘어서 있다. 한편에 15개, 다하면 30개.

세례 요한과 성 프란체스코도 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있다. 이 번다한 성상들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문화적 이질감에 더하여 무언가 뒤틀리는 심상 때문이다. 때로 이런 모습의 군상들이 종교를 앞세워 식민의 역사를 강제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왜 이 대목에서 영화 '미션'의 원주민 학살장면이 떠오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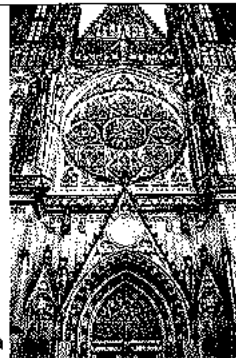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프라하 성과 그 안의 고딕양식의 성비트 성당, 로마네스크양식의 전형을 보이는 성이지 성당을 들른 다음 아돌프 로스의 빌러하우스로 향했다. 이제껏 보아온 고색창연한 프라하의 건축물과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로스의 콘크리트 박스. 그 외피에는 시각형의 무심한 창구멍 외에는 아무런 디테일도, 아무런 장식도 가해져 있지 않다. 1929년에서 30년 사이에 설계되었다고 하니 당시 프라하 사람들이 느낀 당혹감이 어땠을까. 엄청난 비난이 가해졌을 터이고 이에 맞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간한 자신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내 근대의 건조한 표정이 난폭하게 렌즈로 침투해왔다. 로스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 집류의 건물들이 웅감무쌍하게 수행한 수많은 세포본결과 그 이식의 결과가 서울의 질리도록 수많은 콘크리트 박스들 일진데 눈가에 씩씩한 여운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가 지기 전, 세 개의 체코 큐비즘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었다.



몰다우 강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배경이었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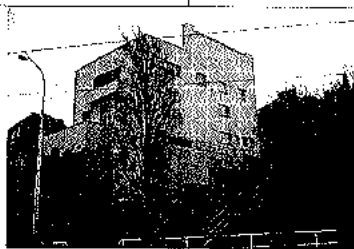
주택의 다락방
(사는 이의 여유로운 흔적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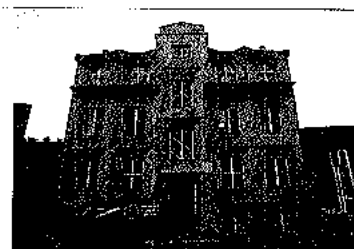
성 비트 성당 Katedrala sv. Vít



성당 내부(어두운 공간은 제단쪽의 빛을 강조)



아름프 로스의 빌라하우스



프라하에 있는 체코 큐비즘 건축물

이들 작품에 일관된 것은 다면적인 입면 구성으로, 종이를 구긴 것과도 같이 하나의 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피카소의 입체파 회화에 대한 건축적 해석이었다. 로스의 새 시대에 대한 자신감이 아들에게도 관류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겁없음, 아방가르드적인 도전이 신선하다. 프라하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11월 2일, 맑음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았다. 유럽여행 중 오늘처럼 맑은 날을 만나는 건 행운이란다. 어제는 그리도 비가 오락가락 고생을 시키더니미는... 오늘은 체코의 프라하를 떠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여정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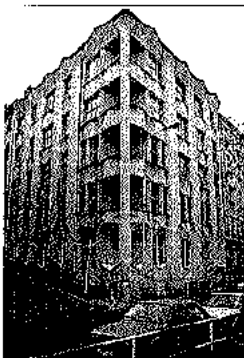
날씨가 맑아 유럽의 전원풍경이 버스의 창밖으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낮게 깔린 구름으로 숲과 초지가 끝없이 이어진다. 숲은 나무들로 뽕뽕하여 밝게 노출된 초지에 비하여 내부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느껴진다. 숲은 그들의 문학에 종종 등장하듯이 정령들의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산이 산신의 자리라면 이곳에서는 숲이 그러한 역할을 맡는다. 인간이 점유한 일상의 장소는 마을과 들, 경작지이며 숲은 비일상의 장소, 정령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첫 방문지는 텔즈라는 곳으로, 유네스

코에서 지정한 13~16세기에 이루어진 중세도시다. 중앙의 광장을 둘러싸고 건물들이 도열해 있으며 성벽 대신 빈틈없이 이어진 건물의 외벽이 방어의 역할을 맡는다. 이 바깥으로 해자가 깊게 둘러쳐 있으며 외부에서는 다리를 통하여 성 내부와 연결된다.

일행이 탄 버스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에 도착했다. 육로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것은 낯선 느낌을 준다. 두 나라 사이에는 우리처럼 비무장지대도, 철책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가 국경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땅이 펼쳐지며 역사속에서 무심히 규정된 경계가 소위 국경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땡땡기의 유혹이 강자들의 머리 속에 떠나지 않았을 터이다. 술한 전쟁의 배경에는 이러한 지형적 조건도 한 몫을 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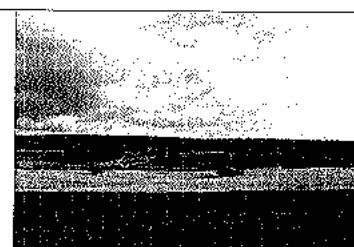
체코의 국경을 넘으면 오스트리아. 이 나라는 영구 중립국으로 일찍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진행하였다. 수도 비엔나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길가에 늘어선 간판들이다. 그 수나 화려함으로 프라하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외곽의 풍경에서도 체코보다 경작지의 밀도가 높은 것이 확인하였고 농가 역시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결국 자본화는 개발도의 고밀화라든가 선정적인 상품화, 그리고 그에 부수된



프라하에 있는 체코 큐비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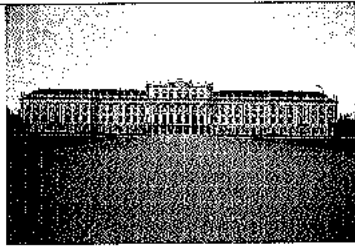
프라하에 있는 체코 큐비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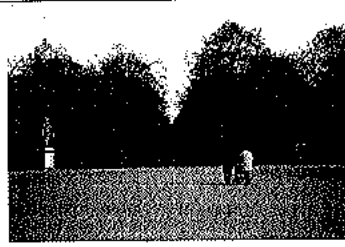
동유럽의 들판과 숲



중세도시 텔프의 광장과 건물



비엔나의 헨브른 궁



헨브른궁 정원의 나무

건축의 현대화로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다.

비엔나 첫날의 오후 시간은 헨브른 궁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 궁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별장으로 15세기 중반 로코코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의 바로크 양식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기하학적인 정원의 구성은 우리의 조경수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의 것이 꾸미지 않은 듯 꾸미는 자연스러운 구성을 요체로 한다면 이들의 수법은 철저하게 인공적인 구성을 보인다. 평면적인 도형도 완전한 대칭의 기하형을 취하며 나무는 벽처럼 다듬어지거나 기하형의 입방체로 꾸며지기도 한다. 나무를 저리도 고생을 시키다니..., 자연스러운 성장을 보고 즐기는 우리의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있다.

아간에는 케른트너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이 길은 비엔나의 중심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의 공간이다. 거리의 곳곳에 노천카페가 있어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며 분수 등의 시설도 거리의 활력을 고조시키고 있다. 프라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거닐고 있으며 건물의 조명은 밝고 쇼윈도우도 화려하다. 길은 다중이 걷기 충분하도록 넓어 보행의 즐거움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 거리에서는 로스의 아메리칸바와 더불어 한스홀라인의 작품이 눈에 띈다. 두 개의 보석가게와 슈테판 성당 앞의 Haas House가 그것이다. H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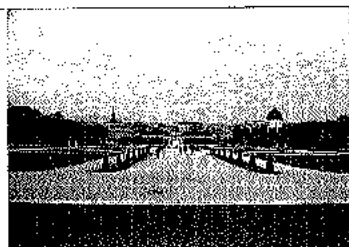
House는 유서깊은 슈테판 성당과 인접하여 그 역사적 맥락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과감하게 사용된 반사유리와 지붕의 처리 등은 다른 건물의 디테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주위의 가로분위기를 넉넉히 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당김음의 역할까지 해낸다.

역사성을 반영한 건축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어려운 과제라면 거리의 National Netherland Building과 홀라인의 Haas House는 모범적인 해답의 하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1월 3일, 맑음

오전의 답사는 비엔나 정신병원 내에 있는 오토 바그너 설계의 성당에서 시작되어, 로스의 골드만과 살라트 빌딩, 홀라인의 보석상점을 둘러본 후 슈테판 성당의 관람으로 이어졌다.

슈테판 대성당은 시내의 케른트너거리에 위치하며 높이 137미터에 달하는 장대한 고딕건축물로 12세기 중반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수세기에 걸쳐 증·개축으로 완성되었다. 비엔나의 상징으로 불린다. 지금도 한쪽에서 수리가 행해지고 있다. 이 성당의 역사가 곧 이 도시와 나라의 역사가 된다. 진정 부러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이다.



벨베데레 궁의 바로크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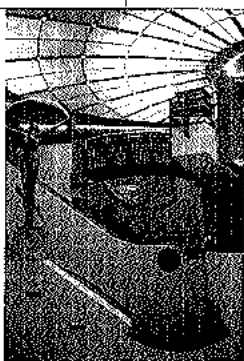
비엔나 중심가 케른트너 거리



가로의 분수조형물



한스콜라인의 Hass House



Hass house의 내부



슈테판 대성당

그것은 오래 묵은 것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건축 속에 기꺼이 장구한 시간을 담아내고자 하는 이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다. 슈테판 성당이 우리의 부석사에 비하여 월등하다거나 하는 것은 평가의 잣대를 통일시키지 못하는 한 타당한 서술이 되지 못한다. 진정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뿌리깊은 존중에서 출발하는 이들의 건축관과 가까이 도시가 자신들에게 강제하는 역사성의 맥락을 거부하지 않는 수용의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자발적인 것이든, 강제적 법규에 의한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사와 건축에 대한 그들의 관점의 외화가 곧 이 도시의 건축물인 바 도시 형성기의 건축에서부터 다양한 시간의 퇴적층을 보이며 차분한 발전을 꾸려온 이들의 도시가 새삼 부러워지는 것이다.

내부의 시설은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할지라도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 외관의 통일을 통하여 거리의 분위기를 이 도시답게 하는, 서로에 대한 기꺼운 참조, 역사에 대한 의존이야말로 유럽의 많은 도시가 그러하듯이 프라하와 비엔나가 나에게 일깨우는 가르침이 되었다. 근대 이후 우리의 도시들이 상실한 역사성의 맥락은 뼈저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시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Tram이라고 하는 전차가 매우 인상적이다. 지하철처럼 지하를 오르내리는 불편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의 노선

을 이용하여 체증없이 달릴 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한 운송수단이다. 서울에서 전차를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크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벨베데레 궁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둘러본 후 다시 버스로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향했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의 진주라고 불리운다. 이 도시의 역사는 헝가리민족이 이 지역에 자리잡기 시작한 10세기경으로 거슬러 오른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의 부다지구와 동쪽의 페스트지구로 나뉘며 다른 두 도시였던 이 지구들이 19세기에 이르러 합병을 거쳐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된 것이다. 도시의 밤 분위기는 한결 고즈넉하다. 내일도 날씨가 맑으려나...

아니나 다를까. 스산하게 비가 내린다. 빗발이 드세다.

버스 창밖으로 시내를 넘겨보며 헝가리 건국 천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영웅광장에 도착했다. 1896년에서 1929년에 완성된 광장으로 높이 솟은 원주에 천사 가브리엘이 서 있고 기념비들이 늘어섰다. 국가행사장으로 자주 이용되는데 공원화하기 전의 여의도광장이 떠오른다. 권력은 이런 행랭그런 광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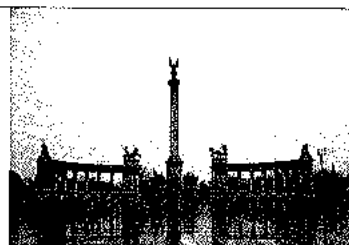
헝가리 국회의사당, 슈테판 성당(비엔나의 것과 이름이 같다)을 거쳐 겔레르뜨 언덕으로 올랐다. 이곳의 정상에는 19세기 중반에 시설된 치타델라 요새와 헝가리공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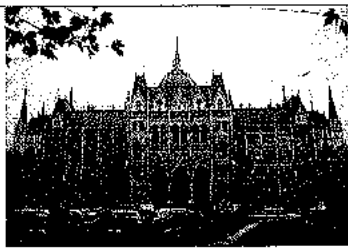
슈테판 대성당의 야경



비엔나의 전차 'Tram'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



헝가리 국회의사당



공산주의 기념탑의 조각들(용으로 표현된 나찌를 소비에트군이 누르고 있음)



부다 시내의 밤

의 기념탑이 있다. 이 언덕은 부다지역의 가장 높은 곳으로 먼 곳에서도 이 기념탑의 여신상이 눈에 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라 하나 비와 안개 때문에 시내가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어슴푸레하게 다뉴브 강의 물결이 보인다. 여신상의 좌우에는 우람한 근육의 소비에트군이 용으로 상징된 나치를 격퇴하는(쳐죽이는!) 것을 표현한 조형물이 있다. 섬뜩하다. 권력의 천박한 자기표현이다.

왕궁, 마차시 사원, 어부의 요새 등을 둘러본 후 몇 분의 제안에 따라 이곳 헝가리에서 유명하다는 사우나장에 가보기로 했다.

여행의 쌓인 피로도 풀고 이 곳의 목욕문화도 불검... 욕탕은 상상이상으로 큰 규모였다. 특이한 것은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이 무척이나 다양해서 청소년에서 노인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도시에만 100여 개의 온천이 있다하니 사우나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된 듯하다. 탕의 온도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약간 차가웠다. 열탕에서의 극기훈련을 즐기는 우리의 모진 습성과는 좀 다른가 보다.

이제 유럽여행의 마지막 밤이다. 카메라를 메고 부다의 시내로 향했다. 열시가 넘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로 치면 명동이라는 곳 역시 손님을 정도의 사람들만 거리를 배회할 뿐 인적이 없다. 조명을 받은 건물만 난데없이 화사하다.

이 시간의 신촌은 사람들로 넘쳐날 터인데... 번번히 술 마실 곳을 찾을 수도 없으니 아무래도 밤의 문화가 발전하기는 우리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대학가의 카페들도 주말에나 문을 연다니 이 곳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감하기는 틀린 모양이다. 거리는 젖어 있고 비는 맞았다. 작은 맥주집을 어렵게 찾아 메뉴판에 있는 몇가지 맥주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주문한다. 마지막 밤은 이렇게 깊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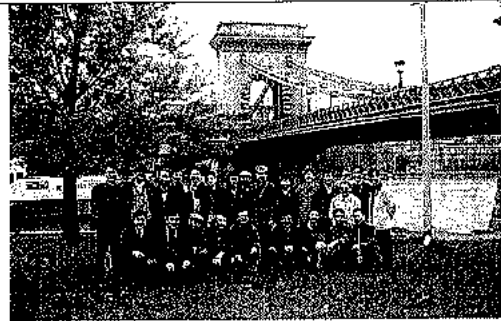
11월 4일, 흐림

오늘은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에 잠깐의 시간을 내어 다뉴브 강을 잇는 체인브릿지에 들렀다. 1849년 당시의 철구조에 대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완성된 현수교로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8개의 다리중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힌다. 이 다리를 설계한 영국인 클라크 아담은 다리를 완성한 후 손톱만큼의 하자도 없음을 호언하였으나 다리 양쪽 사자상의 입속에 혀가 없음이 지적되었다는 후일담이 있다. 바껴말하면 그만큼 완벽하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 견실한 구조와 더불어 현수구조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

여행이 끝나는 아쉬움을 담아 일행의 단체사진이 여기에서 찍혔다. 묵묵히 흐르는 다뉴브 강을 뒤로 한 채.



다뉴브 강의 체인브릿지



다뉴브 강가에서 일행과 함께

거울에 비친 나의 초상

My Own Portrait Reflected on the Mirror

90년대 건축을 중심으로

김희곤 / 공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관점

비평가로서의 입장보다 실무를 하는 건축인의 시각으로 사무실 운영과정에 마주했던 개인적인 경험의 범위내에서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소한 경험이지만 더욱 더 실질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포럼은 다분히 현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그 목적은 다분히 포럼을 통하여 현재의 건축환경을 재구성하려는 방향으로 저항하리라 판단된다. 또 한가지는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적인, 긍정적인 접근태도이다.

“근대의 인간성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생활 조건아래서는 쓰이고 있지 않은 잉여의 모든 시적역량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결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란 현재를 묘사하거나 과거를 부활 또는 요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 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니체—

옛보기

20세기 중반 이후를 하나의 축으로 놓고 90년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Time지가 분류한 시대구분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946~60: 독립시대

1960~73: 혁명시대

1973~89: 번영의 시대

여기서 90년대 건축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영의 시대인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건축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중동건설붐과 더불어 해외기술 축

적과 국내건축붐으로 곧바로 연결지어지면서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기술축적과 상호협력 기회를 가진 점은 또 하나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성과 이면에는 많은 허상을 간직하고 있다.

200만호 건설, 신도시건설은 졸속으로 주거환경의 실험적 실천은 뒤로하고 용적 채우기, 세대수 채우기가 90년대 건축전반에 양에 대한 포만감으로 이어졌다.

21세기를 예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밀레니엄 버그” 용어 하나로 현재 우리는 전지시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나로그식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을 넘어서 “점점 더 축소회원과 동시에 점점 더 확장”이라는 전지시대 양면성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인간생활을 보존하는데 그 기저를 둔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 즉 가상적인(Virtual) 건축의 흐름은 하이테크에 대한 열망속에서 발전된 생각을 기초로 하는데 아마도 2천년대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허구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반면 두번째 방향은 현실을 추구하고 있다.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는 가상적 건축이 여전히 지배할 것이라 생각한다.” —Youichi Iijima—

사례보기

변혁의 시대 중심축으로 결론지어지는 IMF의 시대 90년대를 보기로 하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심층사상적 배경은 “이제까지 우리의 시각에서 소외되었던 그 이면을 재조명하는 사상”이라고 김열규 교수가 지적한 말을 주목하자.

지금까지 허와 실이 교체되는 것이다.

1) 건축사법(90년대)

그간의 건축사법 변천을 보면 건축인 스스로가 목에 방울을 달고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 종합에서 법인, 단독, 또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사무실 규모 등 그 내용의 이면에는 건축사 머리와 평수와 직원수면 마치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게 된다.

감리제도 또한 동상이몽이다. 목에 방울색깔과 종만 같았을 뿐이다. 창조적인 직업인의 장인정신은 실증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다.

2) 다세대/다가구 주택

이 기획상품은 수도 서울을 지극히 짧은 시간에 누구 못인지 모르면서 새 옷이라고, 공짜라고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서 모두 갈아 입었다.

논리의 기반은 현 집 새 집 짓고 매달 월세와 공사비 제외한 현금도 생긴다는 투자논리였다. 반지하도 방을 만들고 방수만 많으면 만사형통인 요술 방망이였다. 문제는 한시적 성과의 이면을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3) 재개발 APT/신도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좀도둑이면 재개발 APT는 기업형 도둑이다. 어떤 장소든 판잣집 헐어내고 고층 APT건설되면 도시발전이었다. 주변경관과 교통여건, 도시기반시설은 고려되지 않아도 평수 큰 새 집이 공짜로 생기니 모든 삶의 논리는 시장경제논리에 질식당하고 말았다.

신도시 또한 주거환경 실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유닛의 변화에 만족하고 APT의 문제점인 공동체의식 부여를 위한 공간구축은 사업성에서 밀려났다.

4) 현상설계

모름지기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회 기반인 구조적인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설계경기는 좋지 않은 제도이다. 설계경기는 일을 너무 빠르게 처리토록 만든다. 일을 얻기 위해 설계경기를 할 수 있지만 설계경기가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 최창규 —

설계경기가 발생 많은 이유는

“설계경기 규정이나 운영규정 미비와 건축발주자측, 응모자, 심사위원들이 이 규정을 엄수하지 않는다는 점, 발

주자측의 지나친 탐욕과 물이해로 빚어지는 독선의 작용, 심사위원들의 무능이나 정실,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불공정심사, 간접으로나마 사회상황속에서 관료주의와 상업주의의 상식이 순수하고 공정한 운영질서에 무언중 작용하기 때문이다.” — 최창규 —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설계경기의 경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주최측의 고유권한으로 비건축인 심사위원은 대개 실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대학교수들로 이뤄진다. 최근 설계경기의 대부분은 외관설계경기, 투시도 경기, 모형제작경기, CG(도면 표현력 경기)로 치달는다. 그러나 얼마전 조달청위원의 경우 1, 2차 구분 등 몇몇 설계에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은 고무적이다.

5) 외국건축가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유독 IMF전 90년대 외국건축가들이 국내강연회, 합작프로젝트, 현상설계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접촉의 기회를 넓혀 그간의 갈증을 많이 해소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기반이 허약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계기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 근본에 대한 반성 노력이 아니라 겉, 포장지에 대한 배끼기 흥내내기에는 지양되어야 한다.

“문화는 흐른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출발한다” 새삼 논리를 들추고 싶지 않다. 7,80년대초 일본에서 보듯 세계화가 스스로의 자신감회복, 노력하는 당당함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희망의 틀

1) 세계의 구조적 틀 속의 한국

미소냉전의 이데올로기 해체이후 강력한 미국화만이 존재한다. 미국을 견제할 세력들만 존재한다.

미국화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적자생존의 시장논리의 틀을 거부할 수 없다. 이제는 건축도 미국화의 구조적인 틀위에 한국적인 모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서 있다.

아시아권에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의 예를 살펴보자.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베지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나고야에 일본 최고 높이의 JR Center를 건설하고 있다.

지진의 위험 중심에 그것도 공공역사위에 자연의 재앙을 극복하는 창조적 실험을 일본인들이 하고 있다. 최고 높이가 아니라 지진에 정면 도전하는 사고의 진전이다. 지진에 대비하는 강력한 매트기초, 댐퍼구조(철골), 게다가 형태도 공중파전

과 방해문제로 초기의 사각형 형태에서 유선형 곡선으로 바뀌었다. 외벽재로 또한 공중파 문제로 첨단 신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권의 또다른 예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세계 최고높이 페트로나스 타워(Petronas Tower 451.9m)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인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풍력의 영향에 대한 변형을 흡수하는 장치(댐퍼구조)로 천국으로 이르는 문을 설치함과 동시에 디자인요소화 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 시자펠리는 인간은 왜 고층건물을 계속 짓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 의미를 두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에 가까워지려는 욕망과 건물위에서 있을 때도 땅의 힘이 건물을 통해서 발끝으로 전달되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니체의 미래를 향해 한발짝 다가서는 인간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2) 미래를 위한 포럼

2001년 1월 1일 자정울 기점으로 한 과거와 의 급진적인 단절을 꿈꾼다. 20세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건축이라는 고대적 예술을 연마하는 건축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어제의 돌파구는 오늘의 무용지물이 되었고 형태는 점차 기능보다는 재정요건을 따른다. 지구차원의 신경계에서 보호주의는 자유시장 원칙과 싸움을 벌인다.

1997년 4월 동경에서 이토와 대담시 마지막 질문이 기억난다.

“한국의 현대건축에 대해서 형식에 구애없이

생각하는 바를 말해 주시죠.”

“작년에 서울을 방문해서 몇몇 작가의 작품을 보고 새로운 시대는 이들의 작품에 의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고 이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모더니즘이나 전통에 의한 것,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좋고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없이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자유로운 시대의 사람 안에서 새로운 건축이 만들어져 갈 것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5년 이후에는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CA. 13)

집짓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토도요를 경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견해다. 적어도 밖에서는 우리를 보는 시각의 한 단면이다. 우리 스스로의 속박과 과장된 허상에서 추락한 IMF 현실이 진정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는 영화장면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어머니 손을 대신하면서 악을 행하는 주인공 악셀쥬드로프스키가 체포 직전 경찰의 총구 앞에서 처음으로 악혈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손을 들어올리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유를 체험하는 Last Scan”
—성스러운 피—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건축사가 제안하는 도시개선 방향

A City Suggested by an Architect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ng

1.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

99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건축문화의 해 지정이 ‘건축이 공학기술의 일부로만 인식돼 온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중요 분야로

써의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기의 말미에 건축문화의 해를 맞게 된 것은 ‘지난 백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라는 우리 사회의 주문도 함께 있는 듯하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된 건축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건축분야의 정체성을 알리

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한 집합주택을 설계한 젊은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며 안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청에서 그와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자기가 나와서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 젊은 건축가의 노력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바로 성숙한 선진시민 의식체라 생각했다.

건축문화를 보다 넓게 알리려면 건축가 자신들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나 유명작가의 현대건축물을 네트워크화해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과거의 문화재나 현존하는 건물들 네트워크화할 때 너무 예술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을 버려야 한다. 그 장소와 역사를 증언해 주는 일반건물도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시각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저변인구를 보다 확대시키려면 건축가들이 나서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소개해 주는 등 일반인들과 어우러지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목전에 세워놓은 지상 목표를 위해 환경과 건축이 임시 방편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공간의 조성이 뒷전에 밀려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늦게나마 건축을 소위 '문화'로서 이해하고 그 본 뜻을 기려야 한다. 또한 건축의 해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건축을 삶에 따른 자연스런 문화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일일것이다. 임시적인 잔치성 행사나 벌이고 단편적인 전시회나 벌인다면 IMF와 겹쳐진 '건축의 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2. 도시 건축행정

건축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고 있다.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 건축사 등이 각자의 입장과 여건에 맞추어 건축활동을 행하고 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건축은 인간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전체적인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실공사가 되어 큰 상가나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의 인명의 손실, 경관 혹은 미관, 주변 건축물과의 상관성을 무시하고 지어진 건물들이 주는 위화감, 이윤만을 추구하여 백백하게만 들어서서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을 상상해 보자. 이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21세기 건축의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

건축에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부분최적해(Sub-Optimization)을 통해 각 주체별로는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건축주는 법적으로 규제된 것을 뛰어 넘어 건물을 지음으로써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시공자 역시 시공과정에서 설계기준을 무시함으로써 건설비를 줄이고 그리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넉넉한 봉급과 생활여건이 보장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조리를 눈감아 주면 딸 흘리는 노고를 치루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문제는 부분최적해를 통해 각 주체들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과 건축문화가 열악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공동의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건축행정의 적정 개입수준

권위주의적인 사대의 건축행정은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남겼던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아닌 장려, 유도 등의 수단을 가미하는 조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하나일 것이나 건축행정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단속과 규제에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구한 시민사회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어지러운 개발 및 열악한 건축물집단이 전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절감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행정의 적정 개입의 주안점은 도시환경 질서에 두어야 할 것이다.

건축행정은 기속행위를 전제로 재량행위가 함께 있다고 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심의, 허가, 각종 신고 등은 기속행위이나 허가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허가사항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자체를 판정하는 그 사실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92. 6. 1) 제20조(허용오차), 제3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 등은 공무원의 재량행위에서 오는 문제점을 많이 보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주위의 민원발생과 위법건축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법률해석 및 적용시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재량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재량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행정관청은 불신과 부조리 등

지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량행위라도 기속재량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표1〉 건축과정에 따른 공무원의 재량행위정도

구 분	기속행위	재량행위정도			비 고
		상	중	하	
건축심의		●			위원회의설치는 기속행위이나 심의과정은 재량행위에 속함
건축허가	●		●		기간에 따라 재량행위로 허가를 제한하기도 함
중간검사	●			●	현장조사시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있을 소지가 있음
진정서 처리		●			완전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각종의 조사업무			●		
사용검사	●			●	현장조사시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있을 소지가 있음

4. 예측가능한 행정

모든 행정이 법과 규정에 의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위법과 민원의 발생률이 높은 건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부조리 발생의 관련성은 건축행정상에서 일관성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행정은 예측가능성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입는 피해가 건축분야에서는 더욱 크게 된다. 이 경우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보다는 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높이 고자 하므로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에서 단지 민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다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나친 재량권을 발동하여 무리한 추가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용검사를 거부할 시 해당 건축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위법건축물과 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건축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위법건축물과 민원을 줄이고 동시에 위법건축물과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건축부조리의 발생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건축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데에 일조하고 있다.

건축설계는 문화행위와 상업행위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문화행위로서 건축은 가치와 의미를 지향한다. 상

업행위로서 건축은 돈과 효율을 지향한다.

최근 시장 자유경쟁 원리를 이유로 시행 예고된 입찰제는 건축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시장가격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그러한 경쟁이 과연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리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건축법령의 빈번한 제정과 개정 취지에 발맞춘 관련 행정 즉 도시, 소방, 전기, 에너지, 교통 등의 개선노력은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건축행위는 “관대한 건축법”과 “엄격한 관련법”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5. 목적과 달리 운용되어지는 법규

우리나라에서 건축관계 부조리가 심각한 것은 건축법과 그와 연관된 각종 법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건축관계 기준들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합리한 건축관련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기준을 근본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불법 발생률이 높은 지하층 규정, 노대(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규정 등은 반드시 조례상이라도 수정안을 마

〈표2〉 목적과 달리 운용되어지는 법규

	위법내용	관련법규정	입법목적	운용상문제점
1	지하층 노출 - 일조거리 위반 -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위반	영제 3조2 • 1/3 노출 • 단축, 다 세대 1/2 노출	인방위개념 전시대피소로 활용	지상1/2 노출로 대피소 사용불가
2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위반 발코니 위반	법 제53조 법 제86조 시조제 제30조 일반건축물의 정북 방향거리 • 1층 - 1m • 2층 - 2m • 3층이상 - 11/2 공동주택 • 인접대지경계선 11/3 • 도 로 중 심 선 11/3	인접지 사생활 및 일조권의 확보 인접지 및 인주지 의 일조의 확보	정남으로 50cm만 떨어지고 정북으로 일조공간 확보로 주거문화의 후퇴 빈방, 간장을 사용 하는 사생활 문화 의 변화 초래
3	• 옥탑의 무연종축 • 옥탑의 주거용 변경	영 제119조 ①-3-마 • 바닥면적의 산 정에서 제외 영 제119조 ①-5-다 • 건축면적의 1/8 이하 층수산정 에서 제외	• 옥탑은 단순히 계단, 탑, 물탱 크설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 요한 최소한 공 간의 확보	• 층수, 면적에 제 외됨에 따라 사 실상 주거용으 로 개조하거나 증평사용 • 일조규정을 위 반하게됨 • 주차장 시설 외 확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4	대지안의 공지 위 반 - 처마노출 • 외부계단, 발코 니 노출	영 제81조 구조제 제43조 • 주거지역 최소 이격거리 0.5m	• 최소한도의 인 접지 보호 - 투시 - 빗물처리등 • 환기, 채광을 위 한 최소규정	• 공지규정에 위 반하여 추녀돌 출(설계에서 위 반이 예견됨) • 추녀를 발코니 로 변경

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즉, 종례에 대피시설 목적으로 규정한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은 남북간장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용적률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기준을 완화하며, 노대는 외부개방과 관련없이 1미터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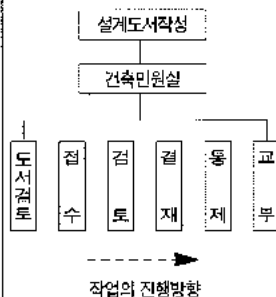
6. 건축행정 제도의 개선 방안

건축 부조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에 연관된 기초자료와 건축행정상 겪어야 하는 각각의 과정별 행정절차 및 그에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자료의 공개에 있어서 관련 행정부서의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한정하고 점차적 공개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종합민원실이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조만간 정식 기구로 발족하여 이에 상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 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업무와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한편 소방서, 수도사업

〈표3〉 건축민원실 업무의 정비안

개선전(건축과 업무)	개선후(민원실, 건축과 업무구분)
1. 직원의 업무 - 구역담당제 - 洞 담당별로 창구업무와 현장조사업무를 함께 처리 - 단순창구업무도 현장조사 업무로 인하여 별리 처리하기가 어려웠음 ●단순 창구 업무 - 사무실에서 처리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의 허가사용 ●중간검사 ●철거신고 ●각종 사실 확인증명 업무 ●현장조사 업무 - 현장, 사무실에서 처리 ●일반 건축물의 허가, 사용검사 ●진정서 조사 처리 ●각종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 처리 ●공사장 안전관리 ●위험시설물 ●영선설계 및 공사감독 2. 문서접수 처리과정 - 종적구성 - 처리과정에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 - 단계별 담당자간의 접촉 연결고리가 수시로 차단됨	1. 직원의 업무 - 기능 담당제 - 단순 창구업무와 현장조사업무를 구분 ●건축민원실: 단순창구 업무 개인별 - 기능부어 ●건축과: 건축민원실 이외의 업무 현장조사 및 기타 각종 동원 업무 2. 문서처리 창구의 일원화 - 횡적 구성 - 문서처리 과정의 단순화



소, 군부대 등 각종 외부기관의 협의 등은 일회 방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기능도 갖추어 민원인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범위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제3섹터의 활용

도시건축물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사회여건이 복합적으로 변모하여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대두됨에 따라 건축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시건축행정의 변화속도는 제도와 행정조직의 개편, 행정담당 인력의 소극적인 증원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행정수요에 양적으로 대처하고 민주화, 문민화 시대의 다양한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건축행정제 제3섹터 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요청된다.

우선 부족한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수급과 우수한 행정담당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지방자치단체들의 건축검사관제도(Building-Inspector),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의 전문직 공무원제도와 일본의 건축주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에 의하여 '건축검사공단'의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규콘설턴트제도' 또는 '건축행정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제3섹터의 개념 안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섹터 개념의 도입방법, 시기, 기구의 형태 및 역할, 기존 행정조직과의 연계성, 자원조달 방법, 설립주체 등의 구체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건축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견되고 있다.

8. 21세기 도시건축발전 기본계획 수립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합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제기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건축행정발전 기본계획(Master Plan)수립을 위한 노력의 경주와 이 분야의 개혁을 주도할 종합적인 추진본부로서 건축행정개혁기획단의 설립운영을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기본계획에는 건축행위시 공공부문이 개입하여야 하는 수준을 제시하여 이에 합당한 제도적 틀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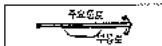
〈표4〉 보행자 전용로의 설계기법 예

보행자전용로의 설계목표		공간시스템				공간적 특성						세부설계			
		 群	 평행	 네트	 공간	 회유	 정체	 차폐	 교차	 확대	 중복	포장	가시성	생활시설	녹지
동선적 기법	선택성이 풍부한 동선구성형식기법			■	■				■	■	■		■	■	■
	공간이동에 따른 알기쉬운 동선구성형식기법	■	■		■		■	■				■			
광장적 기법	만나는 곳과 모이는 곳을 만드는 기법	■		■	■	■			■	■		■	■		
	시설주위공간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계획기법				■					■	■		■		■
위락 공간적 기법	스포츠 등 동적위락공간을 만드는 기법	■	■		■	■		■					■		
	산책 등의 정적위락공간을 만드는 기법		■	■		■	■	■			■		■		
공간조형적 기법	기능적 생활축을 만드는 도시공간 조형기법									■	■	■	■		■
	독자가 풍부한 자연적 공간조형기법	■	■		■	■	■	■	■					■	

급행길

 A에서 B로의 활발한 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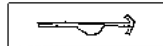
고속과 사생활을 찾아서

 주요한 통로에서 벗어난 2차적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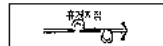
사회활동을 하면서

 전관문앞의 도로에서 이야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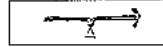
사회활동을 하면서

 유모차를 끄는 두 엄마가 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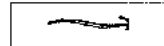
쉬면서

 쇼핑하는 사람,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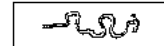
바라보면서

 경치를 즐기기 위하여

정체없이 걷기

 산책을 위하여 밖으로

놀면서

 어린이가 달리고, 쫓고, 쉬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범위를 건축법령에 국한시키지 않고 건축행위에 관련된 제반법령 및 행정제도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각급 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강행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국민과 업계 모두는 그에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불안한 제도개선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개선의 예견성, 투명성을 주는 것이므로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관련 부처 등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축행정제도의 개선을 장기적, 종합적, 구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 기관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반발과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과 이에 선행되는 기본계획의 구상에 있어서도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종합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 도시 재개발의 적극적인 시행

도시 재개발은 노후화된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의 부족한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합리적으로 확보 배치하며, 규모가 있고 균형잡힌 건물을 조화있게 개발함과 동시에 능률적인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여 짜임새 있고 품위 있는 도시를 건설함을 그 의의로 삼고 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불량 지구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거나 도심주변부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리적, 사회적 병리현상이 누적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토지의 규모가 작으며 한국의 경우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많고 지가가 높으며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은 민간 유수의 개발자(Developer)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민간중심의 도시 재개발이 실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심은 주로 관찰관청이며 관청은 민간이 개발하기 쉽도록 토지의 취득, 건축물의 정리, 가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그 과정에서 부수되는 토지의 민간개발업자에의 공매 및 재개발 지구의 정비와 택지 조성에 힘써 주는 것이 특징이다.

10. 결론적인 제언

우리는 엄청난 시련인 IMF 경제위기와 사상 유례 없는 수해를 입고 다시 일어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와 건축문화의 해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건축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나타내야 하는 건축가들은 그 어느누구보다 IMF한파에 거의 기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이라 더욱 안타깝다.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도시의 재건설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시행에 착수해야 하나, 기획로 다가온 전국민 홍보의 장을 어떤 방식이건간에 실시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제안한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나름의 특색과 성격을 살리는 시법적인 행사를 조속 기획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이 '문화'이지 경제적 가치 평가기준에 따

른 장사' 속의 분야가 아니라는 대국민 홍보의 결실을 맺어 건축의 역사에 일대혁을 긋는 성과를 반드시 거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답장을 열어 그나마 확보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시민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가의 골목길은 독특한 상업적 구조물을 세우게 하여 볼거리와 구매관광의 거리로 탈바꿈시켜야 하겠다. 건물과 건물사이의 틈새를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시정 홍보물이나 동네의 안내판, 그리고 그 동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가 함께 공유하는 가로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넓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전거전용도로 설치라든가 칼라보도블럭 교체 같은 근시안적인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꼭 필요한 동네별 사안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장지대와 불량주거지에 장기 미매각 국·공유지가 있다면 매각이라는 장사를 피하고, 이곳에 대기업 문화 홍보관을 짓도록 무상 제공하고 대신에 주민이 상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준법서약을 맺어 주는 역할을 관찰관청이 적극 나서야 하겠다. 이러한 장소는 계획부터 사전 공표하여 주민과 학생들을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공약수를 반드시 실천하는 단체장들이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Do not Be Content With Today's Situation

박순종 / 예지건축사사무소

by Park Soon-Jong

전국의 각 시·도·구청장은 위법부실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주에게 “감리를 이 감리전문회사에서 해라 저 감리사무소에서 해라” 하며 헌법에 자유계약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감리자를 강제계약을 시켰고, 전국의 각 시·도건축사회도 이를 본떠서 1998년초 소규모 건물의 건축주들에게 “감리를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하시오 저 건축사사무소에서 하시오” 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법부실건축방지 및 건축사들의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라고 전국의 각 시·도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하고 8억여원의 과징금과 일간신문에 사과문 게재 및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시·도·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면 공정거래이고 건축사협회가 감리자를 지정하면 불공정거래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집이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여 집을 짓는 것으로 감리만 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 설계를 잘못하면 벌을 받고, 공사를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감리는 공사행위의 주체행위가 아니고 자문행위인데 집을 잘못 지었다

고 시공자 대신 감리자가 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기에 건축허가 과정을 두어 위험한 대지나 엉터리 설계를 걸러내고 착공검사·중간검사·사용검사·과정을 두어 위법부실사공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도·구청장은 건축허가도면검토·건축현장검사·건물착공검사·1차, 2차, 3차 중간검사·사용검사 업무를 하는데 이를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라 한다.

이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는 시·도·구청장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건축사에게 떠넘겨, 자기설계 자기가 검토 하는등 마는등, 자기가 설계하는 건축현장 자기가 조사하는등 마는등 허가번호 따서 건축허가 받아주고, 자기가 감리하는 건축물 건축주·사공자가 위법부실 건축을 하든말든 사용검사 해주어, 다음 설계 따기에 급급하니, 그 집에서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서울의 삼풍백화점 무너지 듯하고 안양의 연립주택 무너지 듯하고 인천의 다구주택 안방에 정화조 묻는 것과 같다.

시·도·구청장의 고유업무인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얹어 강제로 공짜로 시키는 위헌적인 “주택건설촉진법 33조의6”, “건축법 제23조” 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주의 국가답게 빨리 고쳐야 한다.

감리는 건축기술이 없는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감리를 잘못 하였다고 추궁할 사람은 감리비를 준 건축주 밖에 없다. 국민간의 상거래행위에 시·도·구청장의 업무를 공짜로 강제로 시키고 감리를 건축현장조사·검사행위로 오인받게 하고, 위법부실건축공사의 주범 시공자도 아닌 감리자를 대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니 받을 권리”, “강제노역을 아니받을 권리”의 인권침해인 것이다.

그런데도 건축사들이 노예와 같은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바보같은 이유는 건축허가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해제행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법률적 경제적 커다란 이익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며 더군다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확천금을 버는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주는 설계 잘하는 건축사보다 허가 잘받아주고 준공 잘해주는 건축사를 찾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다. 그런 현실에서 자칭 숙물사업가 건축사는 건축현장조사·검사의 반허가권·반준공권을 이용 설계건수를 올린다. 여차피 건축허가 받아주기 준공받아주기 경쟁인데 당장 돈 적게 들고 허가·준공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헌법의 국민 4대 의무와

권리를 모를 시·도·구청장, 건축공무원, 건축사는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 자기의 인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축공무원의 실수는 징계로 끝나지만 건축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와 관련 뇌물은 공무원의제로 과중한 형법적용,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적지않은 수의 속물적인 유능한(?) 건축사는 수단 방법 안가리고 허가를 받아주고 설계비 허가비도 많이 받는다. 그들은 정치가처럼 로비력도 강하여 처벌도 면하고 날로 부정경쟁을 심화시켜 서로 못살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너지는 삼풍백화점안에 있게 되고, 사회는 점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다.

건축사협회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가 적은 제3의 건축사에게 감리를 배정하려고 한 규정은 약간의 합리성이 있었던 것이다.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법조문들로 가득차 있어 위법부실건축만 창달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토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니 건축사협회는 꼭 헌법소원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낼 파징금 8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입회원들의 입회비를 전용하려는 속수 보다는 시·도·구청장의 감리자지정은 공정거래라고 건축사협회의 감리자지정은 불공정거래라는 위헌적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해당 건축사에게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강제로 공짜로 시켜 부당경쟁을 유발시키는 건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당당하게 하여 8억여원의 파징금도 취소받고 건축사들이 오로지 설계실력으로 경쟁하여 건축문화창달과 공공복리가 증진되게 하여야 한다.

IMF시대의 건축인

Architects in the Age of IMF-Aid

진희선 / 서울시 건축지도과 사무관
by Jin Hee-Sun

IMF 그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IMF지원체제 하에 살고 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나 보던 IMF가 실제 당해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몰랐으리라. 회사부도로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하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세상이 되었다. 은행대출보증을 썼다가 생돈을 대신 갚고 천척간 친구간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 거리도 되지 않는다. 백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수천년 동안 간직해 오던 인류 천륜마저 땅에 떨어지는 지경이 되었나?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고실업추세는 앞으로 3~4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은 올해보다 더 높아져 내년 상반기 실업률은 8.5%, 실업자는 1백83만6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빠진 장기실업자를 나타내는 장기 실업률도 올 상반기에는 7.8%(10만4천명)에 불과 하였으나 99년에는 24.1%(43만1천명)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자 가운데 가구주의 비중도 내년에는 올해의 45.3%보다 높은 4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날다해도 생산가능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여력이 부족해 내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난해의 65%에서 60%로 낮아졌고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에서 33%로 높아진 대신 상류층 비율은 13%에서 7%로 줄었다. 이러한 통계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나라의 건강함의 척도는 그 나라의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산층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 된다고 한다. 중산층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부의 편차가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의 편차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사이에 서로에 대한 위화감이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역할은 나라

의 튼튼한 무게 중심이 되어 그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MF 그 끝은 어디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3년 내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보다는 느낌이거나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에 누가 자신있게 IMF가 언제 끝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우울하고 암담한 IMF시대는 언제 끝날 것인가 보다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당위성만이 강조될 뿐이다.

IMF 시대의 건축인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사에 그 유례가 드문 20~30 년간의 압축 성장을 통해 수천년의 농경 사회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인은 주도적역할을 했다. 특히 70년대에서 80년대초까지 중동 건설 붐이 일면서 외화소득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건축의 성장사가 곧바로 한국경제의 성장사라고 하면 과장일까?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IMF의 지원을 받는 지금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건축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은 소총부대라고 하던가?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가 바로 건축허가 통계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투자되는 자본은 그 자본의 2~2.5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 올해의 건축허가현황을 살펴보자. 98년 1월부터 8월까지 연면적 3백8십7만7천9백43㎡로 97년 같은 기간(8백5십5만4천2백29㎡)에 비해 54.7%가 감소했다.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주거용은 62.8%, 비주거용은 47.5%로 주거용이 더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97년도와 98년도의 8월 한 달간만 비교해 보면 총 연면

적 77.4%가 감소,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현실로 돌아가보자. 대부분의 대형 설계사무소의 경우 IMF 전과 비교하여 1/3로 인원이 감축되고 또 연말 안에 감축해야 된다고 않는가? 중소 설계사무소의 경우 거의 폐업 상태, 직원들은 무급휴가 보내고 3~4개 설계사무소를 하나로 통합 소장들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건설회사의 경우 어떠한가? 건설부문 1위 2위를 다투던 동아건설이 무너질 정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건설부문 안에서도 토목의 경우는 실업해소대책 일환으로 공공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어떻게 버틴다고 하지만 민간부문이 대부분인 건축의 경우 IMF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노임단가를 보면 건축목공의 경우 97년 9월 노임이 7만1천8백3원, 98년 5월 노임은 6만5천7백13원으로 8개월 사이에 9.2%감소되었으며, 철근공은 97년 9월에 7만7천8백39원 98년 5월에는 6만6천9백44원으로 16%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 아우성들이다.

이 미증유의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것,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의 반성

지난 시대에 우리 건축인은 개발시대를 구가하면서 엄청난 양적팽창을 해왔다. 전국 건축사무소의 등록회원 현황을 보면, 1965년에 422명(179명), 1975년에 1,580명(739), 1985년에 2,367명(917), 1998년에는 6,866명(2,757명)으로 30년간 1,527%의 팽창을 만만 회원수 증가가 있어왔다(팔호 안은 서울에 등록된 건축사무소 회원임). 특히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의 10여년 간에 양적팽창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에 건축설계의 실무를 배우기 위해 거의 월급도 없이 무료로 설계사무소에 다니며 아침 일찍 출근하여 청소하고 연필을 깎으며 선배들의 출근을 기다리던 시절은 이제 전설이 되고 옛날 선배 누군가가 그 시절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로 치부되기 십상인 시절이 왔다. 그 간의 엄청난 양적팽창은 건축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기 보다는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 속에서 건설수요의 양적팽창

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양적팽창의 개발시대는 우리 건축인에게 질적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건설수요의 양적팽창에 따른 그때 그때의 과실만을 행하기 바빴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주와 실적위주의 설계 및 시공에 안주하여 창의성있는 디자인 연구와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육성에 게을렀던 건축계는 근래 대형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자인 설계부터 외국건축사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건설에 있어서는 건설수요의 양적팽창과 건축물의 대형화에 걸맞는 신공법개발과 과학적인 건설경쟁방법 도입이 미흡하여 성수대교와 삼봉백화점 붕괴사고를 맞게 되었고 건설업계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말았다.

공익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건축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관에 있어서도 규제 일변도의 건축인허가 위주의 행정으로 진정과 민원처리업무가 일선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

IMF가 끝나고 나도 예전처럼 적당히 대학만 졸업하면 연말초에 대량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미국이 호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수천명 수만명이 대기업에 단체로 취직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선진국의 고용 형태로 우리도 변해갈 것이다.

또한 개발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관리시대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IMF가 끝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건설물량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재미있는 비교는 GNP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이 7~8%이고, 아직까지 해안의 만을 매립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일본이 10%내외, 우리 한국은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개발시대가 끝나가면 어느 나라나 신규 건설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20~30년간 압축 성장시대를 구가하며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유례가 드문 산업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물론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팽창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발전의 선두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개발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

다. 다만 IMF가 그것을 좀 앞당겼을 뿐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부지가 크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 미관지구 현황을 보면 총 2천2백3십만9천4백18㎡ 중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 면적은 1백2십9만6천2백22㎡인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서울은 이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전부 소진되고 앞으로 건축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서울 어느 곳을 돌아다녀봐도 빈 대지가 별로 없음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하여야 할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전부 헐고 기반시설부터 새로이 건설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개발로 인한 용적률의 차이로 개발비용을 부담하여왔지만(몇년 전에는 개발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생겨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발로 인한 용적 차이로 개발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근래 용적률 250~300%로 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법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500~600%로 높이고 그 용적 차이로 재개발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는가? 현재 공동주택의 법적 용적율인 200~300%도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높나는 비판이 비등하지 않는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변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낼 수가 없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간 우리 건축계에서 논의되고 과제로 안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건축업계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우리는 총론에는 강하고 각론에는 약하다. 그간 건축설계부문에서 전문화, 특성화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 그 진전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초고층 건물하면 미국의 SOM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설계, 병원설계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건축사무소를 가져야 한다. 백화점 나열식의 모든 설계를 혼자서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건

축사무소별로 특화된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낼 때 만이 무한경제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두번째는 건축업계의 영역확장이다. 그간 건축계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시공에 치중해 왔으나 개발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그간 건축사의 업무이면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축물의 조사, 감정업무에도 눈을 돌려야 하며 프로젝트 개발과 타당성 조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집수리업자 손에 맡겨 놓았던 단독주택과 아파트 개보수 및 수선업무는 본래의 업무영역인 건축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최근 아파트의 무단 구조변경으로 사회무리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기술력과 건물구조에 대해 문외한인 집수리업자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건물개보수 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와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우리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셋째, 건축의 내실화다. 그간 건축계는 건축의 논리에 따라 설계, 감리, 시공하기 보다는 건축외적인 요소인 경제논리, 만원과 진정의 논리에 의해서 건축 본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IMF의 한파로 건축의 빙하기인 이때가 건축의 내실을 기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는 적기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는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이다.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붐을 타고 우리 건설회사들은 해외에서 많은 건설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신기술도입의 호기였으나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에 힘을 쏟기보다는 양적팽창에 관심을 쏟았다. 분야별 단순 시공업무는 중소기업에 넘겨주고 전문화된 여러 분야를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인 코디네이션을 통해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대형 건설사의 몫일 것이다. 우리는 IMF의 지원체제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한 WTO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특화된 노하우와 현대적 경영기법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건축인허가 위주의 행정을 해왔던 관도 변해야 한다. 통제위주, 규제위주의 건축행정은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건축이 민원과 부조리의 원성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원인을 제공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규제행정은 서비스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에 따른 개괄적인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개

개 건축물에 대한 계획 및 기술적 검토는 건축가에게 일임하여 건축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공공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건축인의 미래는?

이 글에서 화두로 삼았던 건축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으로 해석한 토인비의 역사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인적·물적환경이라는 도전에 현명한 응전을 통해 이러한

시련을 이겨나간 민족이나 개인은 성공하여 오히려 그 도전이 있기 이전보다 더 화려한 문명을 놓고 명성을 얻으며, 그렇지 못한 민족이나 개인은 소멸하거나 노예화되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IMF라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IMF라는 건축의 방하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특화된 기술축적,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살아 남는다면 21세기를 이끌어갈 건축문화꽃 피울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MF시대에 아무리 답답하고 우울하더라도 푸른 가을 하늘을 우러러 보고 큰 숨 들이쉬며 힘차게 살아가자.

미래형 주택인테리어

House of the Future: Changes in Home Theater and Interiors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건설 대표
by Arthur T. Park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내부 인테리어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안방극장 설치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고감도 고화상 최첨단 다목적 텔레비전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안방 및 거실은 가정 엔터테인먼트시대의 새 장이 열렸다. 기존의 박스형 텔레비전은 이제 전방 혹은 후방 스크린 프로젝션형, 최첨단 평판스크린형 텔레비전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안방이나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텔레비전은 이제 첨단 텔레비전 영상기기와 음향기기를 갖추고 가정 오락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택주들은 어떻게 하면 안방, 거실을 최첨단장비로 아늑하고 편리한 가정오락의 장소로 변모시키느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건축업이나 인테리어 설계분야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21세기형 주택 인테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실이나 침실, 가족용 방에 설치되는 이 홈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안방극장을 첨단 기본장비와 부대 장비, 이를 방과 일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가구로 구성되어 21세기에는 각종 안방극장 제품들이 주택주가 더욱 편한 집에서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첨단 기본장비

① 대형 영상: 극장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는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빅 스크린 첨단 텔레비전이나, 프로젝션 텔레비전이 사용된다. 빅스크린 텔레비전은 일반 텔레비전으로 대형 사이즈의 것을 쓸 수도 있으나 평판 화면을 통하여 더욱 선명한 스크린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나게 하는 대형 텔레비전이 차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기내에서 볼 수 있는 프로젝터를 이용한 스크린 텔레비전 역시 젊은 신세대 주부층으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실내를 항시 어둡게 하고 프로젝터를 가동시켜야 하므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지게 된다. 또한 극장과 같이 어두운 상황이 됨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른 가사일이나,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② 돌비 입체음향: 스피커의 배치와 특수 오디오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돌비 입체음향으로 입체적인 원음을 들을 수 있다. 여러 군데 설치되는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음향들이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위치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영화제작자가 집어넣은 3차원적인 입체음향을 원음 그대로 받아 들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당, 성당 등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웅장한 음을 집안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③ 설치: 텔레비전이 위치하는 곳의 뒷벽에 2개의 스피커를 좌우로 설치하며, 2대의 주스피커들은 텔레비전과 4피트에서 8피트 정도 떨어지고, 바닥으로부터 44인치, 45인치 위로 설치한다. 이 주스피커들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선택하여 앞쪽에 놓도록 하여야 한다. 이 뒷벽에 공간을 마련하여 스피커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도 주택공간의 여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텔레비전의 상단이나 하단에 중앙 스피커를 설치한다. 뒷벽에 2개의 스피커를 더 둔다. 일반적으로 앞쪽 것보다 더 소형으로 천장으로부터 12인치에서 18인치 정도 떨어지도록 한다. 뒷벽의 양 가장자리로부터 18인치에서 24인치 정도 떨어지도록 한다. 베이스 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선 서브울퍼(Subwoofer) 스피커를 달아 더욱 박진감있는 음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 위치는 텔레비전의 바로 뒤쪽 벽이 가장 적절한 위치이다.

특히 최근에는 벽안이나 천정에 장착하여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스피커의 기능을 담당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스피커'가 등장하였다. 실제로 스피커를 주택내부에 두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면서 주택내부를 안방극장으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여졌다.

부속 첨단장비

① 무선영상전송기: 다른 방에서 보고 있는 비디오 영상을 또 다른 방에 무선 송신기를 통하여 송출함으로써 한 대의 비디오기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영상을 무선으로 볼 수 있다.

② 자동 소리제거기: 음악 감상중이거나 혹은 텔레비전 시청중에 외부로부터 전화가 잘 들리지 않거나, 또한 전화를 들어 상대방과 통화를 위해 텔레비전이나 스테레오의 소리를 낮추어야 할 때에 소리를 자동으로 낮추어준다. 즉 외부로부터의 전화벨이 울리면 이 소리제거기가 자동적으로 텔레비전과 스테레오 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주며, 또한 전화를

끊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③ 발신자 자동확인기: 위의 자동 소리제거기가 더욱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기중의 하나다. 즉 재미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 송신자의 이름, 송신자 전화번호, 시간을 현재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내어 주어 누가 전화를 걸고 있는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 수 있다. 발신자 번호확인기가 따로 필요없이 곧바로 텔레비전이 송신자 번호확인기가 되게 되는 것이다.

④ 야외 방수용 고성능 스피커: 집안에서의 안방극장에 흡족하지 못하거나, 집밖에서 특별한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 옥외극장용 장비들이 새로이 선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360도 전 방향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수 스피커가 있다. 초록색으로 잔디위에 설치되는 이 장비는 눈에 크게 띄지도 않는다. 소리 또한 스테레오 입체음향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녹이 슬지 않게 되어 있어 전천후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TV용 이동캐비닛

거실에 들어서면 거실 가구의 모든 배치를 좌우하는 한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 스크린의 위치이다. 즉 텔레비전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 거실의 모든 가구의 배치가 달라진다. 또한 텔레비전 자체가 대형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현대는 더욱 거실의 디자인에 있어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많은 주택주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 불필요히 덩그러니 거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불상사나운 텔레비전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을 보고는 많은 불만을 터뜨려 왔다.

이와 같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캐비닛 제조업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젝터형 텔레비전의 개발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부 해소는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상식 텔레비전을 많이 쓰고 있고, 그 크기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대형텔레비전의 거실내 배치 문제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까지 나온 해답은 두가지이다. 첫째, 주택 건설을 할 때 거실내 벽 캐비닛 설치시에 텔레비전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설계하여, 거실내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캐비닛에 문을 달아서 문이 닫힐 경우에는 텔레비전 자체가 거실내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캐비닛 설치시에 텔레비전이 놓일 공간의 뒷 공간을 넉넉하게 하여 차후 텔레비전 설치시에 케이블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는 텔레비전 자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첨단 전자기기를 같이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캐비닛 설치시에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 스피커를 비롯하여 전축 등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캐비닛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문을 설치할 수도 있고, 문없이 텔레비전을 놓아두게 할 수도 있다. 문이 있을 경우에도 자동화가 가능하다. 즉 문이 2개 혹은 4개인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개폐시킬 수 있는데 버튼 하나로 또는 음성으로 명령을 전달하여 캐비닛 상하에 설치된 레일위에 달려 있는 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주택 전자기기들이 거실이나 안방의 인테리어 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할 경우에만 자동으로 열어서 음악 및 영화감상을 해줄 수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내부 인테리어의 품격을 크게 높여 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텔레비전이 벽이나 미루바닥, 천장으로부터 캐비닛에 숨겨져 있다 보고 싶을 때에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영화에서나 가끔 등장하는 이 시설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몇 개 업체가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방법은 텔레비전이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공간을 거대한 텔레비전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다.

미국의 한 제작회사의 경우, 수동이나 자동으로 거대한 텔레비전 수납기를 숨길 수 있게 만든 '커튼 콜'이라는 캐비닛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만불 대이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는 적정한 저가로 텔레비전 수납기 자동이동장치 레인을 판매하고 있다. 이 장치를 벽이나, 미루바닥, 천장에 설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텔레비전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의 도입은 단순히 텔레비전 수납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거실내에 불편하거나, 부피가 큰 가구들이 있을 경우 이를 눈에 띄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주택 거실공간의 넓이를 크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를 비롯하여, 각종 장식용 장들이 이와 같이 이동식으로 자취를 감추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이동식 캐비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비에 맞는 캐비닛의 설계에서부터 캐비닛설치회사의 건축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래주택에는 이와 같은 자동화 요소가 더욱 보급되어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주택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 센터를 비롯하여 가구 자체가 일단 설치되고 나면 그 모습 그대로 주택주가 같이 살아야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주택내의 모든 것들이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공상 영화에 등장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온 각종 첨단 자동화 이동장치들이 주택 내부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홈 극장용 가구

홈터어의 보급과 더불어 차츰 단순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집안에서 극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텔레비전과 영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느냐 하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의 다양화와 각종 부대 장비들의 등장으로 단순히 텔레비전용 탁자 위에 아를 올려놓고 보기에는 점점더 공간이 좁다는 것을 주택주들이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홈터어를 집안에서 편안히 즐기게 하여 주는 가구들과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주택용 사설극장 시설과 가구들이 점차 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상층에까지 보급될 수 있는 가격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주택용 사설극장을 설립하는 데 드는 각종 극장용 가구들뿐만 아니라 홈터어 센터라고 불리는 가구가 또한 널리 인기를 얻고 있다. 홈극장용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오디오, 비디오, CD 플레이어 등을 세련되고 보기 좋게 한 곳에 정리하여 넣어 둘 수 있도록 한 이 가구는 대형 일렉트로닉 책장으로 비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홈터어 센터 이외에도 홈터어용 캐비닛이 있다. 이 캐비닛은 홈센터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로 대형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장비들을 컴팩하게 넣어 둘 수 있게 만든 장비이다. 또한 대형텔레비전의 스크린을 비롯하여 각종 장비들을 기존의 벽 안쪽으로 캐비닛을 만들어 집어넣는 벽장형도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홈터어의 보급과 더불어 전문적으로 홈터어용 가구들을 설계, 설치하여 주는 전문건축업자들이 늘고 있다. 홈터어를 기존의 집안 구조와 조화시키기 위한 각종 장비, 가구들의 특성들을 살펴볼도록 하자.

① 사설극장용 가구: 사설극장은 더 이상 붐비는 극장에 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극장에서 보고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고품질, 고음향을 통하여 영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주택내에 마련된 소규모 극장이다.

일반 극장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안락한 의자

들을 나란히 설치하게 된다. 극장과 같은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주택용 사설극장내에 극장용의자이나 더 고급스런 의자들을 설치할 수 있다. 홈극장의 경우 4인에서 12용, 15인용, 24인용까지 공간이 허락하는 한 크게 만들 수 있다. 이 의자들은 일반 극장처럼 좌석 팔받침대 끝에 음료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의자 이외에 내부의 음향시설 설치, 전반적인 극장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각광받고 있다. 상업용극장 설계에 도입되었던 설계원칙들, 예를 들어 스크린과 의자들과의 거리, 각도와 같은 전문 원칙들을 활용 사설 주택극장설치에 이용하고 있다.

② 홈티어터 센터: 홈티어터 센터는 홈티어터 장비들과 각종 주택 소품들을 함께 놓을 수 있고 책장 역할도 할 수 있게 만든 광범위한 대형 캐비닛이라고 볼 수 있다. 크기로도 주택의 거실 한 벽면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디자인된다. 멀티미디어의 모든 장비들을 한 곳에 다 설치하게 만든 이 가구는 한 벽면전체를 커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실 내에 안정감을 주면서 거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가구로 등장하고 있다. 비싼 홈티어터 장비에 맞추어서 비싼 목재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 업체들의 다수등장으로 큰 폭으로 가격하락이 되고 있다.

③ 홈티어터 캐비닛: 홈티어터 캐비닛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도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다이아몬드 케이스사이다. 이 회사의 경우 다양한 모델의 캐비닛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캐비닛 안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등을 따로따로 정리하여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각종 홈티어터 장비들의 보급과 각종 테이프들이 어지럽혀지는 집안분위기를 없애고 깨끗하게 캐비닛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 그러나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텔레비전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벽 장착형 캐비닛이다.

④ 벽 장착형: 기존의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게 만든 캐비닛, 책장들을 완전히 주택의 한 벽과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주택의 한쪽 벽은 캐비닛이 벽 안쪽으로 설치가 되게 된다. 벽 표면에는 캐비닛의 겉 프레임만 나오게 된다. 스피커를 비롯하여 캐비닛 몸체는 모두 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대형 스피커, 텔레비전, 오디오·비디오 장비들을 주택 거실에 설치하는데 따르는 공간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텔레비전 역시 스크린만 벽면위에 나오게 함으로써 훨씬 간단하고 세련된 멋을 만들 수 있다. 텔레비전의

화면에 여러 가지 색깔의 화상이 나오게 됨으로 벽면의 마무리재 색상이 너무 눈에 띄는 색이 되어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게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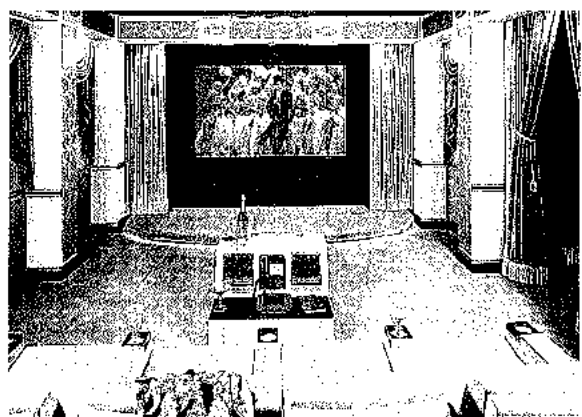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와 같은 주택 엔터테인먼트센터와 그 인테리어는 이제 더욱 주택의 일부분으로 굳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혼잡한 도심에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영화 감상, 음악감상을 비롯하여 3차원 화면에서 각종 오락게임 및 전원풍경의 연출로 주택내에서 여행을 가지 않고도 각종 여행지의 풍경을 배경으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첨단 영상, 음향기기들과 주택엔터테인먼트가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IMF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택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상품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나아가 21세기 미래주택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여 나갈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다양한 홈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인테리어를 설치할 수 있는 설계업체와 건설업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도 어둡다.

그러나 몇 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은 명확하고, 현재에 건축되고 있는 빌라나 전원주택 역시 곧 닥쳐올 이와 같은 수요에 대비하여 내부 인테리어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경직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믿는다.

*http://www.lstent-const.com
E-mail: @lstent-const.com



미래주택: 인방극장과 인테리어의 변화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ACA-8) 참관기(I)

Report on the Eigh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본협회 국제위원회

올해 아시아 건축 총회는 적도에 가까운 열대의 나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총 회원국 15개국 중에서 몽고, 마카오는 국내 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하였고 본 협회에서는 김영수 전회장 이장근 국제위원장 이근창 위원이 이사회 대표로, 김지덕 위원 유건 위원이 교육위원회 대표로, 오근석 위원과 협회 사무국 손경익 대리가 읍저버로 참석하였다. 학생징배리에는 97년도 학생부문 건축상 수상자와 자원자를 포함 6명이 합류하였으며 본 협회 회원 3인도 읍저버 자격으로 참관하여 총 16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내전으로 수도인 콜롬보 시내 가로 주변에는 무장한 남·녀 군인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으며 주요 건물의 출입도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였다.

ARCASIA ACA-8 Programme(8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Srilanka 10~14th Nov. 1998)

Date	Type of Meeting	Time	Venue	Tea/Lunch Venue and Time
10 th Nov	Fellowship Meeting ARCASIA	9:00 am - 5:00 pm	Gregory Room	M/Tea 10:30~10:45 am
	CAA Meeting	5:30 pm - 7:30 pm	Gregory Room	Lunch - on Golden Pond From 1:00 pm to 2:00pm
	Office Bearers Meeting ARCASIA	5:00 pm - 6:00 pm	Regency Room	Afternoon Tea 3:30~3:45pm
	Mee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CASIA	6:30 pm - 7:30 pm	Regency Room	
	Welcome Cocktail	7:30 pm	On Golden Pond	
	Fellowship Dinner	8:00 pm	Noblesse-Trans Asia	
11 th Nov	Inauguration of ARCASIA Council Meeting	9:00 am - 10:00 am	Crystal Room	M/Tea - 10:30 - 10:45 am
	ACASIA Council Meeting (Group Photo)	10:30 am - 5:00 pm	Crystal Room	Lunch on Golden Pond 1:00pm to 2:00pm
	ACAE Meeting (Group Photo)	10:30 am - 5:00 pm	Gregory Room	Afternoon Tea 3:30 - 3:45 pm
	Deans & Heads of Arch. Institutions & Universities	2:00 pm - 6:00 pm	Regency Room	
	SAARCH Council Meeting (Group Photo)	5:30 pm - 6:30 pm	Gregory Room	
	Cocktails	7:30 pm	On Golden Pond	
12 th Nov	ACASIA Council Meeting Contd.	8:00 am - 4:30 p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CAE Meeting Contd.	9:00 am - 3:30 pm	Gregory Room	Lunch On Golden Pond 1:00pm to 2:00pm
	Inauguration Congress ACA-8	6:00 pm - 9:30 pm	BMICH Main Auditorium	Afternoon Tea 1:00 - 2:00 pm
	Cocktail Buffet	9:45 pm -	On Golden Pond	
13 th Nov	Inauguration	9:00 a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Sessions	9:15 am - 10:45 am	Crystal Room	Lunch Roof Top 1:00pm - 2:00pm
	Mahaweli Marine Presentation	10:45 am 11:00 am	Crystal Room	
	ARCASIA Students Prizes- Judging	9:00 am 12noon	S.L.I.A. Auditorium	
	Cocktail	7:30 pm	Sapphire Ballroom Intercontinental	
14 th Nov	Inauguration	9:00 a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Sessions	9:15 am - 5:00 pm	Crystal Room	Lunch - Roof Top 1:00 - 2:00pm
	Asoka Glass Presentation	10:45 am - 11:00 am	Crystal Room	Afternoon Tea 3:30 - 3:45 pm
	Award of Students Prizes	8:30 pm - 9:30 pm	Show Boat	
	Fellowship Night Dinner	8:30 pm	Roof Top Ballroom Taj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보고

ACASIA ACA-8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Jeong-Keun

하루를 오전과 오후의 2개의 회기로 나누어 이틀동안 진행하였다. 이중 첫 번째 회기의 초반에는 개회식 행사가 있었고 마지막 회기의 후반 부에는 토론과 보고자의 보고가 있었다.

각 회기는 회기 집행장이 발표자들을 소개하고 발표자의 발표시간 조절 및 발표후 2~3명의 질문을 받아 사회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회의장 Lakshman Alwis 교수의 개막 인사후에 촛불켜는 의식이 이어졌고 콕스씨의 발제강연을 시작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13일 오전 - 개막회기, 오후 - 산업에서의 건축사, 14일 오전 -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오후 - 건축사 교육의 혁신, 마지막 회기의 중반에는 보고 책임자 비두라 스리 나무니씨가 대회 발표의 요지를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13명으로 이중 홍콩의 터니 리 교수는 원고만 제출하고 참석치 않아 발표문만 제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반부는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것이었고 후반부는 건축교육에 대한 것이었는데 13개의 발표문중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것 5편, 건축교육 4편, 기타가 4편이었다.

발제강연

호주의 필립 콕스가 대회주제와 동일한 제목 하에 건축과 도시 및 자연과 문화, 그리고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사의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인간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일별하고 Anwar Fazal을 인용하여 균형과 조화의 문화, 신용과 배려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책임의 문화를 건축전문인의 덕목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두가지 큰 변화중의 하나는 건축전문직 수행에 있어 종전의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설계·건설이 통합된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건축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창작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엔지니어들처

럼 경영과 수량의 개념을 배우기 보다는 주로 창작성과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건축직업 환경에서 호주의 예만 들더라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중간규모의 사무실은 도태되고 대형 사무실과 소형 사무실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가오는 세기에 있어서 건축 전문인이 지향할 바는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에너지에 대한 관심, 서로 다른 문화간의 교류와 공존, 다른 전문 직종 또는 다른 건축사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동,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의 유연한 적응성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고이치 나가시마는 미래사회에서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성과 지역성의 조화라고 못 박았다. 정보화와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침윤해 가고 있는 세계화가 한 국을 이룬다면 사람의 일상활동과 지역문화를 일탈시키고 있는 그러나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성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필요성이 다른 하나의 국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는 은밀한 대국적인 차원의 힘들과 전자매체에 의해 성립한 가상의 세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평가되고 부당하게 무시되어 온 지역문화와 구체적인 장소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성을 회복하는데 인간의 에너지와 의지력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리랑카의 실바의 발표요지는 스리랑카 건축 유적지의 보존에 대한 것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1978년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기원전 2세기까지 그 기원이 올라가는 아누라다푸라, 폴로나루바, 칸디 등 3개의 옛 수도를 연결하는 문화 삼각지대의 발굴과 보존 및 연구, 홍보에 대한 경과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십년 전에는 다방면의 종합계획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자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캠페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내용이었다.

인도의 비네이는 외국 건축사들이 아카시아

지역에서 실무에 참여하는 조건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건축가 연맹에서 전문직 실무위원회(PPC)가 이 문제를 다루듯이 아카시아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기구가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적합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전체 발표내용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사들에게 많이 부족한 경영에 대한 논의였다. 이들 발표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아시아에서의 건축실무 관행과 교육이 사업환경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고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라다임'의 혁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추세와 정보기술 산업의 대두는 건축사에게 경영력과 지도력의 면에서 많은 관심과 배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건축사는 다른 산업과 상호의존적이다. 우리는 건축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경력과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사무영역에서 우리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전에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사는 좀 더 사무소의 조직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회사(사무소)는 제품을 삼는 수레가 아니고 오히려 제품이 사무소를 끌고가는 수레라는 것이다. 건축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전문직 모델을 만들어 사회의 필요에 밀착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전문직의 모델을 만들어 사회의 필요에 응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의 건축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건축의 사업성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훈련의 쇄신

건축교육에 대한 논자들은 건축사의 역할구조에서 처럼 오늘의 산업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전문직의 실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반성하고 변혁을 요구하며 새로운 교육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건축교육은 2차 대전후 식민통치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경제적 팽창에 맞추어 재건사업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서구의 예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서구의 건축교육은 바우하우스와 보자르에

기원하는 것으로 설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역사이론, 건축과학, 구조 등의 지원과정을 배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경제의 조건은 복잡하고 다기한 기술과 복합응도 및 고밀도, 에너지 소비, 가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사는 이제 마스터 빌더가 아니고 문제해결사여야 하며 복합적인 과정에 적응하여 팀의 일원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계스튜디오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노출되곤 한다. 첫째,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과 역사적인 지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다른 대안 코스(과목)를 많이 회생시킨다. 셋째, 표현과 외양에 대한 강조가 건축의 복합적 차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넷째, 현재 우세한 도면형식, 모형,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실제 건물의 건설 등 조건과 동떨어져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미래에 출현할 건물과 재료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보다 과감하게 실험적이어야 하고 교육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테이 켄순은 아시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카시아 건축학교를 200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의 학생들을 서구 학생들에 비해 그 문화적 특성과 성장과정의 차이 때문에 권위에 대한 의식과 자발적 동기의 특성에 있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설계스튜디오 교육이 미적인 감각을 키운다는 것은 오류이며 스튜디오는 단순히 미적인 혼란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형태 창조에서는 내포성(Connotation)이 외포성(Denotation)을 압도하여서 의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형태와 공간의 외포성(표현화)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순 형태를 이용해 실제와 기능성의 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구상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지어서 수확과정 기간동안 그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학교는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사회와 산업의 필요에 응해야 하며 이 아카시아 건축학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이 지역의 여타 교육기관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안지 주 교수가 발표한 심천의 건축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심천시는 불과 20년전(1979)에 시로 출발했고 건축대학은 1983년에 설립되었지만 심천의 경제적 팽창과 급격한 건설계획의 대두에 맞추어 건축의 소요 인력을 배출하고 골목할 만한 연구개발 실적을 아룩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미 40년전에 영국에서 주장된 바 있는 의과대학을 모형으로 한 건축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대학과 자매기관으로 건축설계

원이 설립되어 교수가 연구와 실무 및 교육과정에 순환적으로 참여하여 이 세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부문에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원에서의 수입은 학생들의 연구여행 및 장학보조, 교수들의 연구여행 및 해외발표 등에 배분되기도 하며, 연구의 축적으로 인해 더 많은 중요한 설계를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종합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8회 건축사대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내년에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게 될 아카시아 포럼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리

랑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성의를 다 했다 할 수 있고 주제가 주는 메시지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면에서 발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회기별 발표의 배분이 불규칙한 점 등에서는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영어를 일상언어로 쓰지 않으므로 의사전달방법과 진행에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이에 알맞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로 논의된 건축사의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상의 확립과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시기적으로 절실한 주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면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어 다음 세기에 대응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19차 아카시아 이사회 참가보고

19th ACARSIA Council Meeting

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
by Lee Keun-Chang

개회

제 19차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는 1998년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타지 사무드라 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Sri Lanka의 전통적인 점화 의식을 시작으로 이사회, 교육위원회, 학생잡버리가 동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현 협의회 회장인 Mr. Surath Wickramasinghe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세기를 맞을 때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땅에서 추출된 자원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건축물에 사용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병행해서 연구하여 각 나라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땅을 사용하여 축조되는 건축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가들의 역할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뒤이어 국제건축가협회(UIA) 감사(Secretary General)로 있으며 차기 회장에 입후보할

Mr.Sgoutas는 축사에서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건축에 관련된 광의의 목적과 상식적인 행위에 부합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각국이 처하고 있는 문화와 고유의 유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건축가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 운영 업무의 절차와 기준은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UIA의 입지를 설명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계속해 영연방 대표, 전 AIA 회장, 오스트리아 건축사협회 회장, 스리랑카 신세대 장관(Ministry of New Generation)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는데 공통적으로 각국별 정의와 업무가 상이한데 Profession을 어떻게 척도할 것인지, 건축물의 설계와 환경보호와 어떻게 연계하여 전문업적 적용시킬 것인지, 자유무역에 따른 건축설계 영역의 세계화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시아 국가의 확고한 입장과 권리의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사항이 심도있게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 개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본 기구가 아시아 건축

사의 입지와 책임을 정리하는 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본 회의

본 안건 토의에 앞서 1997년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Forum 9의 회의록은 일부 오차를 수정하여 통과되었다.

회의 Agenda에 관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순서에 의하기로 하고 재무 보고가 끝난 후 다음 사항이 논의되었다.

1. 회비 인상건

현재 회원국 당 미화 500달러씩(일부 회원국은 GNP를 고려 250달러 또 100달러씩) 납부하고 있는 회비가 운영비로 충분치 않아 15% 인상안이 제시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각국의 GNP 또는 GDP에 의해 차등 납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혼란한 환율이 재정비되고 신입 회원국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2년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 또한 재원의 확보를 후원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와 같이 모금된 기금의 잉여분은 개최국의 수입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방글라데시는 자발적으로 금년부터 200달러씩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2. DESIGN & BUILD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Design - Build 개념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아직 아시아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공사금액과 시간, 품질이 어우러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건물 구매 조건이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건축설계의 고유 부분이 잠식당하는 책임을 서로 인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3. ARCASIA DATA BANK

말레이시아에서 구축한 Data Bank에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과 정보를 비축하기로 하였다. 이 Data Bank를 아시아 건축상과 건축자재의 홍보와 연계하여 제 2단계로 확충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이익(광고 수입)등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와 무관하게 진행하되 2년 후 진행과정은 2년 보관 후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적극 참여를 주지시켰다. 이에 따라 Web Site나 Home Page가 구축된 회원국의 통신망 주소를 말레이시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4. ARCHITECTURE ASIA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본 잡지가 발간되어 각 회원국에게 10부씩 무료로 배부되었고 국내에서 송부한 작품은 제작과정에서 설명서의 Text 변환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

여 단 한 개 작품, 울산 현대미술관만 게재되었다. 추후 해외에 송부하는 영문 Text는 꼭 Dxf, File로 작성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한 부에 7달러씩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우송료는 별도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5. HERITAGE

현대 건축물의 설계와 더불어 축조된 건축물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각 회원국에서는 보호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여 본 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일반인에게도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성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10달러씩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 세부사항을 조사·연구토록 하였고 각 회원국은 우선 지정된 건축물 한 개를 5년간 무료로 보호하는 전문 용역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건축물은 본 협의회 보호 건축물 대상에 수록되며 회원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시에는 신청비를 5달러씩 받기로 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에서 본 사안으로 행사를 시행할 때 등록비의 0.5%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적립하기로 하였다.

6. HAND BOOK 및 CHECK LIST

본 협의회 규정 및 세부 운영규칙의 보완 및 수정이 논의되었고 총회 행사 중 아카시아상에 대한 수상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Forum 기간에 시행하기로 하여 내년에 시행하기로 수정하였고 수정본에 대해서는 표지의 색깔을 달리 하여 최근본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7. 건축 교육

국제적인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축교육은 건축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각 회원국의 실상을 홍콩의 Ron Poon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제출하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정하기로 하였다. 부연하여 각 회원국에 요청한 건축사 보수기준과 건축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속히 제출하기로 요청하였다. 제출된 내용은 정리하여 회원국의 위상에 적절한 Arcasia Model을 작성하여 UIA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8. GATS/WTO

세계무역기구의 요청에 따라 UIA에서 제시한 상호인증 표준안에 대한 ARCASIA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UIA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전문직의 상호인증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UIA가 제시한 표준안은 전문용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안으로 본 협의회는 전면 거부한다.

3) UIA가 제시한 표준안은 본 회원국의 현황

이 파악되지 않고 일부 선진국에서 작성된 독단적인 것이며 건축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2월에 개최되는 Washing D.C 회의에 말레이시아 Dato Hjesa Mohamed 전 본 협의회 회장을 파견하여 본 협의회에 입장을 표명한다.

5) 각 회원국의 실정에 적절한 내용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건축가의 역할을 주지시킨다.

6) GATS/WTO 또는 ARCASIA의 입장을 전달한다.

7) 내년 개최될 북경 UIA 총회에 아시아 국가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고 본 회원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UIA에 제출토록 한다.

9. ARCASIA상

금년도 Arcasia상 수상은 각 부분별 단독주거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공동주택 부문은 일본, 공용부문의 연구시설에는 인도, 산업시설 부문에는 한국의 최송원씨가 설계한 "원산업 천안공장", 문화유산 부문에 일본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내년도 Forum 개최국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10. FORUM 10

내년도 Forum 개최 신청은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경합하였다. 전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다시 상정되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 ARCASIA 기본정신과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개최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 협회 또한 내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된 사실 등 국내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결국 무기명 투표에 의해 13개국 중 7표를 얻어 다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세부일정과 내용은 한국에서 조정한 후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11. ACA - 9

2000년도의 총회 개최지 신청은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경합하였으며 10:3의 투표 결과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다.

12. 임원 선출

다음 회기 본 총회 회장에는 말레이시아의 P. Kasi가 단독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Zone "A"에서 인도의 Atul Desai, Zone "B"에서는 홍콩의 Edward D Silva, 우리 협회가 소속된 Zone "C"에서는 일본 Hozumi 교수가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다. 교육위원회 회장에는 태국의 Wadi 교수가 재선출되었다. 또한 UIA Region IV 에 할당된 부회장에는 말레이시아의 Dato Hisham을 추천키로 합의하였다.

13. 신입 회원국 가입

작년부터 가입을 희망하여 읍제버로 참가했던 베트남 건축사협회 가입신청이 논의되었고 모든 여건을 Hand Book 에 의거하여 부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회원국으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네팔의 대표도 입회신청을 위해 읍제버로 본 회의의 진행을 참관하였다.

제7회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참가보고

7th ARCASIA Student jamboree

양명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by Yang Myung-Suk

11월 9일~10일

일탈의 기회가 주어졌다.

건축을 한다는 막연한 상상과 현실과의 괴리

감에 버거움을 느끼며 방향감을 상실한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하지 않았던 여행 기회가 주어진 것도 그렇지만 더더욱 목적지가 "스리랑카"라는 너무도 낯선 이국땅이라는 것 만으로

도 필자에게는 분명한 자극이었고 일탈일 수 있었던 것이다. 여행의 목적은 분명 아시아지역 건축소통의 장이자 다분히 교육적 성격을 띤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했던 일상의 짐들을 잠시나마 벗어던져 버리고픈 낯다른(?) 속셈이 가득했던 것이다.

어쨌든 발길은 새벽같이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행을 만나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경유지인 싱가포르에서는 서너시간 정도 머물며 버스로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깨끗하고 이국적이면서도 다양한(나쁘게 말하면 국적불명의) 건축들이 공존하는 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기에 그저 파상적인 분위기만을 눈에 익힌 정도였다.

밤이 깊어서야 콜롬보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후덥지근한 공기 그리고 활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갑자기 닥쳐온 환경적 변화가 더욱 어리둥절케 만들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여장을 풀었다.

11월 11일

아침에 세미나에 참가했으나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주제역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활한 토론이 되지는 못했다. 영어가 매우 짧기도 하였고... 오후에는 콜롬보를 둘러보는 시간과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1월 12일 - 13일

시기리아, 간달라마, 아누라다푸라, 미한탈레 등 난생처음 들어보는 그들의 유적과 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스리랑카의 현대건축가 제프리 바와의 건축을 둘러보았다.

시기리아(Sygyriya)는 정글속을 한참을 뚫고 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

바위산의 원경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표정을 달리하였고 점점 더 압도적인 형태로 그 구체적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상과 기운은 묘한 힘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이 바위산에 왕궁을 지은 고대의 왕과 가족 사에 얹힌 파비린내 나는 권력과 욕망의 다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인간적 고독감이 싸한 파넬새를 머금은 채 그들에게 이 방인일 필자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

제프리 바와가 설계한 호텔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밤이되어 있었다. 그의 건축은 풍토적이면서도 국제적이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동시에 변화무쌍한)공간이 연속되었고, 풍부하면서도 정교한 토속적인 텍스처와 조형처라는 신

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건물이 끌어안고 있는 스리랑카의 자연은 그의 건축과 함께여서 더욱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밤의 어둠속으로 고요하게 내려앉은 모습이었다.

밤에는 그들의 민속공연과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행사가 있었고, 우리는 한없이 유치해지면서도 즐겁게 토크할 수 있었다.

11월 14일

다음날 낮시간에 호텔에 다시 들를 수 있었다. 낮의 분위기는 밤의 그것과 또 다른 것이었다. 밤의 적막속에 묻혀있던 실체를 적나라하게 대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몇 군데의 사원과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조각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일견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지금 몬순기여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순식간에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비를 쏟아붓곤 한다. 이런 것도 ‘이국’ 땅에 와 있음을 자극하는 듯 했다.

콜롬보로 돌아와서 일정을 마치는 행사를 하고 ‘Architecture for the Asian Century’라는 주제의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한국학생대표로 같이 간 강효진 씨가 1등상을 받았다. 우리 모두들 아주 기뻐했고 이런 기분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아주 재미있고 활기있게 보낼 수 있었다.

11월 15일

그곳을 떠나던 날, 제프리 바와의 주택들을 둘러보고(그의 주택은 무척이나 개방적이어서 내외부의 공간이 여러방식으로 열려 있었다. 이곳의 풍토여서 가능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무척이나 인상깊게 느껴졌다.) 여러나라 친구들과 같이 재잘거리며 식사를 하고 아쉬움을 달래며 고국으로 향했다.

그 이후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일상으로 무척이나 바쁘다.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다. 스리랑카로의 여행과 학생잼버리참가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하는 문제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많은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 같다. 사람을 만나는 일과 새로운 것을 대하는 속에서 차별화된 나를 찾고자 하는 내면의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협회소식 / 90

건축계소식 / 94

현상설계 / 100

해외잡지동향 / 107

전시리뷰 / 113

회원현황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협회소식 KIRA news

98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내년도 예산 초간축 편성
서울 등 12개 시도건축사회 산업회장 선출,
충북·전북 회장은 유임

〈시·도건축사회 신임회장 명단〉

서울 우남용(가나건축사사무소(주))
부산 이봉춘((주)비전건축사사무소)
광주 안태경((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 석종구(석종구 건축사사무소 루트)
울산 서천수(현대 건축사사무소)
경기 손 영(진흥 건축사사무소)
강원 박세진(박세진 건축사사무소)
충남 김현용(흥성 건축사사무소)
전남 최윤호((주)원 건축사사무소)
경북 전재기(건축사사무소 서영건축)
경남 박형규(마산 건축사사무소)
제주 김석윤(건축사사무소 김건축)

－유임

충북 오선교((주)선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 이상돈(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우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9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11일(수) 15:00 ~
- 장소: 제주하늬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65명중 42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대의원수 변동에 따른 총회참석비 부분을 수정하여 총규모 105,000,000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부회장 선출방법에 있어 임원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본협회 정관에 의한 선출방법을 택하기로한 원안을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김석윤(신임)
 - 간사: 김운옥, 오용화
 - 감사: 고영중
 - 대의원: 김석윤(임기2년 당면직)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19일(목) 14:00~
- 장소: 현대빌딩 15층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212명중 109명
- 의결내용
 - 운영재원 기채 추인의 건
 - 세수부족에 따른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23,420,200원을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본부로부터 기채키로한 원안대로 승인
 - 잡수입에 대한 협회자산화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총규모(370,000,000원)는 변동없이 항목계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초간축 예산편성을 위해 기존 계속사업(장학사업)을 폐지하고 또한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 내지는 사업비를 대폭 축소 추진키로 하는 등 99년 총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2.7% 감액한 175,000,000원으로 편성한 원안을 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간사(2인): 회장에 위임
- 감사: 황일권

• 자체대의원 도입에 관한 건

- 협회 정관개정에 따라 대의원선출방법은 회원 3인이상의 서면추천제로, 대의원구성은 선출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 혼합형으로, 정족수는 '정회원수의 1/3이상' 등으로 정한 원안 승인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0:30 ~
- 장소: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630명중 34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예산액보다 134,475,000원이 증액된 533,667,735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건축문화의 해' 와 연계해 시민건축대학, 회원작품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98년도 예산액보다 18%가 감액된 총규모 327,813,000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 임원개선

- 회장: 이봉춘
- 간사(5인): 차기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 감사(2인): 조정덕, 박선호
- 대의원(12인): 차기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0:00~
- 장소: 한솔오코밸리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53명중 9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추경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총규모: 434,370,021원)
 - 99년도 운영회비 산출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조정된 과목을 제외한 항목은 99년도 임시총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전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후 추후 승인발도록 의결)
 - 정관개정에 따른 총회운영 방안 결의의 건
 - 현행대로 운영키로 결의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박세진(신임)
 - 간사: 이인호(신임)
 - 감사: 박상돈(신임)
 - 대의원: 이국남, 김화영, 김길창(유임), 정상원(신임)

○ 전라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0일(금) 11:00~
- 장소: 광주 추선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00명중 76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회비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의 30%를 삭감한 총 212,332,710원의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8년도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총 100,105,000원의 초건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최윤호(신임)
 - 간사: 최재철, 국원식, 이재필, 김용휘
 - 감사: 윤순하, 김호신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3일(월) 13:30 ~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참석인원: 재적회원 2,714명중 835명
- 의결내용
 - 사무소 조직 및 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구건축사회 직원조정(안)은 신임회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 조직 및 정원 조정(안)은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 제1차 경정예산보다 142,628,575원이 증액된 1,102,628,575원의 2차 추경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초건축 예산편성을 위해 각종 필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일반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전년도보다 36.9%를 감액한 총규모 1,327,424,265원의 99년도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본협회의 재정지원금(공정위과장금)을 추가편성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동의
 - 대의원 선출 및 보선의 건
 - 대의원 선출의 80%는 구건축사회에서, 20%는 집행부에서 선출키로 함
 - 임원선출 및 개선의 건
 - 회장: 우남웅(신임)
 - 간사(6인): 신임회장에게 위임
 - 김득수, 김수화, 김영덕, 박영식, 송평문, 조민행 회원 선출
 - 감사: 이영복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4일(화) 10:00 ~
- 장소: 울산건축사회관 5층 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122명중 96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건축운영을 전제로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18,896,861원을 삭감한 227,783,139원의 9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9년도 사업 기본방향을 경기침체로 인한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적극적 경영으로 경영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제 경비위주의 세출예산을 반영해 추진키로 한 사업계획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액 보다 10% 감액된 총규모 222,500,000원으로 편성한 99년도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운영회비 납부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서천수(신임)
 - 감사 (6인 / 부회장 및 보선 2인 포함): 신·구회장이 협의하여 전형위원을 구성 선출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키로 함.
 - 감사: 배기업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00 ~
- 장소: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215명중 169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대관청간담회 등 조사연구사업, 일본 후쿠오카건축사회와의 자매결연등 국제사업, 회원연수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6%,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83% 감액된 총 204,951,220원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안태경(신임)
- 부회장: 진경선
- 감사: 강남구, 김문영
- 감사: 문성식
- 대의원: 안태경, 김상석, 박영희, 윤익상, 이창율, 임재식, 조춘원, 진경선

○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30 ~
- 장소: 충북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7명중 91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독립예산 편성 실시에 따른 사업 활성화와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낭비 및 비효율요인의 제거와 사업의 내실화 및 업무능률의 극대화로 예산을 건축운영하는 방향에서 99년도 예산액 총규모를 98년도 예산액보다 100,000,000원이 감소된 252,000,000원으로 편성)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오선교(유임)
 - 부회장: 신영동(신임)
 - 감사: 김석근, 정철영(신임)
 - 감사: 오덕균, 양철호(유임)
 - 감사: 김영옥(유임)
 - 대의원: 오수복, 정세영, 성낙영(유임)



○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00 ~
- 장소: 농민회관 2층 대회의장
- 참석인원: 재적회원 792명중 449명
- 의결내용
 - 99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 중 운영회비 수입은 20,000,000원 감액하여 전체세입을 650,000,000원으로 조정하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650,000,000원으로 하되 세부항목 감액조정은 회장에 위임키로 함.
 - 99년도 자체운영회비 징수기준(안) 승인의 건
 - 현행 기준대로 징수키로 함.
 - 건축사회 총회 운영규칙(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회장: 손 영(신임)
 - 감사: 회장에게 위임
 - 감사: 윤영호(신임)
 - 대의원: 회장에게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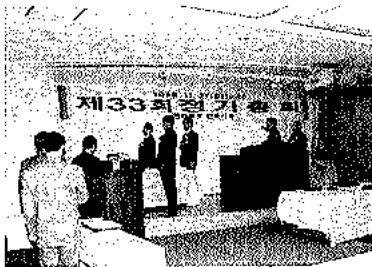
○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30 ~
- 장소: 아산 그랜드파크 호텔
- 참석인원: 재적회원 162명중 84명
- 의결내용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경기불황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실제 경비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8년도 예산액보다 180,820,000원 감액된 321,880,000원으로 편성)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김현웅(신임)

- 부회장(1인), 간사(3인), 감사(2인): 회장에게 위임

○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0:30 ~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회원 177명중 95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 승인(회비수입, 수수료, 기타수입, 이월금수입은 원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본부재정지원금 28,600,000원을 차입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8,600,000원이 증액된 491,500,000원으로 편성)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 승인(회원복지증진사업과 지도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며 99년도 수지예산 총규모는 98년도 1차 추경예산액보다 219,000,000원이 감액된 272,300,000원으로 편성)
- 임원 개선
 - 회장: 이상돈(연임)
 - 간사: 최영배, 임종선, 이진희(유임), 최근영(신임)
 - 감사: 최기주(신임)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8일(화) 10:00 ~
- 장소: 신신예식원
- 참석인원: 재적회원 235명중 14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

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며, 초기추진적인 세출예산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8년도 대비 43%가 감액된 198,902,000원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 임원 개선
 - 회장: 석종구
 - 간사: 이기수, 이길주, 류해관, 이상훈
 - 감사: 김영배
- 대의원 선출
 - 대의원(12인): 회장단에 위임

○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5일(수) 11:00 ~
- 장소: 경주보문단지내 현대호텔 컨벤션홀
- 참석인원: 재적회원 200명중 166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전재기(신임)
 - 부회장: (미정)
 - 감사: 권오웅
 - 간사: 조국환, 금상순, 서종률
 - 지역건축사회장: 김동수(영주), 이덕기(문경), 광기룡(경산), 성문웅(영천)
 - 대의원: 전재기(당연직), 이영기

○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6일(목) 10:30 ~
- 장소: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참석인원: 재적회원 299명중 187명
- 의결내용
 - 재정지원금 차입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8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총회성원구성의 건
 - 정기총회는 전회원으로, 임시총회는 대의원제로 시행
- 임원 선거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박형규(신임)
 - 부회장: 노명환
 - 감사: 송종태, 백종현(잔여임기)
 - 간사: 고보석, 안경호(잔여임기), 윤재학, 김상부
 - 지역건축사회장: 손수일(마창), 김종웅(밀양), 배종수(거창)
 - 대의원: 배동권, 최봉형, 오경수, 백종현, 고보석, 허필도(전임회장)
 - 본회 대의원: 지역건축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고한 명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회장단에 위임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98년 11월 27일(금) 14:00 ~
- 장소: 대구시민회관 2층 소강당
- 참석인원: 재적회원 508명중 32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총규모 619,000,000원)
 -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총규모 357,000,000원)
 - 임원개선의 건
 - 회장단에 위임

「제10회 아시아건축사 토론회」 내년 서울 개최

ARCASIA 15개 회원국
1천여 건축사 참여

99년 아시아건축사 토론회(ACA Forum-10)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 협회 대표단은 지난달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기간 중 열린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에서 내년 아시아건축사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사 역할과 국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열릴 내년 토론회에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와 행사관계자,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기술교류 및 건축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약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내년 행사에서는 토론회와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한국현대건축작품전, 산업시찰 및 건축탐방, 리셉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가의 건축사단체들이 참가해 매년 각국을 돌며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고 또 격년마다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아카시아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또 이들 행사기간 중에는 아시아 건축상,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등 다양한 건축관련 행사가 함께 열린다.

한편 우리 협회는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에 이어 이번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힘써준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란 점에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내년 행사에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의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반대성명 발표

우리 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단체 강제가입 철폐 및 임의설립(안)」에 대해 우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자 주요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최근 규제개혁위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안이 공익성이 강한 단체들의 대국민서비스를 도외시킨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그간 정부가 민간부문에 이양해 온 권한을 다시 환원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작은정부를 지향해온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처사라면서 전문성이 강한 전문자격사는 반드시 구심점이 되는 단체가 제도적으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자격사단체의 공공성·공익성 상실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의설립에 의한 단체의 복수설립이 허용될 경우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공정거래 질서의 문란을 불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 내지는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 대표단,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 참가

일본측 건축계 인사와 양국 우호증진 다져

이외구 회장과 김규태 전임회장, 송기준

감사로 구성된 우리협회 대표단이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표단은 2박 3일간의 방문기간 동안 일본 나라현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41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측 대표단과 양국 건축사단체간 우호증진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단은 한·중·일을 주축으로 결성된 동북아건축교류협의회를 통한 건축기술 교류 및 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활성화하고 향후 친선도모를 위해 자국에서 개최되는 건축관련 행사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방문기간중 일본 건축계 인사들과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접촉을 갖기도 했다.



이외구 회장 축사 장면

최승원작 「원실업 천안공장」, 「아카시아 건축상」 금상 수상

「학생건축상」 최우수상에는
인하대 강효진씨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결과 우리협회 최승원(양가주망건축사무소 대표) 회원이 출품한 「원실업천안공장」이 산업시설부문에서 영예의 골든메달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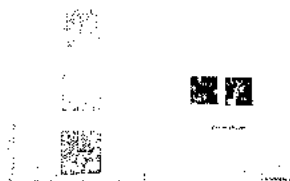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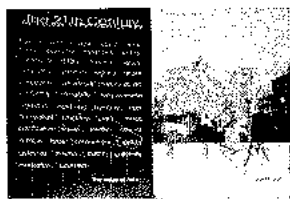
또 「21세기 아시아의 건축」을 주제로한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에서도 지난 10월 '98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작품명 「한강사막물관」으로 은상을 수상해 이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강효진(인하

대 건축공학과 3년)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92년에 제정된 아카시아 건축상은 매년 아시아지역 15개 회원국 건축사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 행사기간중에 개최돼 단독주거, 공동주거, 공공·공익 빌딩, 상업·사무용 빌딩, 산업시설, 정통보전 건축시설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강효진씨가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건축상은 제시된 주제에 맞게 각국 학생대표들이 계획설계작품을 출품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세계건축기행의 특전을 주고 있다.



원삼업 전안공장(최승원작)



We are Here(강효진작)

김영수 전임회장, '98에라도르 건축비엔날레 참가

건축가 김 원氏,
"서울, 도시와 건축" 주제강연

김영수 전임회장과 건축가 김원(광장건축)씨가 우리협회를 대표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라도르 키토시에 열린 '98에라도르 건축비엔날레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에라도르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국제 건축비엔날레에서 우리 대표단은 "서울,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강연하는 한편 남미 등 각국 대표단과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친선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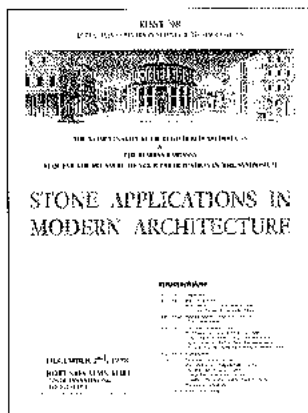
「韓·伊 석재건축 세미나」 개최

"현대건축에서의 석재 응용" 주제로
연구발표 및 정보교류

한·이탈리아 두나라간 석재건축에 관한 교류증진과 공동연구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 12월 2일 서울 한남동 로튼다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대건축에서의 석재 응용'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축사 김석철(아카바 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이탈리아의 석재(The Stones of Italy)'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Raimondo Ciccu(Cagliari 대 교수), P. Blasi, 김완모 박사(서울대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 등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재건축 연구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이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석재건축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그 활용방법을 제시한 자리로 특히 건축재료에 대한 기술교류를 통해 한·이탈리아 양국의 건축문화 교류 및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호남 건축사, 친선 등반대회 열려

전북·광주·전남·경남 회원
지리산 등반

전북·광주·전남·경남 등 4개 시도건축사회의 건축사 회원들이 지난 11월 11일 지리산 연합 등반대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전북건축사회(회장 이상돈)가 주관한 이번 등반대회에는 30여명의 영·호남지역 건축사 회원들이 참가해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동·서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진우종합건축 김동훈 회원, 경기에술대상 수상

예총 경기도지회가 올해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



김동훈 회원

김동훈(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회원이 올해의 경기도예술대상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에술대상은 예총 경기도지회(지회장 송태욱)가 매년 지역 문화계 인사중 건

축·사진·국악·음악·미술·문학·연예·연극·무용 등 9개 부문에 걸쳐 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희원은 문학부문의 성지일(시인), 미술부문의 최정길(경인미술대전운영위원장)씨 등과 함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훈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지난 11월 25일 발대식 갖고 향후 사업추진계획 밝혀



현판식 광경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총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낙균 문화부장관과 이광노(서울대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윤도근(홍익대 건축과 교수) 김영수(본 협회 전임회장) 부위원장,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건축관련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상징도안 공모 당선작 시상식,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조직위는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활동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문화국가 이미지의 세계화를 창출하기 위한 밀레니엄사업을 비롯해 지역·도시의 정체성 찾기, 건축문화자산의 개발, 건축의 위상정립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건축문화의 해' 상징도안과 표어가 공개됐는데 엠블럼부문에서는 안중돈(건축설계 프리랜서)씨 작품이, 로고부문에서는 최 건·이재운(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응모작이, 표어부문에서는 하세련(주부)씨의 응모작이 부문별 당선작에 결정됐다.



'99건축문화의 해 공식 엠블럼 및 로고

포스에이씨 + 케이씨건축,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

연면적 7백 40평 3층 RC조 건축물

2000년 5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에서 POS-A.C(대표 심인보, 이강우)와 케이씨건축(대표 공 철)의 공동설계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한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대지 1천1백여평, 연면적 7백4십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철골과 RC조로 건축될 예정인데 우리의 자연과 공간의 선적 이미지, 보자기 등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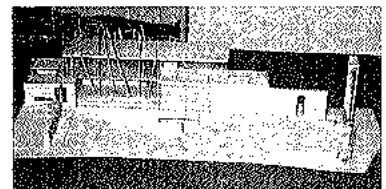
제1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에 천병권 김기훈 공동작 '양동 1998'

천병권, 김기훈씨의 공동출품작 '양동 1998'이 제1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일반공모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울산건축사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이질문명의 만남'이 주제로 제시된 가운데 총 60점의 작품이 응모, 이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佳作 2점 등 총 42작품이 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전민영씨의 '고요'와 이호수 하화진(동아대 4년)씨의 'Cross of Faith' 등 2점이 차지했으며佳作는 박상준 김성남(대전대 3년)씨의 'In and Out'이, 입선에는 구재형씨의 '양동 열린교회' 등 3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들 일반공모전부문 수상작들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건축가 유진두(부명건축), 김기원(예원건축)씨 등 17인의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됐다.



양동 1998 (김기훈, 천병권작)

축·사진·국악·음악·미술·문학·연예·연극·무용 등 9개 부문에 걸쳐 예술발전에 공을 세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희원은 문학부문의 성지일(시인), 미술부문의 최정길(경인미술대전운영위원장)씨 등과 함께 건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훈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지난 11월 25일 발대식 갖고 향후 사업추진계획 밝혀



현판식 광경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총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낙균 문화부장관과 이광노(서울대 명예교수) 조직위원장, 윤도근(홍익대 건축과 교수) 김영수(본 협회 전임회장) 부위원장,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건축관련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상징도안 공모 당선작 시상식,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조직위는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활동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문화국가 이미지의 세계화를 창출하기 위한 밀레니엄사업을 비롯해 지역·도시의 정체성 찾기, 건축문화자산의 개발, 건축의 위상정립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확정된 '건축문화의 해' 상징도안과 표어가 공개됐는데 엠블럼부문에서는 안중돈(건축설계 프리랜서)씨 작품이, 로고부문에서는 최 건·이재운(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응모작이, 표어부문에서는 하세련(주부)씨의 응모작이 부문별 당선작에 결정됐다.



'99건축문화의 해 공식 엠블럼 및 로고

포스에이씨 + 케이씨건축,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

연면적 7백 40평 3층 RC조 건축물

2000년 5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에서 POS-A.C(대표 심인보, 이강우)와 케이씨건축(대표 공 철)의 공동설계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한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대지 1천1백여평, 연면적 7백4십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철골과 RC조로 건축될 예정인데 우리의 자연과 공간의 선적 이미지, 보자기 등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스포2000 하노버 한국관」 현상설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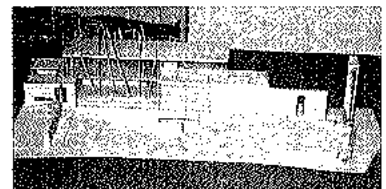
제1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에 천병권 김기훈 공동작 '양동 1998'

천병권, 김기훈씨의 공동출품작 '양동 1998'이 제1회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일반공모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하고 울산건축사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이질문명의 만남'이 주제로 제시된 가운데 총 60점의 작품이 응모, 이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2점,佳作 2점 등 총 42작품이 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전민영씨의 '고요'와 이호수 하화진(동아대 4년)씨의 'Cross of Faith' 등 2점이 차지했으며佳作는 박상준 김성남(대전대 3년)씨의 'In and Out'이, 입선에는 구재형씨의 '양동 열린교회' 등 3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들 일반공모전부문 수상작들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건축가 유진두(부명건축), 김기원(예원건축)씨 등 17인의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됐다.



양동 1998 (김기훈, 천병권작)

제15회 건축가포럼

“한국건축가의 세계진출” 주제로
12월 8일 홍사단강당에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서울 홍사단강당에서 「제15회 건축가포럼」을 개최한다.

‘미국건축설계의 프로세스 및 한국건축가의 세계 진출’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경원대 박항섭 교수의 사회로 재미건축가 허승희(레오나드 파커社)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무웅(단국대), 이특구(서울시립대) 교수가 비평을 맡는다.



제3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대상에 「향린빌라」,
「장신대 도서관·학생회관·강당」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심사결과 최동규(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설계하고 코오롱건설이 시공한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이 비주거부문 대상을, (주)모람건축 김홍수씨가 설계하고 일건주택건설이 시공한 향린빌라가 주거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금상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주) 건원 광흥길·김종국 설계, 유원건설 시공)과 「달빛마을 다가구주택」(대유건축 유봉열 설계, 도우건설 시공) 두 작품이 수상했다.

올해 경기도건축상에는 총 83점이 응모해 작품집과 현장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주거, 비주거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등 모두 13개 작품을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順)

대상

-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 / 최동규(서인종합건축) / 코오롱건설(주) / 장신대학교
- 향린빌라 / 김홍수((주)모람) / (주)일건주택건설 / (주)대우, (주)일건주택건설

금상

- 대한주택공사 본사 사옥 / 광흥길, 김종국(건원건축) / (주)유원건설 / 대한주택공사
- 달빛마을 다가구주택 / 유봉열(대유건축) / 도우건설 / 유주선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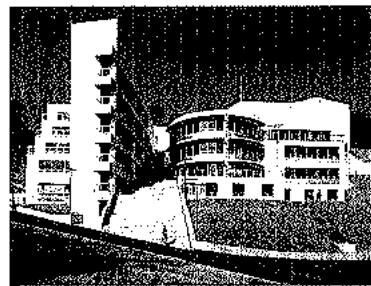
- 수원인계동빌딩 / 이종철(원우건축)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삼성물산(주)
- 곤지암 K씨 주택 / 함덕호(모람건축) / (주)모람 / 김준우

동상

- 보람유치원 / 한경섭(한건축) / 인경종합건설(주) / 신서호
- 무을재 / 조병욱(동원건축) / (주)주웅건설 / 심재익, 김경혜

입선

- CAFE en ROSE POISE II / 천근우(디장인그룹 아방건축) / 최범찬 / 이강철
- 힐타운 / 윤상국(관건축) / 권을성 / 권을성
- 해관재단 어린이집 / 최승원(양가주망건축) / 조영연영 / 해관재단 오영기
- 분당 다원 빌리지 / 김성택(한인종합건축) / 다원건설 / 신용기
- 버들피리 / 김영록(영건축) / 임용란 / 임용란



장신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강당



향린빌라

인터넷 사이버 조형전 「cyDEX '98」

국민대 조형대학 6개 전공영역
종합 디자인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디자인전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건축,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예, 의상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6개 학과와 사이버디자인학부, 디자인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민대 조형대학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디자인전을 개최한다.

‘21세기의 키워드를 찾아서’란 주제의 이번 인터넷 조형전에는 1천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본과제전시를 비롯해 국제 사이버디자인 작품들이 소개되며 일반을 대상으로한 사이버디자인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디자인의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쇼퍼몰이 개설돼 있으며, ‘문화디자인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문화인사와 예술가, 디자이너들이 쌍방향 토론을 벌이는 사이버좌담회도 중계된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ydex.org>

경기대 건축대학원 건축展

포스코센터에서 오는 10일까지 전시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98학년도 2학기 건축전을 갖는다. 이번 건축전에는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3개 디자인스튜디오 학생들의 가을학기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 건축사진, 조형에 술과정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기간 중에는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민선주(위가건축 대표), 박영건(범건축 대표)씨 등이 비평건축가로 참가하는 공개비평회도 열린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 (02-390-5245~6)

건축가 최두남 초청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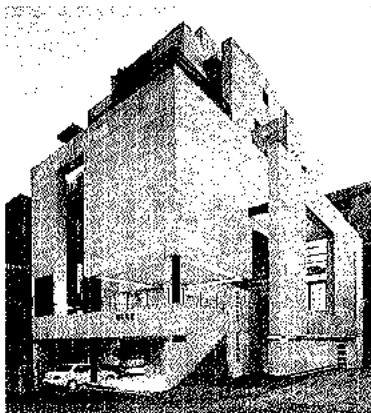
C3그룹 주최,
주제는 '건축적 경험의 실제'

월간 KA와 C3그룹이 공동주최한 「제5회 C3포럼 - 건축가 최두남 초청강연회」가 지난 11월 6일 연세대 제3공학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론화 과정으로서의 작업'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김종규씨는 자신의 건축을 가리켜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면서 "건축적 경험의 실제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이 경험은 절제와 여유에서 비롯된 단호함과 넉넉함 속에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가에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버클리대와 하버드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91년 샌프란시스코 건축재단이 선정한 '젊은 작가상'을 수상

한 바 있으며 현재는 최두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설계강의도 맡고 있다.



공간의 명료성을 보여준 '샌터하우스'(최두남작)

공간학생건축상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은 이창우외 2인 공동작

(주)공간사(대표 이상림)가 주최한 제16회 공간학생건축상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기존의 공모전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가상인간을 위한 공간설계를 주제로 제시해 화제가 됐던 올해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한양대 건축공학부 이창우 이문재 홍리정씨의 공동작이 차지했다.

또 우수작에는 건국대에 재학중인 김성태 문현경씨의 공동작이 선정됐으며 박태현 하지욱(부산대) 서봉균(동아대)씨의 공동작과 김재열 김영수 김효진(금오공대)씨의 공동작이 각각佳作에 뽑혔다. 이밖에 CG부문 특별상은 유일산 서유원 공동작이 수상했으며 최후원의 2인(성균관대 건축공학과)의 작품 등 모두 4개 작품이 입선작에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은 이담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해 빛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공간개념을 설정하여 태초의 공간에 대한 신화적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이담의

산책'이라는 주어진 주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설정이 돋보였으며, 건축을 풀어내는 논리와 수사학이 치밀한 짜임새를 가졌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공간학생건축상의 심사는 건축가 김현(에다건축 대표)씨가 맡았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도시건축설계 등 3개 학과 20명 선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는 99학년도 일반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도시개발경영, 교통물류, 도시건축설계 등 3개 학과로 일반전형을 통해 석사과정 2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도시건축설계학과와 경우 졸업설계 우수작 또는 그밖의 설계경기 수상자를 우대한다.

원서교부는 12월 9일까지, 접수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오는 12월 12일에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치른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통과 사진(3cm×4cm) 3매이며 최종학력자는 오는 1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양대 도시대학원은 대학원 또는 과 단위로 모의도시개발 워크숍과 프로젝트 및 스튜디오 중심의 실무위주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전능력을 키워주는 한편 학생 스스로가 필요한 교과과정을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관련학과와 연구소, 공공·민간기업의 최고전문가들을 겸임교수진으로 확보해 폭넓은 협력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학과 (02-290-1211~3)

'97/'98 sa학생작품展

19일까지 서울건축학교 전시실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sa(서울건축학교)가 '97/'98학년도 작품전을 갖는다.

건축가 서혜림(힘마건축 대표)씨가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지난 1년간의 서울건축학교 정규과정 교육방법과 그 결과를 확인시켜줄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서울건축학교 전시실에서 열린다.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94년 11월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2년여 동안 설계 및 이론 워크숍을 개최해 오다가 97년에 김수근 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으로서 정규과정을 시작, 그동안 설계스튜디오와 설계지원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문의: 김수근문화재단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건축시간 안내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정보화 사회의 건축가
해방의 건축

◇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이 책은 궁궐, 성곽, 사찰, 향교와 서원, 살림집으로 분류하여 30여 실물유구(實物遺構)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느낀대로 해설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건축의 공간구성과 환경과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의 숨겨진 표정에 천착하고 있다. 즉, 인공물이면서 자연을 닮은, 그래서 인위적인 조경조차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우리 건축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경복궁과 창경궁, 수원화성 불국사 병산서원 추사고택 선교장 등 30여 유명 건축물의 6백여컷 흑백사진들이 진입순서대로 배열돼 있어 마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특히 일반인의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

류경수홍/ (주)대원사(02-757-6717) 펴냄 / 344쪽 / 1만5천원

◇ 정보화 사회의 건축가



오늘날 컴퓨터 CAD시스템이 거의 모든 건축설계사무소에 보급돼 설계작업 및 관련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와 관련해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의 내용은 1. 테크놀러지와 실무, 2. 디지털 매체의 언어와 운영시스템, 3. CAD와 지식 데이터베이스, 4. 정보화 지향 사무소의 구축과 미래의 예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중간중간에 실무 경험자의 위트있고 핵심을 찌르는 경구들을 삽입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견들을 따로 요약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미 정보화 시스템을 사행하고 있는 건축가에게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며, 아직 컴퓨터의 활용률이 높지 않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에게는 디지털 오피스 구축에 관한 기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원제가 'The Digital Architect'인 이 책의 저자는 현재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전문회사인 미국 Z.G.F.P사의 정보서비스 관리자로 활동중이다.

칸 샌더스홍 / 조성룡, 최진원, 김성아 共譯 / 안그라픽스(02-763-2320) 펴냄 / 452쪽 / 1만8천원

◇ 해방의 건축-인간해방의 견지에서 본 건축가 조건영, 민현식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의 기본 관점은 건축의 문제를 보다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며 그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 건축의 문제를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조건영과 민현식 두 건축가의 작품과 철학을 논한 비평서이다.

이들 두 건축가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풀어나가는 방법, 건축적 제안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두 건축가의 철학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때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 대안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종건홍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1만4천원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성북종합문화센터

한의학 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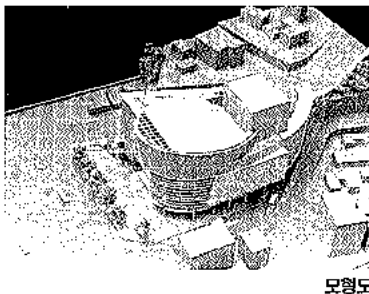
전국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성북종합문화센터

Sungbuk Culture Center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성북종합문화센터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8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G(김기웅)안, 최우수작에 대룡건축사사무소(장동진+이영하)안, 우수작에 SAS건축사사무소(심우근)안, 가작에 (주)한건축사사무소(김준근)안·단우모람건축사사무소(임홍래)안·지인건축사사무소(김해동)안·지인건축사사무소(천상호)+(주)테트라건축(임상관+민준기)안·이손건축사사무소(강현석)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10월 1일에 발표했다. 2차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성준(명지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이경희(연세대), 박용환(한양대), 박언곤(홍익대), 정재철(국민대), 김규석(동국대), 신일수(한양대), 이세훈(서울시건축사회), 나영준(성북구지역건축사회), 최재인(도시건설안전기술단), 신선희(서울예술단)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G(김기웅)



모형도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2개 필지)
대지면적	2,785.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도로현황	동측-6m도로, 서측-35m도로(보행자 진입도로), 남측-8m도로(차량 진입도로), 북측-20m도로
건축면적	1,668.92㎡
연면적	11,043.52㎡
건폐율	59.92%
용적률	233.90%
구조	철근콘크리트+일부 철골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36.8m
외부마감	화강석바너구이+AL커튼월, THK24 복층유리
설계방식	단일닥트 CAV 공조방식
주차대수	자주식 80대(지상대기주차 3대, 장애자주차 3대 포함)
조경면적	431.69㎡
기타사항	공개공지면적: 272.98㎡(대지면적의 7%이상)

계획의 목표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향상과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창의성있는 공간구성
- 대지는 성북동길에 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한성대)역에서 300m이내에 위치
- 대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35m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
- 대지를 중심으로 남·서측은 3~5층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있고, 북·동측은 다가구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다.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이 유리하다.

배치계획

- 전면도로(성북동길)을 주축으로 건물배치
- 기존의 자름길을 살려 보행자유입, 공간의 활성화
- 보행자들의 쉼터로써 공개공지에 옥외 토론장 설치
- 경사진 대지에 순응하는 가로공원 및 조각공원 조성
- 건물의 중정부근에 쉼터로써 야외공연장 및 자연학습장 조성
- 공개공지와 야외부대시설, 피로티하부를 연결하여 문화공간으로써의 휴식 공간 제공

층별 기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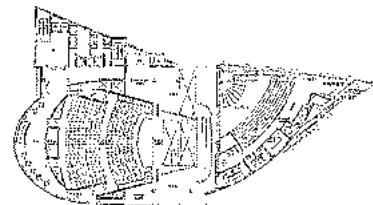
- 시간대별 사용빈도를 고려한 각 기능 영역의 독립성과 연계성 제고
- 접근성과 인지도, 사용성을 고려한 기능의 배치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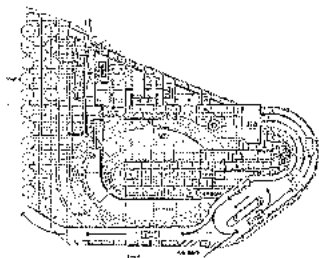
- 상층부: 도시스케일, 랜드마크적요소
- 중층부: 리듬감, 포용성(타원)
- 저층부: 피로티, 보행자공원

단면계획

- 대지의 지형과 고저차이를 이용하여 건물내 사잇길 및 옥외공연장 조성
-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저층부 개방과 중점설치
- 복합용도 기능군들을 층별로 분할시킴
- 자연적요소를 공연장 로비로 유입
- 고·저차를 이용한 기능배치
- 지하실의 채광 및 환기
- 독립된 공간으로써의 지하공간 활성화
- 주차장과외 동선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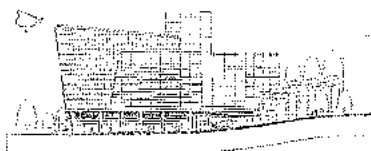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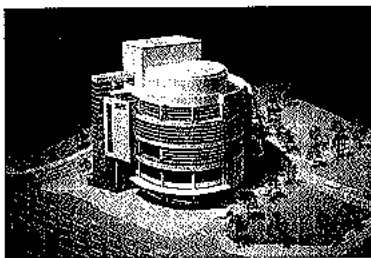


정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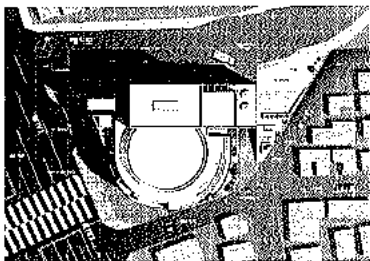
▶ 최우수작 / 대룡건축사사무소
(장동진+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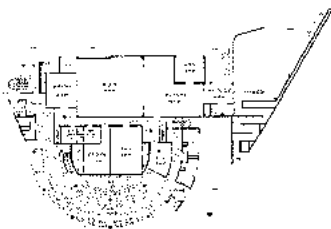
조감도

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필지)
지역지구	일반거주지역, 4종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대지면적	2,785.10㎡
도로현황	30.0m, 20.0m, 8.0m 도로에 접함
건축면적	1,622.63㎡
연면적	11,202.28㎡
건폐율	58.26%
용적률	257.56%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36.5m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페널+회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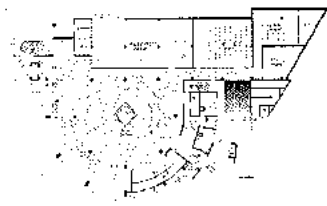
버너구이 마감	
설비개요	F.C.U+Air Duct 방식
주차개요	자주식 93대
조경개요	455㎡
기타사항	공개공지 설치, 공연장 객석 - 789석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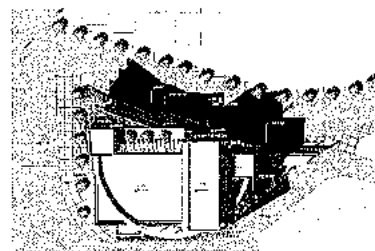
외측면도

▶ 우수작 / SAS 건축사사무소(심우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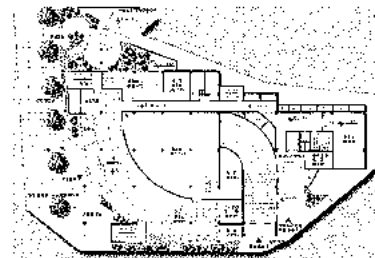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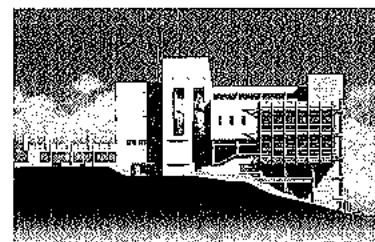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
대지면적	2,785.10㎡
도로현황	전면 40m, 북측 20m 도로
건축면적	1,665.51㎡
연면적	10,866.87㎡
건폐율	59.84%
용적률	252.76%
객석수	711석(장애인석 4석 포함)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주차대수	지하 80대
조경개요	43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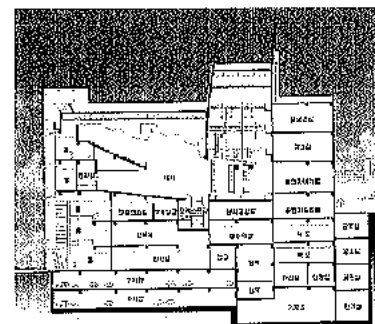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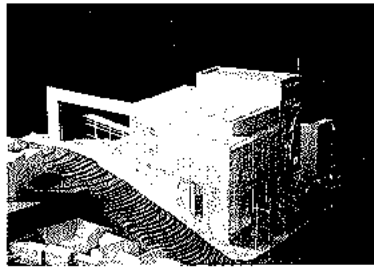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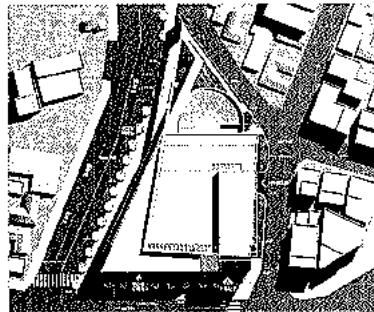
주단면도

▶ 가작 I / (주)한건축사사무소
(김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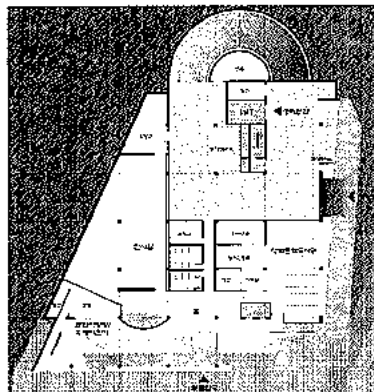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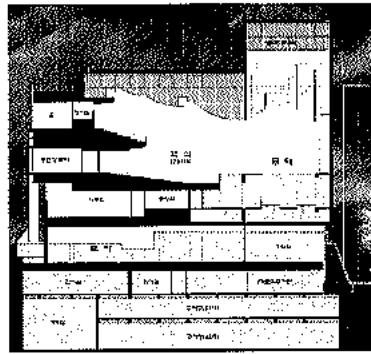
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2, 4
대지면적	2,785.10㎡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4층
건축면적	1,638.0㎡
연면적	11,215.82㎡
용적률	188.39%
건폐율	58.8%
조경면적	462.64㎡
주차대수	102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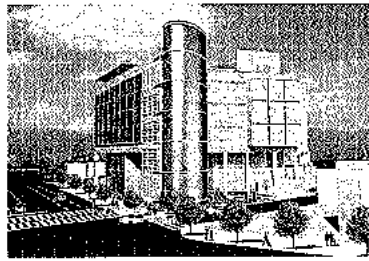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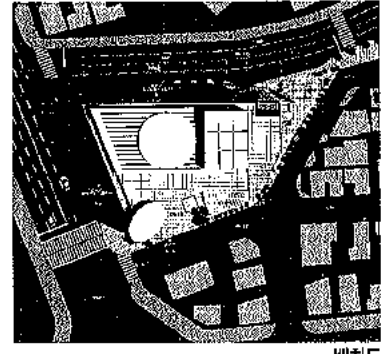
단면도

▶ 가작 II / 단우모람건축사사무소
(임홍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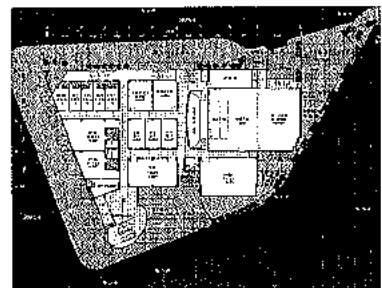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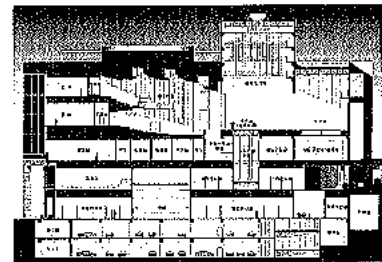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2개 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 4종지구
대지면적	2,785.10㎡
도로현황	전면 30m도로, 좌측 18m도로, 우측 8m도로 인접
연면적	10,575.28㎡
건축면적	1,667.5㎡
건폐율	59.87%
용적률	235.7%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39.5m
외부마감	화강석, THK18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쉬트
설비개요	공조방식 - 정동량 단일덕트 + FCU 방식 수전방식 - 22.9KV CNCV
주차개요	91대
조경면적	432㎡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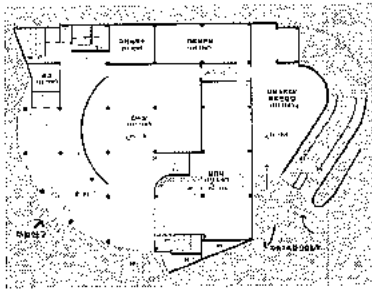
단면도

▶ 가작 III / 지안건축사사무소(김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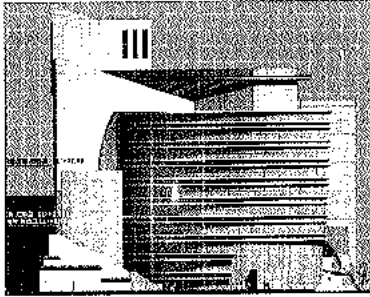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 4종지구
대지면적	2,785.10㎡
건축면적	1,667.5㎡
연면적	11,101.22㎡
건폐율	59.52%
용적률	255.69%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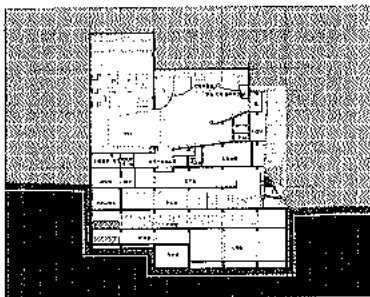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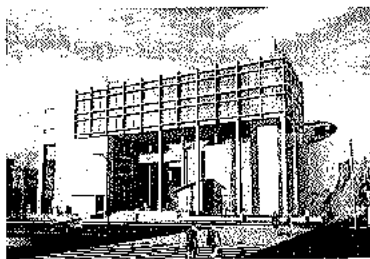


정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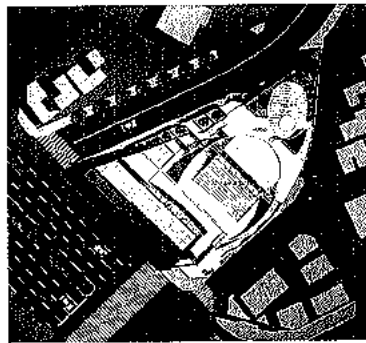
▶ 가작Ⅳ / 지인건축사사무소(천상호) + (주)테트라건축(임상관 + 민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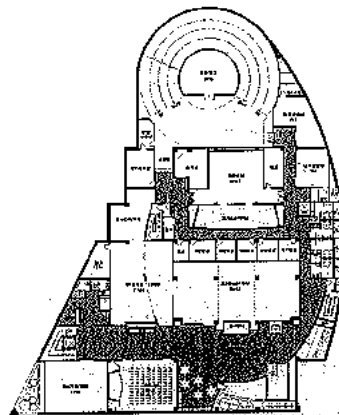
투시도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
대지면적	2,785.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 4종지구
용도	관람집회시설(문화회관)
건축면적	1,568.78㎡
연면적	10,9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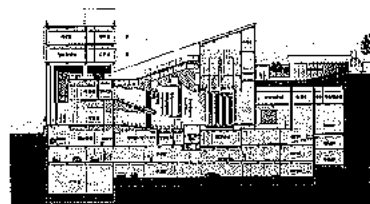
건폐율	56.33%
용적률	237.61%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부분 철골조)
주요외장재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THK 24mm 복층유리 등
주요시설	공연장(758석), 전시장, 자료열람실,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등
조경면적	453.37㎡
주차대수	81대(옥내: 79대, 옥외: 2대)



배치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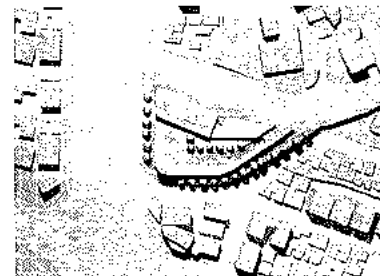
▶ 가작Ⅴ / 이순건축사사무소(강현석)

대지위치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 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 4종지구
대지면적	2,78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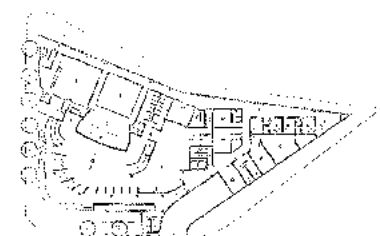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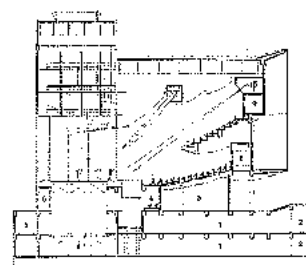
도로현황	35m, 15m, 8m
건축면적	1,638.50㎡
연면적	10,848.68㎡
건폐율	58.31%
용적률	207.2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27.9m
외부 마감	화강석, 폴라스터, 알루미늄 커튼월
설비개요	CAV+콘벡터
주차개요	71대
조경개요	420.00㎡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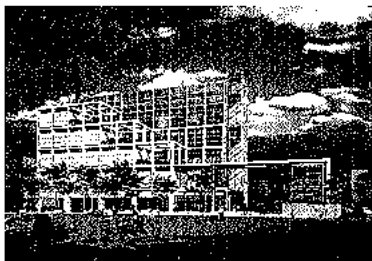
단면도

한의학 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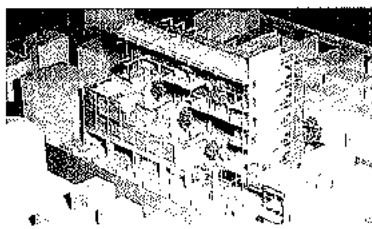
Culture Center of Chinese Medical Science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한의학 전문 시장인 경동시장에 인접한 곳에 한의학 문화관을 건립키 위하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일건건축사사무소(황일인)안, 우수작에 (주)건축사사무소 모람(손두호)안, 가작에 (주)두호건축사사무소(장용호)안과 (주)정림건축(김정철)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11월 9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용성(국민대), 전동훈(경희대), 이경희(연세대), 김남웅(단국대), 진정화(숭실대), 박용환(한양대), 함정도(서울산업대), 홍대형(서울시립대), 장석웅(아도무건축), 정명원(서울건축), 최영집(탐건축)

▶ 당선작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64-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800.30㎡
도로현황	전면 8m도로, 후면 6m도로
건축면적	1,053.18㎡
연면적	6,500.20㎡

건폐율	58.51%
용적률	186.6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25.65m
외부미감	화강석마감, THK24복층유리
설비개요	개별 냉·난방 방식, 유닛병용 방식
주차개요	총 49대
조경개요	21.20%
설계참여	이광재, 윤여정, 민홍기, 김진수, 이승행

배치계획

-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집단유입에 대비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 도시축 및 주변환경과 부합하는 건물 배치
- 보차분리를 통한 문화시설의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
- 토지이용의 효율화 극대화
- 전후면도로를 보행 및 차량동선으로 연결하여 편의성 및 편리성 제공
- 상시 사용공간인 판매공간을 분리하여 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 고려

형태계획

- 한약 제조 모습을 건축 형태화하여 한의학 정통성 이미지 제고
- 전통 목가구구조의 형태구성을 건축형태로 재구성
- 인삼밭 이미지를 도입한 아트리움 지붕 계획
- 비움과 채움의 형태계획으로 증축시에 도 기본 조형 개념이 유지되도록 고려

평면계획

- 자연환경 요소를 내부에 구성하여 한의학의 자연주의 사상고취
- 내부공간의 대자화(자연화)
- 각 전시장과 연계된 옥상정원(자연의 유입)
- 인체 각 부위의 유기적 기능과 같은 각 공간의 유기성
- 자연환경(휴게공간) → 기능공간(관람공간) → 자연공간(휴게공간) → 기능

공간(관람공간)의 보행 동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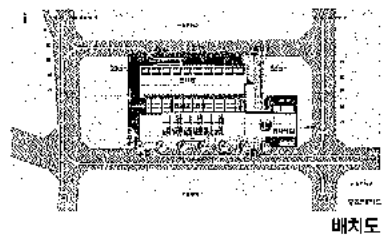
- 전시공간 모듈의 통일화로 전시계획의 효율성 제고

입면계획

- 한약장의 이미지를 의장요소로 도입한 입면계획으로 한의학 문화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상징성 부여
- 전통목가구의 비움과 채움, 구조의 외적 표현을 응용한 의장계획
- 리듬의 반복적 활용으로 한의학 문화관으로서의 정연성 강조
- 증축을 고려한 입면계획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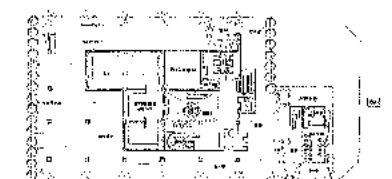
- 오솔길 이미지로 계획된 내부동선계획
- 인삼밭의 간접채광 방식을 응용한 채광계획
- 시각의 확장 및 공용공간(퍼블릭 스페이스)의 연속성 확보
- 전시공간을 저층부에 교육연구 및 지원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관람동선 최소화함.
- 온실을 아트리움화하여 휴식 등 다양한 기능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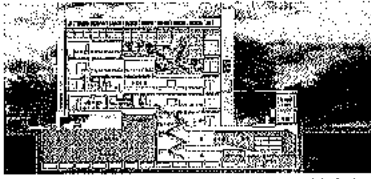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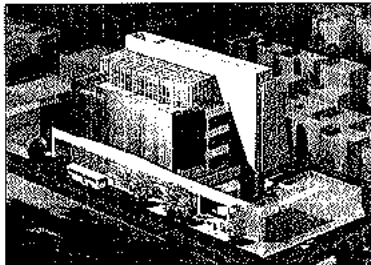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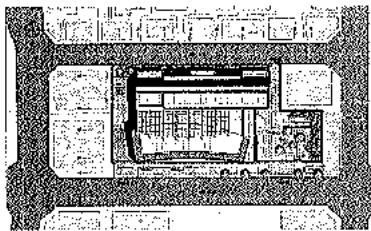
청단면도

▶ 우수작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순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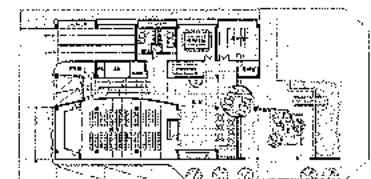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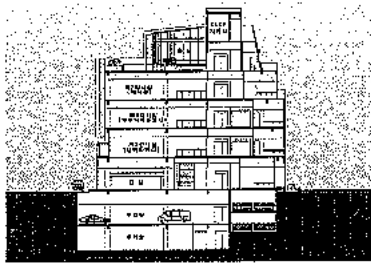
대지위치	동대문구 용두동 64-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물용도	전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6층
대지면적	1,800.30㎡
건축면적	925.38㎡
연면적	6,463.12㎡
건폐율	51.40%
용적률	202.3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춘향목각재 위 오일스테인, 18mm 컬러복 층유리
주차대수	60대(옥외 - 4대, 옥내 - 56대)
조경면적	277.81㎡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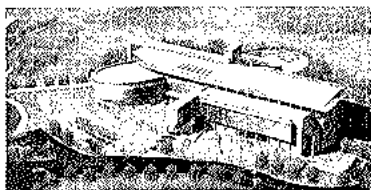
주단면도

전국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Chunkok Multipurpose Culture and Sports Center

연천군은 지방자치시대의 체력증진과 문화생활의 중심시설을 마련키 위해 전국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가항종합건축사사무소(조억재) 안, 우수작에 (주)리인건축사사무소(송이호+박현철+이종현)안, 가작에 (주)건축사사무소 어반네트(최석원)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10월 20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가항종합건축사사무소
(조억재)



조감도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2-1, 57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군 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7,032.0㎡
도로현황	8.0m, 10.0m도로
건축면적	2,414.42㎡
연면적	4,580.47㎡
건폐율	2.84%
용적률	4.27%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트러스 구조 (지붕)
최고높이	15.80m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①18컬러 복층유리
설비개요	중앙공급 난방방식(공조방식 및 F.C.U)
주차개요	9대(공원부지내 주차장시설 이용)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15% 확보

건축계획

- 남동측(전곡 시가지)으로의 열린 조망 고려
- 진입광장의 중심축 고려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경사지를 이용한 배치
-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한 외부공간구성
(진입광장, 중심광장, 소광장, 야외전시
장, 야외공연장)

각 외부공간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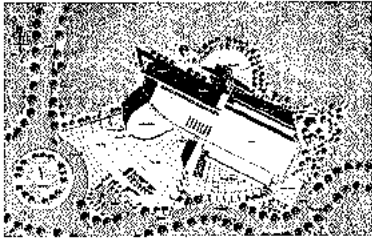
- 진입광장: 만남의 광장
접근성, 개방감을 극대화한 반
원형 진입광장
- 중심광장: 활동적 공간
문화행사공간 - 사생, 사물놀이
야외공연장과 연계
- 소광장 및 전시공간: 사색적 공간
야외전시 및 설치미
술 전시공간
행사준비공간, 소규모
행사공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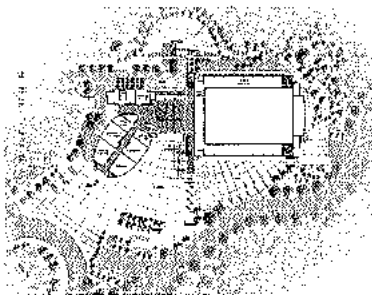
- 지하1층: 에어로빅, 헬스, 체육관시설계획
일반인에게 대여 가능한 시설배치
- 지상1층: 체육관, 관람석, 문화교육시설
및 관리시설
- 지상2층: 주기농 - 대화의실
보조기능 - 예식홀 및 경조사 시
설 고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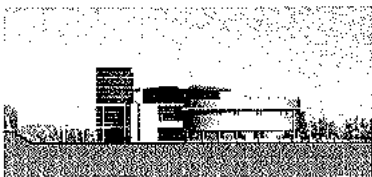
- 로비공간을 이용한 시설연결
- 자연빛 적극적 이용
- 대지레벨을 이용한 단면계획
- 관람객 및 선수동선 분리
- 체육관내 관리처량 진입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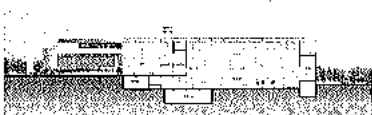
배치도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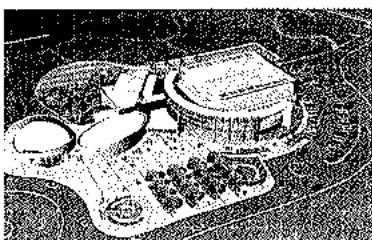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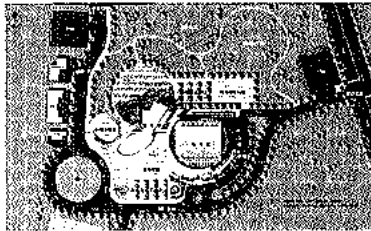
종단면도

▶ 우수작 / (주)리안건축사사무소(송이호+박현철+이종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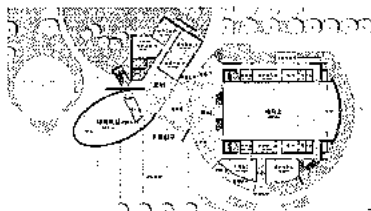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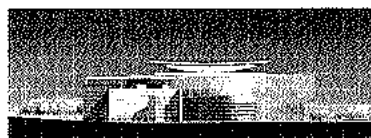
대지위치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2-1 번지 일원(은대공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공원 지역)
공원면적	85,000.00㎡
대지면적	7,036.0㎡
건축면적	2,794.30㎡
연면적	4,498.14㎡
건폐율	3.28%
용적률	4.6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26대(계획대지내) + 28대(대 안제시내용임)
외장재료	화강석, 알루미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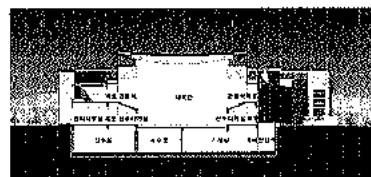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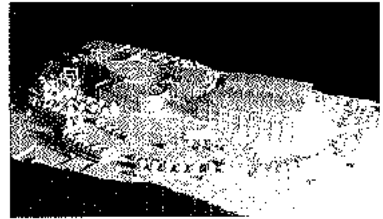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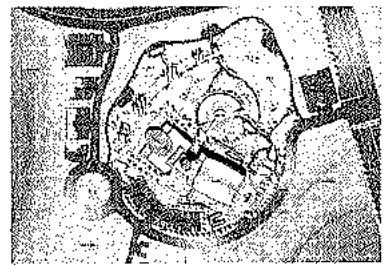
종단면도

▶ 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네트(최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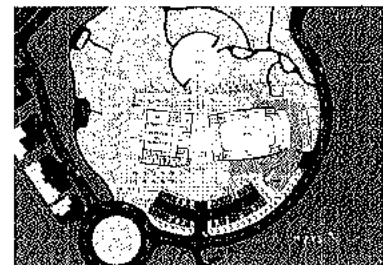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2- 1, 573번지
지역지구	공원지역
대지면적	8,268.00㎡
도로현황	8m, 30m 계획도로
건축면적	2,908.71㎡
연면적	4,593.73㎡
건폐율	3.42%
용적률	3.41%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12.45m
외부마감	AL, 시트패널 및 화강석마감
주차개요	63대(장애인 6대, 선수용대 형버스 4대 포함)
조경개요	바닥 패턴 처리 조경



배치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domus

新建築

a+u

建築文化

Architectural Record

98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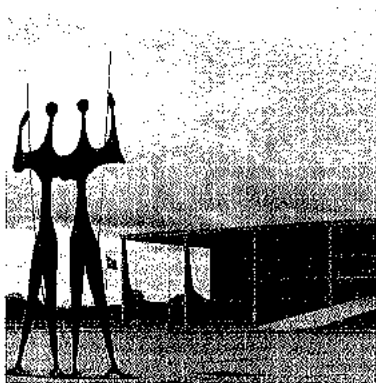
이번호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건축계에 대해 다루고 있



다. 각 나라별로 최근작품인 Juan Ignacio Baixas의 산티아고 Prolam 건물, Enrique Browne의 산티아고, 빌라 마리아 학교 교회, Brasil Arquitetura의 Jundiai에 위치한 Polyttheama 극장 리노베이션, Aslan y Ezcurra Arquitectos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Novartis 본사 계획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건물타입에 관한 연구로 인테리어 편을 실었으며, 건축에서의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 브라질리아의 텅빈 모더니즘



1956년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분열된 지역들을 통합하고 또한 명확하고 이성적인 평등주의를 실현하며 인구과잉의 해안지방에 대한 새로운 근대적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스터 플랜이었던 Lucio Costa와 오스카 니마이어의 엄격한 코르뷔지안

모더니즘은 니마이어의 로맨틱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가끔 공허하며 텅빈 듯이 인식될지 모른다. 99년 3월, 뉴욕 로버트 밀러 화랑에서 전시될 Todd Eberle은 카니발 때의 텅빈 정부청사지역들을 사진에 담았다. 그러나 그것은 황폐해 보이지 않은 않는다. 기괴한 형태의 조각상들과 건물들이 거대한 광장에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냈기 때문이다.

■ 특징

▶ 남아메리카의 건설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세 나라가 경제적 회복과 더불어 디자인에 적합한 환경을 이끌고 있다.

남미국가들은 80년대의 부채위기를 극복한후 정치경제적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면서 점차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북미의 건축가들은 일감을 제공해주던 아시아가 경제위기에 놓이자 남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적인 관계로 만나더라도 사적인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며, 건축주는 설계회사를 업체로 대하기보다는 인간을 상대하듯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생활패턴 등을 이해하고, 경기침체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피에서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대규모 오피스의 건설에 대한 투자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남미에 진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인테리어



Elliot + Associates의 모클라호마 CD Warehouse

인테리어 특집으로 다룬 Tsao & McKown Architects의 최근의 주거 인테리어 작품은 그들만의 독특한 다중시점과 다중양식의 합성을 보여준다. Elliot + Associates의 오클라호마 CD Warehouse는 40개의 프렌차이즈 상점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으며 음악을 시각화하는데 디자인의 초점을 맞췄다. 상점계획을 다른 컨셉으로 접근한 Herbert와 Lewis, Kruse, Blunk Architecture의 아이오와 보석상점은 '호기심'이 전체 디자인의 작용어휘이다. 반투명한 원통형의 벽은 손님이 주의깊게 진열된 상품의 전체 배열을 한번에 보지 못하도록 전체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Smith Miller + Hawkison의 뉴욕 엡스타이트에 위치한 코닝 글래스 센터의 리노베이션, Krueck & Sexton의 Herman Miller 전시장 리노베이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컴퓨터

나날이 증대해가는 건축작업에서의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97년 1월부터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CAD와 인터넷의 활용을 다루었으며, www.archrecord.com을 개설하여 지난 5년간의 아티클 목록과 유명 프로젝트의 가상 투어 등을 올려놓고 있다. 이번 호에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컴퓨터 활용전략, CAD, Modelling, 프로젝트관리, 시설관리, Drawing Management, Vendor Data에 관한 최신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한 잊 점을 잘 살리고 있는 설계회사 5군데 (HLW, Wiley & Wilson, Collaborative Design Architects, Fentress Bredburn Architects, BSA Design)를 소개하고 있다.

■기타

최근 뉴스는 멕시코시티에 세워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타워에 관한 기사다. Paul Reichmann이 이 지역 일대를 개발하고 Zeidler Roberts가 설계를 맡은 이 타워는 두 개의 수직적 요소, 즉 둥근 유리의 구조물과 연미된 화강암구조물이

병치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설계사무소에 필요한 컴퓨터와 부속장치들의 구입가이드를 실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미려한 계단의 설계를 위한 기술적 정보를 몇 가지 예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98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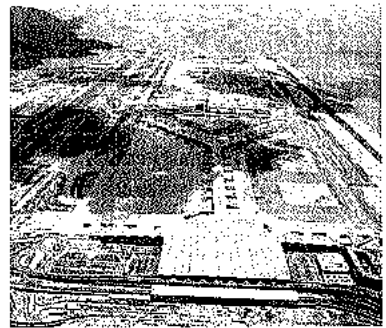
인간의 운송수단은 극적인 건축물에 의해 찬미되어 왔다. 이번호에는 키쇼 쿠로카와의 쿠알라룸푸르 터미널과 Foster &



Partners의 책람콕 공항 그리고 Arne Henriksen이 설계한 두 개의 노르웨이 역사와 Meili Peter Architekten의 취리히 역사 증축이 소개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Volker Giencke의 독일 바스 아파트먼트 호텔과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 숍 등이 소개되었다.

▶Foster & Partners의 책람콕 공항은 사용하기에 쉽고 즐거우며 그것의 환경에 대해 열려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공항으로는 가장 최근작품으로, 바닷가에 인접하였으며 고밀도 인구의 산지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공항은 기계와 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메카니즘이 인간을 대륙과 상공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다. 기능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단순한 평면이 요구되었다. 포스터는 차에서 내리면 탑승객을 기다리는 비행기가 보이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된 미국의 공항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이 반영되어 Immediacy가 중시되었다. 전체공간은 평행한 볼트구조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이 공항에서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벽에서 지붕으로 이어진 곡선의 유리막 아래에서 공항도착자들은 브릿지를 건너 입국심사를 한후 동쪽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도착과 출발의 진행은 층을 달리하여 정확하게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Foster & Partners의 책람콕 공항

▶Hassel PTY의 시드니 Olympic Park Railway Station

2000년 올림픽과 매년 열리는 농업박람회 치뤄지는 시드니 서쪽의 작은 마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운동선수들과 동물들의 이동에 세심하게 고려되어 설계되었다. 외관은 은색의 섬모층과 같이 볼트구조로 명확하게 분절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현적 형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드니의 표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지하부분에 선형의 홀이 지붕에 향해 열려 있으며 대표소가 있는 콘코스의 유리 스크린을 통해 대지면에 있는 플랫폼과 트랙이 보인다. 많은 인원이 쉽게 배분되도록 명확한 수직동선체계가 계획되었다.

▶Kisho Kurokawa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Kurokawa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소멸해가는 유행학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이 새로운 공항에 토착의 재료, 형태, 그리고 랜드스케이핑을 합성하였다. 이 공항은 비교적 메인 터미널의 기본 플랜을 따르고 독립적인 부속의 터미널을 주위에 두었다. 중앙홀은 삼각형의 기둥에 의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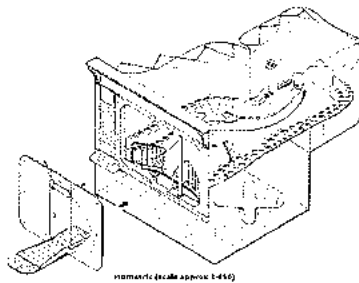
지되는 쌍곡선의 포물선형의 볼트지붕 아래 있으며, 이러한 지붕의 형태는 마치 녹아내리는 동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우산 또는 배우인족의 천막의 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를 띤다. 위 공항의 구성은 단순한 형태의 주요소를 반복함으로써 메인 터미널과 두 대의 위성 터미널의 명쾌한 조합을 이루었다. 이밖에 ▶Aéroports de Paris의 프랑스 로아시 공항 증축 ▶Arep의 샌드니 철도역 ▶Meili Peter Architekten의 취리히 철도역 지붕증축 ▶Arne Henriksen의 노르웨이 릴스스트롬 철도역과 Eidsvoll 철도역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Volker Giencke의 독일 바스 아파트먼트 호텔

독일의 통일로 인하여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였던 바스시는 공업적 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곡물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비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것들 중 하나를 아파트먼트 호텔로 개조하는 것이다. 외관과 건물의 아이덴티티는 변형을 하되, 이전 기능에 대한 건물의 기억을 살려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건물은 두 개의 대등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북측 부분은 창고가 있었던 부분으로 캐스트 아이언 가동과 보로 4x4배이로 이루어져 플랫폼형의 유닛으로 전환하였다. 그 반대쪽 부분은 다소 어려웠는데, 12m높이에 단지 3m너비의 사일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일련의 좁은 아파트먼트 타입의 고안에 이르게 했으며, 그것은 하나의 싱글룸과 사일로의 벽을 뚫고 다음 사일로에 이르는 페어룸의 구성을 갖는다.

▶유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평면과 단면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마치 곡의 깔대기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며, 곡면의 패브릭 천장은 꽃의 구조 이미지를 X-ray로 투사시키는 것의 스크린이 되고 있는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숍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소개되었다.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숍의 인테리어 디자인

domus

98년 9월호

쾰름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국립 기록 보관소,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Neutelings Riedijk의 네덜란드 Ede의 신문인쇄소 등이 소개되었다. 또 '98 리스본 엑스포의 건축의 공업적 디자인의 양상들에 관한 칼럼과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였던 Jean Prouve의 32가지 발명품 그리고 이태리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Angelo Mangiarotti의 작품 등이 특집으로 실려있다.

■근작소개

▶쾰름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드레스덴에 세워진 강건하고 도발적인 크리스탈 건물로 새로운 퍼블릭공간의 삼차원적 경험은 전체로서의 조각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진다. 이 건물은 두 개의 건축적 요소로 이루어

지는데 8개의 오디오리움을 수용하는 콘크리트 벙커와 유리 및 금속제의 포이어 스트럭처로 된 모든 방향으로 기울어진 비정형의 거대한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오디오리움은 피난계단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그것들이 콘크리트 벽에 가려져 있지만 크리스탈안에 노출되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인 오브제로 작용하게 된다. 콘크리트 벙커의 기울어진 면들로 인하여 거대한 물체는 마치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발생하며 그 밑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머리를 부딪치게 될 것 같은 감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고의적인 조작은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려 하며 대담한 인간의 공간 경험을 유발한다.



쾰름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국립 기록 보관소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Neutelings Riedijk의 네덜란드 Ede의 신문인쇄소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테리어의 처리에 있어서 사무부분과 생산부분이 동등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것은 제거된 외부를 대신하는 정원에 의해 풍부화되어 있다. 동시에 건물의 파사드는 이 회사의 공업적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벤츨리에 의해 제기되었던 "박스는 Decorated Shed 또는 Duck이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건축이라는 제3의 선택과 더불어 훌륭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국립 기록 보관소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Sauerbruch Hutton의 베를린 Photonikzentrum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Jean Prouve의 32가지 발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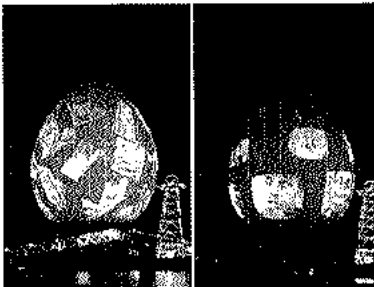
엔지니어이자 건축가, 그리고 빌더였던 Jean Prouve에 대한 특집으로 특히 그가 고안해낸 32가지 발명품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의 실험적인 접근 방식과 초월적 성격, 작업에 대한 윤리적 태도 그리고 그의 디자인과 발명을 그의 제자였던 렌조피아노의 기억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윤리적 믿음은 과학적 탐구심과 맞물려서 방울 패널, Double Hung Window, 금속제 문과 창문, 파티션 시스템, 패널 조인트 시스템 등을 고안하였다.

■ 칼럼: '98 리스본 엑스포

리스본 엑스포는 현재의 제조업을 설명하는 시금치였다. 컴퓨터의 사용에 의한 대량생산의 전반적 흐름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공업적인 창조의 기본 가정들은 알파벳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능성, 주관성, 대칭과 조화 등의 연계가 현장에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보다 영향력있는 성공을 위해 고투하는 전자매체에 상호작용한다.

리스본 엑스포에서 알파벳의 영향아래 놓여 있는 A - Biases와 이에 구별되는 전자매체의 영향을 반영하는 E - Biases의 두 개의 기본원리에 의해 현재의 디자인 흐름들을 조망해 보았다. 전자는 과정의 분절화되어 있으며, 논리적 법칙에 근거하며, 기계화 어셈블리 라인의 제품의 성격을 보이며 위계적인 유기구성을 지닌다. 이에 반해 후자는 과정이 통합화되어 있으며 지각적인 증거에 기반하며 관계적인 사고의 구분에 의하며, 자동화, 작업분담, 저스트 인 타임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제품의 성격을 갖는다. A - Biases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낡은 텍스트들은 새로운 상황에 두는 것 또는 그 역의 상황도 가능

하며 E - Biases에서는 이미지네이션을 객관적인 물체에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단하고 객관화된 물체에 자신의 마음속에 상상이 나타나듯 스크린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Acquamatrix 멀티미디어쇼

■ Angelo Mangiarotti의 조각작품

건축, 아트, 디자인, 공예의 장을 넘나드는 그의 디자인에는 구조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공통성을 꿰고 있다. 그것은 구조의 본질을 파악해 내며, 모든 창작의 구성적 부분을 결정하는 주요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부록으로 밀라노의 Angelo Mangiarotti의 작품 기행 안내가 지도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新建築

98년 11월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YKK 쿠로베에 기숙사(헤르만 헤르츠버거), MA(아리마 히로유키+Urban Fourth), 히타치 노리폴레(카프요시즈마), 시와 메르헨 갤러리(후루야 노부아키+야기 사치코) 등이 소개되



었으며, 연재물인 '전후모더니즘 건축의 궤적'에서는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대담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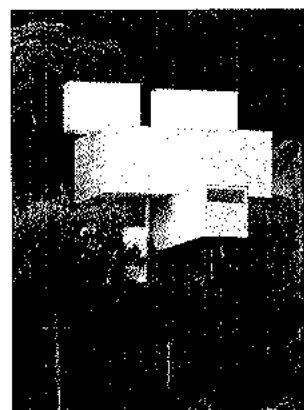
■ 작품분석

▶YKK 쿠로베에 기숙사(설계: 헤르만 헤르츠버거)



이 기숙사는 원룸형 아파트먼트로 약 100호의 주거용 객실과 식당, 도서관을 포함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자는 객실로 들어서는 문들이 늘어선 인공 조명에 의해서만 조명되는 일반적인 기숙사의 복도를 탈피하기 위해, 긴 건물을 6등분하여 각 건물의 사이를 띄워 복도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주거용 객실은 매자닌층을 두어 층고를 높임으로써 공간적인 자유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MA(설계: 아리마 히로유키+Urban Fourth)



MA는 조각가를 위한 개인 갤러리와 아틀리에이다. 玄海國定公園의 작은 산의 경사면에 자리잡아 바다와 산이 근접하는 풍부한 자연경관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지녔다. 경사면 흩의 붕괴를 막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경사면에 놓인 바위를 파괴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건축주가 요구한 것은 방문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자신의 작업장으로 독립하여 전념할 수 있는 아틀리에, 건축가는 이러한 요구를 5개의 직방체를 조합하여 경사면에 떠 있듯이

놓고 각 직방체를 연속된 동선으로 연결하여 건축으로 풀어가고 있다. 실내 갤러리, 옥상 갤러리, 작업장은 각기 독립되면서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부분적인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와 메르헨 갤러리(설계: 후루야 노부 아끼+아키 사치코/스튜디오 나스카)
이 건물은 작가인 아나세 타카시씨가 편집 발행하는 '시와 메르헨'이라는 잡지의 표지 원화를 주로 전시하는 갤러리이다. 잡지의 원화뿐만 아니라 발행된 잡지도 함께 진열되어 갤러리와 도서관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설계자는 건물의 배경이 되는 작은 수풀이 우거진 구릉이라는 주변 경관을 액자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의 창들을 통해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긴 장방형의 매스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수직의 개구부들은 리듬감을 더하고, 'Poem & Märchen Gallery'라고 쓰인 유리를 통해 보이는 갤러리 내부와 문자가 어우러진 모습은 흡사 잡지의 표지디자인을 보는 것 같다.

■記事 - 미스(Mies) 발굴

1989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독일에 현존하는 미스의 작품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중에는 최근 복원된 미스의 처녀작 빌 저택도 포함되어 있다. 미스와 독일에서의 활동을 미국에서의 전초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2000년 MoMA에서 열릴 그의 독일에서의 초기작들의 전람회는 이러한 기존의 생각들과는 그 궤를 달리 한다. 그의 초기작들을 고유의 요건과 문맥들을 가진 것으로 고찰하는 재평가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그의 디자인 언어는 아방가르드와 전통의 계승,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긴장감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그의 건축이 지니는 축적된 프로세스와 그가 겪었던 부단한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u

98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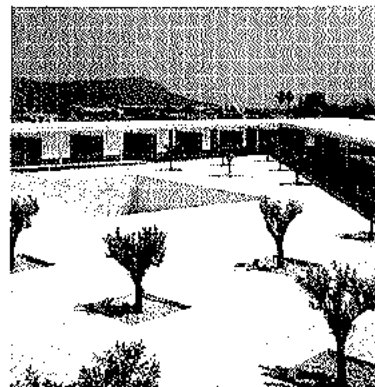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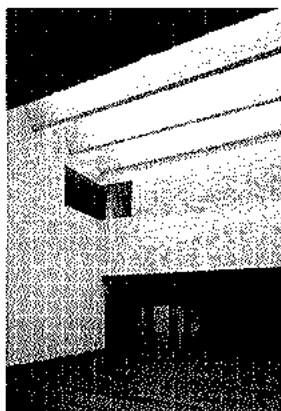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마드리드 건축가들'이다. 루이스 로호의 에세이 "마드리드에 있어서 근대의 역설 - 오리지널리티



와 이미테이션의 개념"과 함께 라파엘 모네오, 멘실라, 류논, 빈센스 & 라모스,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등 마드리드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과 바에자의 에세이 "More with Less - Idea, Light, and Gravity, Well Tempered"가 소개되었다.

■특집 - 마드리드 건축가들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건축, 그 중에서도 마드리드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은 라파엘 모네오(근대 미술관·건축 박물관/ 성모 마리아 교회), 멘실라 + 류논(사모라 고대에 미술관/ 실내수영장), 빈센스 & 라모스(노인 Home/ 舍同廳舍 'Comsermancha'),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Center for Innovative Technology/ 그라나다의 은행 본점) 등이다.



마드리드 건축가들의 건축은 신기함이나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역으로 그들의 건축은 여전히 근대건축이며, 경제, 기후, 풍토, 컨텍스트상의 제문제 어떻게 해결해 내는가를 어떠한 주저함 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근대건축에의 사모에 덧붙여, 그들은 억제된 단순함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극치와 소박을 구분짓는 선을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들 모두가 톨라이트나 광경을 이용하여 막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렇다할 수단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건축이 이러한 특질을 갖게 된 데에는 마드리드의 지리적, 기후적 여건과 그에 따른 건축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지리상의 중심, 사막으로 둘러싸이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며,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풍요로운 도시 마드리드는 수도가 되었다. 이곳의 건축가들은 쏟아져 내리는 빛과 열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빛과 그림자와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몰두하였다. 정숙하면서 단순한 건축이라는 오랜 전통이 마드리드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변잡한 항구의 소란함으로부터 떨어져, 마드리드의 건축가들은 기후, 풍토, 그리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건축 본래의 영역, 즉 공간, 중력, 빛 속에서 건축을 이어갔다. 이번 호에 소개된 4개의 건축가 그룹의 작품들이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계보에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을 통하여

건축이라는 것은 빛 속에서 조합된 매스의 지적이고 장대한 구축이다'라는 로 고프뷔제의 말이 암묵적으로 상기되고 있다. 그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은 태양으로부터, 절대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복잡함으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들 마드리드 건축가들은 스페인에서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들 각각의 사상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建築文化

98년 11월호

이번 호에서는 쿠보타 카츠 후미의 Crystal Unit III와 I, II를 포함해 마사 하루 타카시와 헤르만 헤르츠버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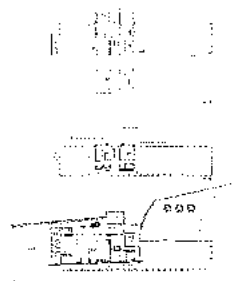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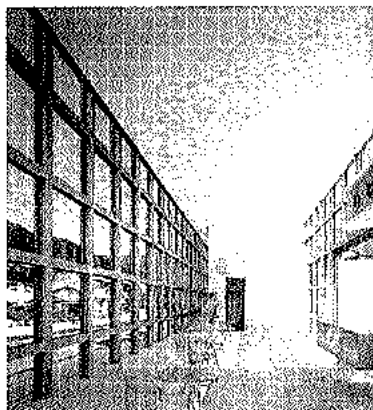


의 작가들이 설계하여 일본에서 최근 완공된 9개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1990년대의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이 특집으로 꾸며져 ARTEC, Adolf Krischanitz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작품

▶쿠보타 카츠후미의 Crystal Unit III
Crystal Unit III는 쿠보타 카츠후미의 Crystal Unit 연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이들 연작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들 연작의 공통점은 상자형의 매스와 램프(Ramp)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작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이 갖는 격자형의 틀 위에 고정된 유리외벽은 첫 번째 작품의 것이고 카페 업장과 주택

을 한데 묶는 구성은 두 번째 작품에서 아폴리에와 주택을 묶은 것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집 - 1990년대의 오스트리아 건축가들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오스트리아 건축가들 4그룹을 소개한다. 이 4그룹은 '미니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피터 애리슨의 큐레이션에 의해 먼저 런던의 AA스쿨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며, 이어서 동경에서도 10월에 전시회가 열렸다. 이들 네 그룹은 ARTEC, Adolf Krischanitz, Riegler Riewe, PAUHOF이며, 이들의 건축에 관한 Otto Kapfinger의 에세이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텍스트"가 소개되었다.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텍스트" - Otto Kapfinger

소개된 오스트리아의 4그룹의 건축가들은 1980년대 이래 '新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자기이입적인 건축이다, 혹은 이러한 추상적인 건물은 기존의 환경 속에 미소한 방법, 혹은 모뉴멘탈한 형태로 비집고 들어서게 되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 혹은 전원적 컨텍스트에 대한 반발이나 어떠한 주관에 근거한 정념적 이미지의 표출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건물과 공간에 의한 페턴, 즉 다이내믹한 '공간 텍스트'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간 텍스트'라는 것은 건물의 표면에 있어서 웅변하는 듯한 성격을 극도로 억제하여 그 대신 공간적 구조의 복잡함이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작품이 추상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은 의미나 형태에 의거한 건축을 넘어서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非시각중시적인 성격은 시각적이고 표현적인 건축표현의 걸치레가 득세하였던 지난 수십년간의 풍토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팝 컬처에 의한 시각과 다와 단편화에 대한 해독제로 대두한 1960년대 미국의 미니멀리즘과 아돌프 로스와 비트겐 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자국 건축의 두 가지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ARTEC - Kern House, Primary School/ Adolf Krischanitz - Atelier and Dwelling, Spert House/ Riegler Riewe - BSP School, Airport Terminal/ PAUHOF - House P, Kansai-kan Law Library 등이다.

전시리뷰 exhibition

'98 건축가 미술전

일시: 1998.11.3(화)~11.18(수)

장소: Plus 갤러리



전시회 포스터



최상채/ 풍년(豊年)



조성렬/ 구겐하임 뮤지움(빌마오,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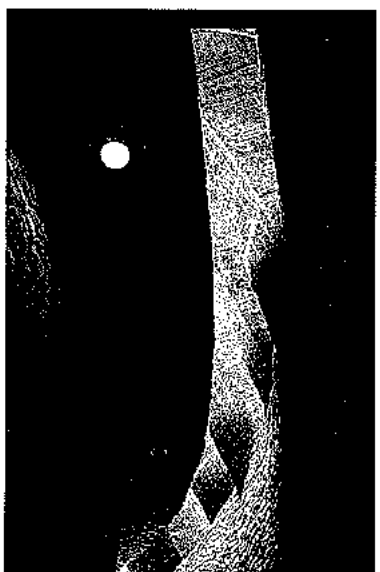
손석진/ 설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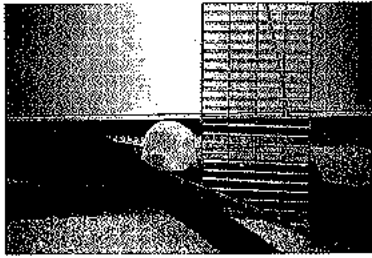
한창진/ 흐린날의 파르스 부르크



김인배/ 어선(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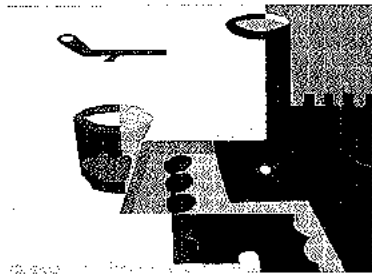
원대연/ 빛의 공간



최영집/Image-98 철+돌+나무



강성익/갈담리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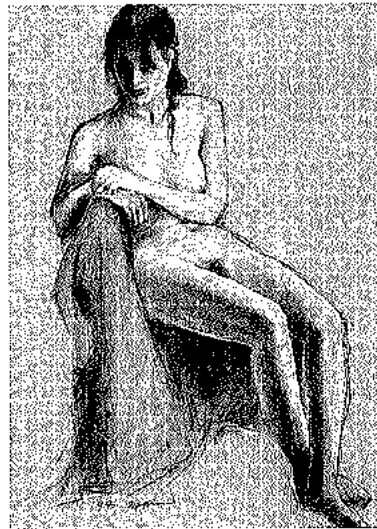
김석환/금비녀가 있는 정물



김산양/개군면의 초가을



김호경/춘(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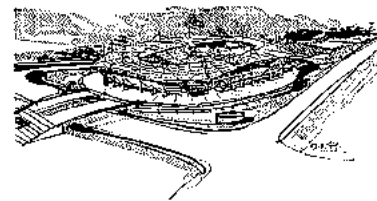
이용한/누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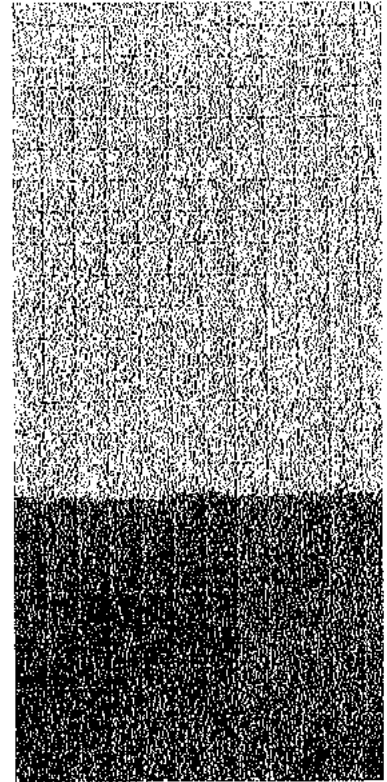
최영권/광릉



최한호/실악 설경



류춘수/2002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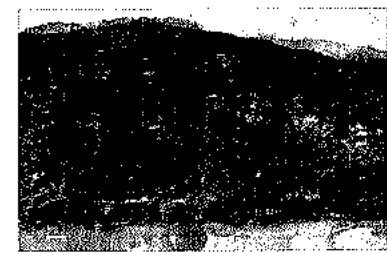
김낙중/物-時間



방철린/인개



송인창/月外里 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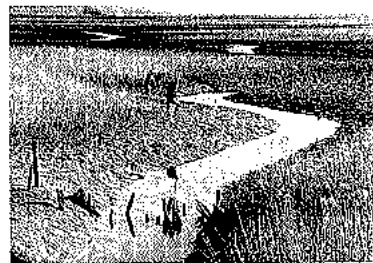
이관직/푸른 산



정영호/여름



신길동/요선정



심우석/순천만(順天灣)



강정행/草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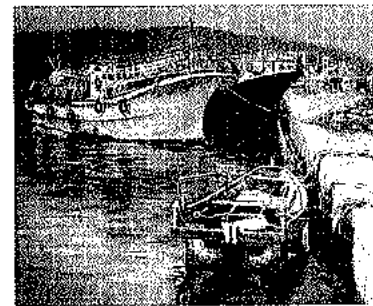
김영태/옥산서원(玉山書院)



임말암/북지장사



임종순/引月還修寺의 여름



윤태식/浦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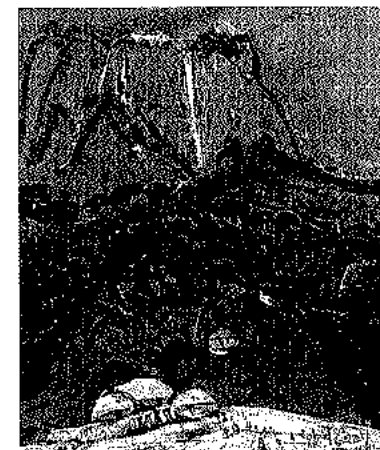
윤 옥/정물



안광도/바에



강성철/Cosmos



김유지/98 여름의 고향



김용우/추월산과 함께 하는 마을



김주연/한백당의 늦어름 정취



신정철/산동의 봄



한진수/풍경



정원석/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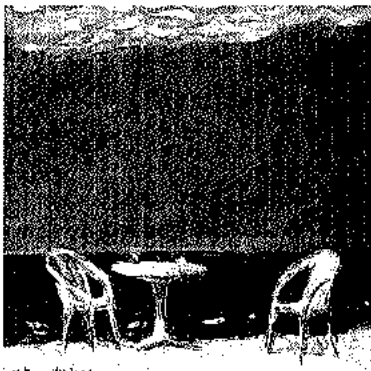
선기택/공존



양동현/무등산



김선채/진도 사자섬



김병모/두 의자

■ 참여 건축가

- 한창진(건미회 회장 / 한정건축)
- 조성렬(큐빅디자인)
- 손석진(헨디)
- 최상채(최상채건축)
- 김인배(세대건축)
- 원대연(Plus건축)
- 최영집(탐건축)
- 강성익(한라건축)
- 김석환(터·울건축)
- 김선양(한중건축)
- 김호경(가람나라건축)
- 이용환(화영건축)
- 최영권(21건축)
- 최한호(중원엔지니어링)
- 김낙중(중원건축)
- 류준수(이공건축)
- 방철린(인·토건축)
- 송인창(송인창건축)
- 이관직(이공건축)
- 정영호(건원국제건축)
- 신길웅(홍일건축)
- 심우석(우석건축)
- 김영태(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 강정행(창건엔지니어링)
- 임팔암(동인건축)
- 임종순(창건건축)
- 윤태식(합동건축)
- 윤 욱(도시건축)
- 안광모(안광모건축)
- 강성철(삼강건축)
- 김유지(유지건축)
- 김용주(한길건축)
- 김주연(그림 창조건축)
- 신정철(광장건축)
- 선기택(요람건축)
- 양동현(에일건축)
- 한진수(토방건축)
- 정원석(디자인건축)
- 김선채(뉴웁건축)
- 김병모(광주 건미회 지도교수)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10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97.10) 1천8십8만41㎡ 보다 75.7%(8백2십3만2천9백81㎡) 감소한 2백6십4만7천60㎡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분(97.1~10) 1억4십만1백41㎡ 보다 56.5%(5천6백6십8만6천9백95㎡) 감소한 4천3백7십1만3천1백46㎡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9월분(98.9) 3백9십6만2천3백3㎡보다 33.2%(1백3십1만5천2백43㎡) 감소한 2백6십4만7천60㎡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277,274	285,861	8,587 3.1%
감소지역	서 울	5,996,380	1,102,016	(4,864,364) -81.5%
	대 구	432,279	75,103	(357,176) -82.6%
	인 천	477,048	213,206	(263,842) -55.3%
	광 주	134,637	128,998	(5,639) -4.2%
	대 진	213,577	42,951	(170,626) -79.9%
	울 산	315,698	7,704	(307,994) -97.6%
	경 기	734,798	211,487	(523,311) -71.2%
	강 원	114,695	61,550	(53,145) -46.3%
	충 북	156,288	38,111	(118,177) -75.6%
	충 남	337,638	51,373	(286,265) -84.8%
	전 북	476,800	221,751	(255,049) -53.5%
	전 남	111,890	60,054	(51,836) -46.3%
	경 북	705,506	35,736	(669,770) -94.9%
	경 남	366,215	100,014	(266,201) -72.7%
	세 주	59,318	11,145	(48,173) -81.2%
합 계	10,880,041	2,647,060	(8,232,981)	-75.7%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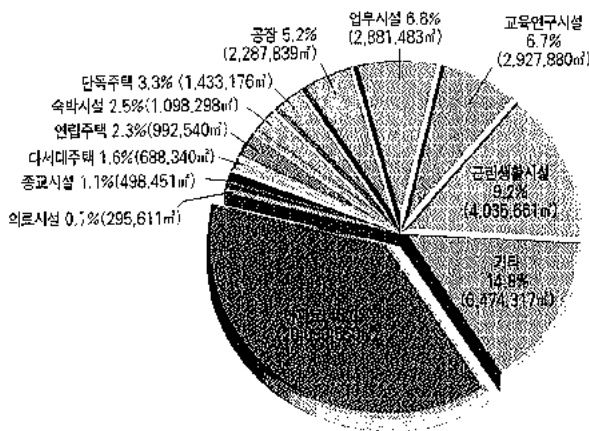
(용도)

단 독 주 택	102,457 76,439 (-25.4%)	
다 세 대 주 택	26,267 22,734 (-13.5%)	
연 립 주 택	19,687 21,846 (11.0%)	
아 파 트	1,345,656 2,216,263 (-39.1%)	
근린생활시설	368,406 282,884 (-23.4%)	
종 교 시 설	30,374 29,033 (-4.4%)	9월
의 료 시 설	17,754 5,727 (-67.7%)	10월
교육연구시설	207,478 154,808 (-25.4%)	연면적 합계/ 9월: 3,962,303㎡ 10월: 2,647,060㎡ (-33.2%)
업 무 시 설	183,569 76,039 (-58.6%)	
숙 박 시 설	35,274 26,410 (-25.1%)	
공 장	141,586 187,775 (32.6%)	
기 타	612,188 413,709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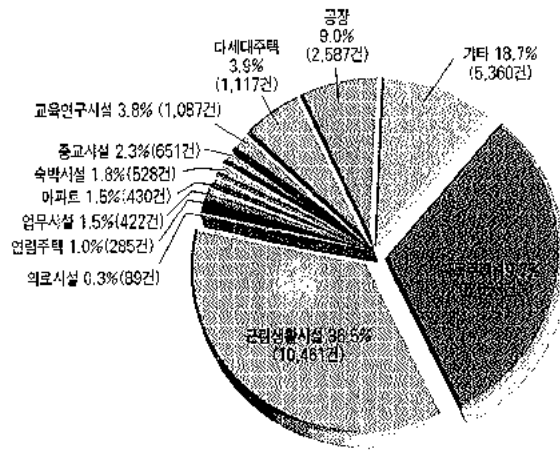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 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896	1,972	532,148	357	367	76,439	(1,539)	(1,605)	(455,709)	-85.6	
다 세 대 주 택	330	352	191,236	53	55	22,734	(277)	(297)	(168,502)	-88.1	
연 립 주 택	91	95	135,662	14	14	21,846	(77)	(81)	(113,816)	-83.9	
아 파 트	135	226	5,015,318	24	61	1,349,656	(111)	(165)	(3,665,662)	-73.1	
근린생활시설	2,774	2,839	1,297,357	1,006	1,054	282,884	(1,768)	(1,785)	(1,014,473)	-78.2	
종 교 시 설	121	136	73,954	60	66	29,033	(61)	(70)	(44,921)	-60.7	
의 료 시 설	13	14	27,282	8	9	5,727	(5)	(5)	(21,555)	-79.0	
교육연구시설	137	149	353,140	89	90	154,808	(48)	(59)	(198,332)	-56.2	
업 무 시 설	103	111	619,319	29	32	76,039	(74)	(79)	(543,280)	-87.7	
숙 박 시 설	166	182	192,959	32	34	26,410	(134)	(148)	(166,549)	-86.3	
공 장	564	709	994,728	233	292	187,775	(331)	(417)	(806,953)	-81.1	
기 타	1,039	1,147	1,446,938	497	607	413,709	(542)	(540)	(1,033,229)	-71.4	
합 계	7,369	7,932	10,880,041	2,402	2,681	2,647,060	(4,967)	(5,251)	8,232,981	-75.7	()=미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10월분 누계)



연면적 (총 43,713,146㎡)



건수 (총 28,670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228	1,230	5,966,380	296	301	1,102,016	(932)	(929)	(4,864,364)	-81.5	
부산	314	445	277,274	64	131	285,861	(250)	(314)	8,587	3.1	
대구	266	267	432,279	105	105	75,103	(161)	(162)	(367,176)	-82.6	
인천	268	271	477,048	137	143	213,206	(131)	(128)	(263,842)	-55.3	
광주	191	236	134,637	90	117	128,998	(101)	(119)	(5,639)	-4.2	
대전	198	198	213,577	79	79	42,951	(119)	(119)	(170,626)	-79.9	
울산	491	519	315,698	30	33	7,704	(461)	(486)	(307,994)	-97.6	
경기	1,205	1,379	734,798	512	604	211,487	(693)	(775)	(523,311)	-71.2	
강원	362	392	114,695	146	156	61,550	(216)	(236)	(53,145)	-46.3	
충북	386	427	156,288	122	138	38,111	(264)	(289)	(118,177)	-75.6	
충남	415	356	337,638	110	95	51,373	(305)	(261)	(286,265)	-84.8	
전북	779	779	476,800	199	199	221,751	(580)	(580)	(255,049)	-53.5	
전남	212	232	111,890	148	154	60,054	(64)	(78)	(51,836)	-46.3	
경북	335	378	705,506	132	142	35,736	(203)	(236)	(669,770)	-94.9	
경남	566	653	366,215	189	235	100,014	(377)	(418)	(266,201)	-72.7	
제주	153	170	59,318	43	49	11,145	(110)	(121)	(48,173)	-81.2	
합계	7,369	7,932	10,880,041	2,402	2,681	2,647,060	(4,967)	(5,251)	(8,232,981)	-75.7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0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3,023	13,072	44,887,131	4,703	4,762	23,547,975	(8,320)	(8,310)	(21,339,156)	-47.5	
부산	4,508	6,929	10,753,609	1,462	2,575	2,698,451	(3,046)	(4,354)	(8,055,158)	-74.9	
대구	4,535	4,540	5,900,162	1,000	1,000	797,347	(3,535)	(3,540)	(5,102,815)	-86.5	
인천	2,782	2,832	4,710,017	1,250	1,266	1,955,173	(1,532)	(1,566)	(2,754,844)	-68.5	
광주	3,170	3,593	2,030,503	933	1,160	762,643	(2,237)	(2,433)	(1,267,860)	-62.4	
대전	2,530	2,561	1,742,866	730	730	610,880	(1,800)	(1,831)	(1,131,986)	-64.9	
울산	805	842	499,290	445	471	247,983	(360)	(371)	(251,307)	-50.3	
경기	14,695	16,559	10,319,055	6,728	7,847	5,129,589	(7,967)	(8,712)	(5,189,466)	-50.3	
강원	4,385	4,779	1,861,481	1,854	2,053	958,304	(2,531)	(2,726)	(903,177)	-48.5	
충북	4,109	4,854	2,987,659	1,712	2,094	1,858,041	(2,397)	(2,760)	(1,129,618)	-37.8	
충남	3,373	2,733	2,233,219	1,628	1,364	865,071	(1,745)	(1,369)	(1,368,148)	-61.3	
전북	2,666	2,666	1,925,329	926	926	724,280	(1,740)	(1,740)	(1,201,049)	-62.4	
전남	2,891	3,118	1,579,266	1,112	1,215	567,934	(1,779)	(1,903)	(1,011,332)	-64.0	
경북	3,864	4,272	2,511,805	1,611	1,798	847,768	(2,253)	(2,474)	(1,664,037)	-66.2	
경남	7,177	8,363	5,800,280	1,963	2,420	1,886,516	(5,214)	(5,943)	(3,913,964)	-67.5	
제주	1,517	1,679	658,469	613	719	255,191	(904)	(960)	(403,278)	-61.2	
합계	76,030	83,392	100,400,141	28,670	32,400	43,713,146	(47,360)	(50,992)	(56,686,995)	-56.5	()=마이너스

건축사 9812

98년07월호 (통권 351호)

칼럼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전지하고 정확히 다들 발걸음을 옮기게	최관열	08
작품리뷰 / 동아방송대학	반 울	10	
	대담: 동사적 삶, 그 동사적 재안	임석재	19
	비평: 자의성과 보편성의 교집합 찾기	어두인	23
회원작품	이재지	노형예	28
	오 & S. 문혜경	주영정	30
	서향실업사옥	이종원	32
	맥스호텔	김인수 · 최재민	34
	만산어린이집	김성근	3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100 - 홍순안(1)	최환호	38
데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00 - 대구 · 구미 · 김천(하)	원진디렉터/김영호	김익환	44
	구미 도시탐색	김익환	51
	구미건축을 바라보면서	전현익	58
	김천 - 작은 도시의 매력	김정영	64
	좌담: 영남 내륙권도시 - 보수, 군데, 공원의 이야기		64
특집토론	'98한국건축문화대상 제1회건축을부운 공모주제		73
해외건축	구조 디자인의 역할	이정수 외	80
기고	건축사를 위한 CAD시스템	임태우	92
	서울 도시살개의 제3집	윤혁경	96
	건축의 개방화시스템을 위한 표준화(1)	박준영	101
	모더니즘, 그 역사적 서명 - 뉴욕 현대미술관	박태형	106
건축마당	합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3
	현상설계		117
	회원현황		121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2
	게시판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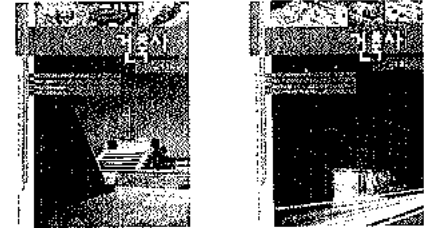
98년08월호 (통권 352호)

칼럼	어느 건축적 공무원의 죽음과 우리 건축의 현실	김기환	12
작품리뷰 / 서울시립대 종합문화관	우시웅	14	
	대담: 건축적 경험의 내재된 즐거움	최유경	23
	비평: 우시웅의 건축과 한국현대주의	김성홍	27
회원작품	김국길 기념관	김민철	32
	청규전	김낙중	34
	한국교회 이기동성교기념 후원센터	정현건축	38
	이태원 다다구 주택	조주환 · 홍현구	39
	프로세스(주) 본사 및 공장	김성일	40
	부산시립미술관	이종홍	42
	목산정원아파트	홍철수	44
	수원 인계동 빌딩	이종철	46
	한솔사옥	이상국 · 박윤기	4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100 - 홍순안(2)	최환호	50
데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00 - 수원	원진디렉터/김인석	김진태/김인석	58
	성곡도시 화상에서 수원 현대도시로의 발전	임태웅	63
	역사도시의 명칭·확성	안종수	62
	수원에세이 - 오늘의 수원 모습	윤인석	66
	좌담: 수원 -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하여		73
기고	대비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모더니즘건축	박태형	80
	건축의 개방화시스템을 위한 표준화(2)	박준영	84
연구	CEO가 읽는 23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분석	문원희/건축연구소	89
건축마당	합회소식		95
	건축계소식		97
	현상설계		10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0
	회원 현황		112
	게시판		113



98년09월호 (통권 353호)

칼럼	투어리즘시티를 제안한다	김석철	8
작품리뷰 / 동인교회	최영길	14	
	대담: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정	김영중	23
	비평: 건축가의 문화 현실	정인하	27
회원작품	한국면사무소	송영문	30
	공간디자인	김장태	32
	영천구민회관	이성택	34
	영성교회 교육관	전병직 · 고석근	36
	영수문화 예술회관	임정일	38
	오천빌딩	남성광	40
	만남 - 1	김희곤	42
	해운대 신곡중학교	김성근	44
	한진빌딩	김민준	46
작품노트	천주교 성당건축	김지호	4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100 - 홍순안(3)	최환호	52
데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00 - 전주 · 익산 · 군산(상)	원진디렉터/김영호	김민준	58
	백제문화의 유산을 찾아서	김동수	60
	도시의 기억, 도시의 건축	양상현	64
기고	현상설계, 다시 한 번 생각하자	허정호	72
	건축을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방향	조태종 · 류지열	74
	21세기 미래주택: 첨단화와 사용자	박태형	82
	건축의 개방화시스템을 위한 표준화(3)	박준영	86
건축마당	합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2
	현상설계		97
	계획리뷰		102
	전시리뷰		103
	인테리어건축여행		108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0
	회원현황		112



98년10월호 (통권 354호)

칼럼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오환근	12
작품리뷰 / P&O 주택	윤준수	14	
	대담: 보편성과 향상의 건축	심형섭	21
	비평: 욕망없는 건축, 편안한 집	조윤준	29
회원작품	산성교회	김민철	34
	제자교회	함인선	36
	대원어린이집	김호인	38
	일산주택 1	임기홍	40
	성서지동자 상수 A/S 센터	한상욱 · 김민희	42
	신곡 30	김성일	44
	마천 구세군 노인복지시설	김정준	46
	금강병원	한경호	48
	서울특별시의회	정동원 · 진 정	50
데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00 - 전주 · 익산 · 군산(하)	원진디렉터/김영호	김민준	58
	지역소의 표상: 건축과 장소성의 특성	진 정	64
	익산의 어제와 오늘	윤철열	68
	전지는 도시에서 도약하는 도시로	최선호	62
	좌담: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		71
기고	건축사와 모더니즘 - 공적사업 허락이 급하다	이동정	84
	건축의 개방화시스템을 위한 표준화(4)	박준영	87
건축마당	합회소식		95
	건축계소식		97
	현상설계		104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09
	회원현황		11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6
	게시판		118



98년11월호 (통권 355호)

취업사	취업에 즈음하여	마의구	6
발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 - 공익과 전문성	조성룡	8
작품리뷰 / 서리교회	송영문	10	
	대담: 일제강점기 때, 역사도시와 노아의 방주	성인수	19
	비평: 전지성호, 복원을 위해서	김병철	25
전시회 / '98한국건축문화대상	29		
	준공건축물부		
	대산 - 홍산현대미술관		
	본산 - 고려표현(주) 사옥		
	김동길기념관		
	오송현대미술관		
	세레나리스		
	이태원다다구주택		
	백남준미술관		
	앞산 - 제주강정교회 14점		
	제1회건축물부 / 은상, 통상		
데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00 - 대전	원진디렉터/김영호	김민준	58
	대전과 역사와 풍속	한상욱	61
	도시의 발전	고성희	65
	대전과 대전건축	김정준	71
	대전과 대전건축	유영우	74
	21세기 대전건축의 주역	송영호	77
	대전 도시건축의 정책적	김익환	79
	대전 도시건축의 전망과 과제	임영민	84
	좌담: 대전 도시건축의 정책적		
건축마당	합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7
	현상설계		104
	계획리뷰		109
	전시리뷰(대전현대미술관 건축대전)		110
	회원현황		11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9
	회원현황		120



98년12월호 (통권 356호)

칼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정기용	10
이임단상	새로운 길을 걷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부회	김영수	12
작품리뷰 / 시간	부대진	14	
	대담: 무대와 객석 공간의 변신	등정근	24
	비평: 보아주고 싶은 죽음의 강 - 육기가 XIAN	만진주	29
회원작품	연동교회 김화수영전	양태웅	32
	강남대학교 50주년 기념관	김영중	36
	LG공백연구단지 생산기술연구소, 식당동	이종원 · 김광성	38
	태릉대 전방배	이종원 · 김광성	40
	독수리빌딩	이인호	42
	윤호인 주택 리스	서용석	44
	영동로 제1빌딩	최동규	46
	귀여리 303	김희곤	48
	강원도립대학 학생회관	이진표 · 현광호	50
	달빛동굴 아파트공고	최영석	52
작품노트	남강빌딩	김효민	54
건축마당	여정빌딩	양상현	60
기고	거울에 비친 나의 초상	김희곤	67
	건축사가 제안하는 도시에서 빌딩	류지열	69
	현상설계 건축가 김지	박준영	72
	MTA(대전) 건축가	김희선	76
	미래형 주택 인테리어	박태형	79
리포트	제8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참가기(1)		83
건축마당	합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3
	현상설계		100
	해외건축여행		107
	전시리뷰(건축가 미술전)		113
	회원현황		11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0
	98년도 건축사지 등록사		122



건축사협회 CUG 이용안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C. U. G. 사용방법

1. 먼저 PC에 모델을 설치하고 PC통신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여기에 한글과 컴퓨터의 한네트를 활용했음, 설치되어 있으면 생략).
2. PC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리안에 접속을 시도한다(01421 등).
3. 천리안에 ID를 입력하여 접속이 되면 "GO KIRA"라고 입력하거나 초기메뉴에서 기업포럼/CUG를 선택하여 들어간다. 여기서 CUG란 폐쇄 이용자 그룹이라는 뜻으로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대한건축사협회 CUG는 대한건축사협회 CUG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CUG의 가입은 천리안 가입자이고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천리안에서 KIRAHEAD(본협회 CUG관리자 ID)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본협회로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천리안 ID, 신청자 성명을 기록하여 FAX 583-6108로 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4. 기업 포럼/CUG에서 CUG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3. 건축/건설/부동산"을 선택한다.

- 우리 협회에서는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볼 서비스에 CUG(Closed Use Group: 폐쇄 이용자 그룹)를 개설하였습니다.
- CUG란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릴, 각종 현상공모 알릴, 관련법을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CUG담당자(정보관리실 정보전산팀)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신규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천리안 매직볼 가입신청서를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하면, (주)데이콤의 천리안 매직볼 이용 권한과 우리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나. 천리안 매직볼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리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다. CUG 연결방법: 천리안 매직볼에 접속한 후 "GO KIRA" 입력(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우리 협회 CUG를 모든 회원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볼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CUG중 건축·건설 관련 업체를 모인 공간이다.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건축사협회의 Logo와 함께 건축사협회 초기화면이 펼쳐진다.

C. U. G. 메뉴

[자료실]: 00. CUG 자료실 -

- | | | |
|------------------------------------|--------------|-------------|
| 1. CAD관련 자료(도면자료, 응용프로그램) | | |
| 2. OA관련 자료(응용프로그램, DATA) | | |
| 3. 자재관련 자료실 | | 4. 시공관련 자료실 |
| 5. 설계관련 자료실 | | 6. 법규관련 자료실 |
| [전자우편/FAX] | | |
| 31. 편지쓰기 | 32. 편지읽기 | 33. 보낸편지 확인 |
| 35. FAX 쓰기 | 36. FAX 배달확인 | |
| [강의실] | | |
| 41. 묻고 답하기 | | 42. 건축이야기 |
| 43. 잡지 수록 기사 | | 44. 해외건축동향 |
| - 메뉴 개선의 특징 | | |
| 가) 초기화 화면 내용 개선 및 구성 체계화 | | |
| 나) 기존의 메뉴를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찾기 쉽게 개선 | | |
| 다) 기존의 일방적 정보제공 위주에서 벗어나 정보의 공유 유도 | | |
| 라) 「홈페이지」의 정보수집 창구 역할 수행 | | |
| 마) 지상강의를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실시 | | |
| 바) 인터넷 홈페이지와의 연계 | | |
| 사) 자료실로서의 역할 강화 | | |

신청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CUG담당자(정보관리실 정보전산팀)

FAX 02)583-6108 · TEL 02)581-5711~4

상세한 내용 문의: (데이콤) TEL 02)581-3340(대) · FAX 02)581-3467